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知識經濟

Knowledge Based Economy

2012 가을



■ 총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시장 발굴

- 새로운 수출 시장, 남미 ABC 경제권
- 생산 기지의 대안, 동남아 바트(Baht) 경제권
- 한국의 제2교역권으로 부상하는 중동 GCC 경제권
- 아프리카의 미개척 시장 ECOWAS 경제권

(여 백)

(여 백)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知識經濟

2012 가을

- 총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시장 발굴
 - 새로운 수출 시장, 남미 ABC 경제권
 - 생산 기지의 대안, 동남아 바트(Baht) 경제권
 - 한국의 제2교역권으로 부상하는 중동 GCC 경제권
 - 아프리카의 미개척 시장 ECOWAS 경제권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장후석,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23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3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知識經濟

2012 가을

목 차

■ 핵심 내용	i
■ 총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시장 발굴	1
- 새로운 수출 시장, 남미 ABC 경제권	15
- 생산 기지의 대안, 동남아 바트(Baht) 경제권	57
- 한국의 제2교역권으로 부상하는 중동 GCC 경제권	77
- 아프리카의 미개척 시장 ECOWAS 경제권	91
■ 주요 국내외 경제 지표	103

(여 백)

총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시장 발굴

1. 개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외수에 상당 부분을 의존해 왔다. 한국 경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를 고려한 수출의 실제 성장 기여도를 계산해 보면, 글로벌 위기 이전('00~'07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5.2% 중 절반인 2.6%p가 수출이 견인한 반면 위기 이후('10~'11년) 경제성장률 5.0% 중 3분의 2 이상에 달하는 3.4%p의 기여를 할 정도이다.** 특히 한국이 최근의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잘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한 가지는 21세기 초반 급부상하는 중국 경제의 고성장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위기 이후 아시아 주요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대 중국 수출/ 해당국 GDP)가 크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2010~11년 기준으로 약 12.9%의 의존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중국 경제는 경제 발전 단계의 상승으로 경제성장률은 점차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현재의 모든 국제분업구조와 산업구조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가정할 경우, **중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의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감소분은 2010~20년 0.9%p, 2020~30년에는 0.8%p로 추정된다.** 우리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2의 중국 시장이 될 수 있는 '포스트 차이나 시장'의 발굴이 시급하다.

2. 세계 경제의 코어 이동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경제의 중심이 이동되는 가운데, 개도국 경제의 특징은 성장 캐치업, 교역 비중 증가, 자본 집중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신흥시장·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경제성장률 및 경제 발전 속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모습이다.** 1990년대(1990~00년) 선진국과 신흥시장·개도국의 경제성장률 격차는 연평균 1.0%p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2001~11년)에는 4.6%p로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인구 증가를 고려한 국가의 경제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1인당 GDP 증가율 자체도 후진국의 성장세가 확연하게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어 후진국이 선진국의 경제 발전 수준을 따라잡는 '캐치업(catch up)'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제품의 복잡 다기화, 무역 장벽의 완화 등의 이유로 세계 수출·입 모두에서 개도국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후진국수출액/세계총수출액 비중은 2000년 26%에서 2011년 36%로 약 10%p가 높아졌다. 한편, 후진국이 세계 교역에서 공급자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증가율도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셋째, 개도국의 고성장과 교역비중 확대는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 자본을 유인하고 있다. 고소득국 즉 선진국에 대한 net inflow FDI(순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 이후 연평균 약 1조 달러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으나, 저소득국은 2000년 1,500억 달러 규모에서 2010년 5,000억 달러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세계 순 FDI에서 후진국으로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1%에서 2010년 35%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3. 2013년 주목해야 할 신흥시장

이렇게 세계 경제에서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에서도 향후 주목해야 할 신흥 시장으로 ABC, 바트(Baht)경제권, GCC, ECOWAS의 네 개의 지역을 들 수 있다. **첫째, 규모의 경제 - ABC이다.** 이는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말한다. 이들 국가들은 과거 디폴트로 인한 침체를 벗어나 대규모 시장으로써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다만 최근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가능성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리스크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속도의 경제 - 바트(Baht) 경제권이다.** 바트 경제권은 태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의 인도차이나반도 5개국을 의미한다. 중국 시장으로의 침투가 유리, 저렴한 생산 비용 등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셋째, 자원의 경제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를 들 수 있다.** 중동 걸프만의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 산유국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의 필수 원자재인 원유자원의 확보처뿐만 아니라, 유가 상승으로 높아진 구매력에 주목해야 한다. **넷째, 가능성의 경제 -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서아프리카 경제협력체)를 들 수 있다.** ECOWAS는 서아프리카의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토고 등 약 15개국을 회원국으로 가지는 경제협력체를 말한다. 이들 지역은 자원의 보고로 세계 주요국들의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경제 발전에 대한 욕구가 높고 구매력도 상승하고 있어 수출 시장으로써의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4. 시사점

성공적인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첫째,** 신흥 경제권에 대한 접근은 정부 차원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외교·경제적 협력 관계를 동반해야 한다. **둘째,** 시장 진출 목적에 맞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진행이 요구된다. **셋째,** 진출에 앞서 해당 지역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신흥 시장 고유의 투자 환경 및 다양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새로운 수출시장, 남미 ABC 경제권

1. 중남미 경제권과 ABC

중남미 경제권은 면적 20,550천km²(세계 면적의 15%, 한반도의 93.5배)에 6억명(세계 인구의 8.5%)이 거주하며,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 GDP의 8.0% 비중을 차지한다. 'ABC'는 중남미 경제의 중심이며 신흥 시장으로 부상 중인 아르헨티나(Argentina), 브라질(Brazil), 칠레(Chile)를 의미하며, 중남미 면적의 58%, 인구의 41%, 경제(GDP)의 57% 비중을 달한다. 1인당 GDP는 1만~1만 5천달러 수준으로 제조·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광물·농업 자원의 수출이 활발하다.

2. ABC의 성장 잠재력

첫째, 견조한 경제 성장세가 전망된다. ABC는 세계 GDP 대비 비중이 4.5%로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2017년 이후까지 4% 이상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산업구조 측면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빠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제 비중이 높았던 광업·제조업의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물류·통신, 도소매·숙박업종 등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셋째, 중산층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전반적인 중산층의 증가세가 확연해 소비시장의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균 연령이 30세 전후인 젊은 국가들로서 인적 자원이 풍부하여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넷째,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 진행 중이다. 남미 경제권의 통합과 활발한 인프라 투자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이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ABC 국가들의 고정자본 형성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1.2% 증가하였다.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한·칠레 FTA 체결 등으로 한국과 ABC 국가들 간의 교역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對ABC 국가에 대한 수출은 운송장비, 석유화학 IT 제품 위주이며 수입의 대부분은 원자재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직접투자 규모도 급증하고 있으며, 투자 분야도 IT, 도소매, 광업, 금속 및 운송 장비 제조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4. 시사점

한국 정부는 정치·외교적 관계의 지속적이고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업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인프라 건설, 원자재, 금융 등의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FTA 등을 감안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현지 기업과의 사전 협력 강화, 틈새시장 공략을 본격 현지 진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 기지의 대안, 동남아 바트(Baht) 경제권

1. 신흥시장으로 주목받는 바트 경제권

바트 경제권이란 태국의 화폐인 바트(Baht)화의 영향력에 따라 형성된 5개 국가의 소규모 경제권을 일컫는다. 해당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문화가 유사하며 역내 교역이 활성화되는 등 최근에 들어 경제적 관련성이 증대되고 있다.

바트 경제권의 전세계 생산 비중은 현 1% 내외 수준에 불과하지만 2008년 금융 위기에도 양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최근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해당 국가들은 최근 세계 경제의 장기 저성장기로의 진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역거래 증가, 외국인 투자 확대 등으로 6% 이상의 지속적 성장이 전망된다.

2. 바트 경제권의 잠재력 및 한계

바트 경제권 지역은 현재 소비시장, 자원 조달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향후 중국에 이은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성장이 기대된다. 해당 지역은 총인구 2억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부존자원이 존재하지만 소비력이 낮고 자원개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저렴하며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인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향후 생산기지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바트 경제권 지역은 생산기지로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기업 진출 환경, 영토 분쟁과 내전 등 정치·외교적 리스크를 지닌다. 우선 각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가 만연하며 태국을 제외하고는 기업환경이 열악하다. 또한 도로, 철도 등 기본 인프라시설이 정비된 곳이 많지 않아 높은 물류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태국과 캄보디아, 베트남은 영토 분쟁, 미얀마와 태국은 반정부 시위의 위험성이 내재한다.

3. 한국경제와의 연관성

최근 한국은 바트 경제권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이 활성화됨에 따라 수출비중과 투자규모 모두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한국의 대 바트 경제권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수출비중(5개국 총수출액/ 한국의 총수출액) 또한 상승했다. 또한 한국기업들은 제조업 생산기지 진출을 중심으로 투자를 적극 늘리는 상황이다.

4. 시사점

바트 경제권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는 바트 경제권의 부상이 한국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역내 국가들과의 외교·경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현 단계에서는 바트 경제권의 시장 규모보다는 생산 기지로서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한 진출 모색이 요구된다. **셋째**, 단 바트 경제권 진출 여부를 결정할 때는 우수한 임금경쟁력 뿐만 아니라 취약한 인프라 기반, 열악한 기업환경, 사회 내 부정 부패 또한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넷째**, 해당 지역 고유의 높은 정치·외교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진출 국내 기업들의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한국의 제2교역권으로 부상하는 중동 GCC 경제권

1. GCC 경제권의 부상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는 중동 걸프만 연안의 6개 아랍국가(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가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이다. GCC 가입국들은 정치·종교·문화·언어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상대적인 측면에서 중동지역 내에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의 협의체이다. 한국 영토의 26배에 해당하지만, 인구는 80%에 불과한 GCC경제권은 중국에 이은 한국의 제2교역권으로 성장하였고 석유 등 에너지자원의 주요 수입지역으로서 경제적 중요성을 갖는다.

2. GCC 경제 및 산업의 특징

첫째, GCC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약 1.3배 수준이고 전세계 경제의 약 2.1%를 차지한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2007년까지 GCC를 능가하였으나 2008년 이후 역전을 허용하였다. 이는 2000년 들어와서 GCC 소속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 혹은 전세계 평균보다 높은 성장을 지속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카타르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기 이전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쿠웨이트, UAE, 바레인 등의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에 크게 하락하였다.

둘째, 원유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GCC 국가들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확보하고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원유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였고, GCC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원유가격과 유사한 패턴을 형성하여 왔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약 2조 달러의 누적 흑자액을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GCC 국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은 이러한 대규모의 오일머니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GCC 국가들은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낮은 편이다. GCC 경제권은 전세계 원유 매장량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총수출의 약 75%가 원유수출에서 발생하고 있고,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 또한 에너지 자원 덕분이다. 반면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각각 10%와 40%에 불과하다. GCC 국가들은 에너지 자원 고갈에 대비하고 석유의존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다각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원유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대규모의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원유와 관련된 석유화학산업뿐만 아니라 교육·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육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3. GCC 경제권과 한국경제

첫째, 한국과 GCC 경제권 간의 무역불균형이 심각하다. 한국은 GCC로부터 주로 원유를 수입하고 있고, 전기전자·자동차·조선 등의 제조업 상품을 수출한다. 그러나 수입하는 금액이 수출하는 금액의 5배 이상이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의 누적 적자액은 5,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동일기간 동안 일본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3,000억 달러의 적자액을 훨씬 상회한다. 에너지 자원이 빈약하고 수출을 중시하는 한국경제의 특성상 수출규모가 증가하면 GCC로부터의 원유 수입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한국과 GCC간 무역불균형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이다.

둘째, GCC 국가들은 한국 건설업체들의 최대 수주 시장이다. 전체 해외건설 수주 중에서 GCC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40~60% 정도에 해당한다. 한국은 GCC로부터의 건설수주를 통해 원유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성적 무역적자의 일부를 상쇄해 왔다.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이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의 증가로 인해 GCC 국가들의 건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동에서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 건설업체들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4. 시사점

첫째, 한국의 제2교역권으로 부상한 GCC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협력 증진 및 국내기업 진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GCC와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안정적인 수출여건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한국과 GCC간의 조속한 FTA 타결이 요구된다. 둘째, 다양한 지역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원을 다변화하여 자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GCC 주변지역에 잠재해 있는 민주화의 확산, 이란의 핵개발 등 다양한 불안요인을 인지하고, 원유 수입 지역 다변화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GCC 국가들과의 교류를 한 차원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한다. 한국과 GCC 경제권은 상호간의 활발한 경제 교류에 비해 사회·문화적 교류는 미흡한 실정이다. GCC 경제권과의 교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사회·문화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

아프리카의 미개척 시장, ECOWAS 경제권

1. ECOWAS 시장에 대한 관심 증대

서아프리카 경제 협력체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국가들은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서아프리카 지역 15개 국가는 지역 경제 협력체 ECOWAS를 결성하여 회원국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 동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ECOWAS는 서아프리카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풍부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 ECOWAS 경제 현황 및 산업 구조

첫째, ECOWAS의 명목 GDP 규모(4,030억 달러)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 전체 GDP(12,810억 달러)의 31%를 차지한다. 한편 ECOWAS 총 경제에서 나이지리아(68%), 가나(10%), 코트디부아르(6%) 등 3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4%이다. ECOWAS의 일부 국가는 신흥국에 버금가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2000~2012년 SSA의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5.6%)을 기준으로 고성장과 저성장을 구분하면,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등 6개국이 고성장 국가로 분류된다.

둘째, ECOWAS 지역은 수출, 수입 증가로 교역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급증하고 있다. 2011년 교역 규모는 약 2,400억 달러 수준이며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10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 모두 나이지리아와 가나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셋째, ECOWAS 국가들은 1차 산업 중심의 국가들이 대다수이며 제조업 기반은 아직 취약한 수준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광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이 주목된다. 나이지리아, 가나는 광업 부문의 비중이 30% 이상으로 풍부한 석유 및 광물 자원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세네갈과 코트디부아르는 서비스업 부문이 전체 경제의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넷째, 서아프리카는 특히 기니만의 유전 개발 가능성이 높고 자원 탐사가 본격화 되면 에너지·광물 자원의 추가 발견이 기대된다. 현재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가 생산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금, 보크사이트, 인광석, 우라늄, 동, 코발트 등이 주요 생산 자원이다. 또한 아직 미탐사된 지역이 많아 다양한 광물자원의 추가 생산이 기대된다.

3. ECOWAS와 한국 간의 경제 교류

첫째, ECOWAS와 한국의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수출입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은 ECOWAS와의 교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보다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對 ECOWAS 총수출(105억 달러)의 94%가 라이베리아와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발생하였고, 주요 수출품목은 선박, 승용차, 가전제품 등이다. 한편 ECOWAS로부터의 총수입(10억 달러)은 나이지리아(83%)로부터의 에너지 자원 수입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ECOWAS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 제공은 미미한 수준이며, 나이지리아·가나 등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은 전세계 해외직접투자 중에서 약 0.13%, 아프리카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중에서 약 10%를 ECOWAS 지역에 투자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중에서 ECOWAS 국가들에 대한 원조 비중은 약 2% 수준이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ECOWAS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의 33%, SSA 국가들에 대한 원조의 6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 시사점

첫째, 정부와 기업은 ECOWAS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 및 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한 동반성장 추구 등 단계적 전략을 실시해야 한다. ECOWAS 소속 저개발국 국민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자립 기반 지원 강화를 통해 국가 위상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기업들이 ECOWAS 경제권으로 진출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기회를 정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협력관계 조성 및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한·아프리카 포럼,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등을 활성화하고 지역 전문가를 육성하여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ECOWAS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자원 공급원의 다변화, 신시장 개척,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이 풍부한 ECOWAS와의 교류 증진은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나와 아프리카 최대의 원유 생산국인 나이지리아를 거점으로 삼아 점진적인 진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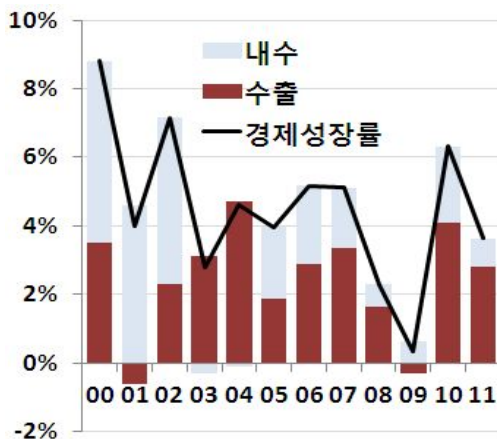
총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시장 발굴¹⁾

1. 신시장 발굴의 필요성

○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수요 및 중국 의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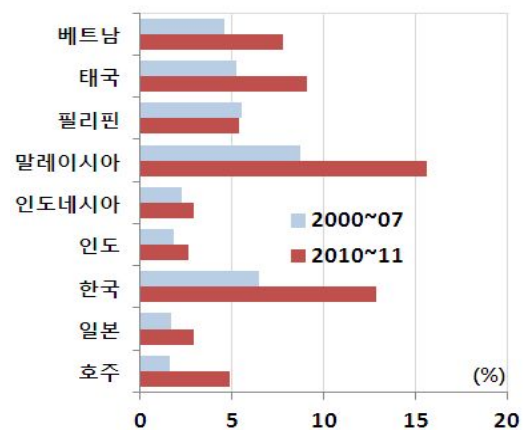
- 한국의 경제 성장은 외수에 상당 부분을 의존해 왔고 앞으로도 대외 경제의 성장력을 흡수하여 자신의 성장 에너지로 만들어야 함
 - 부가가치유발계수를 고려한 수출의 실제 성장 기여도를 계산해 보면, 글로벌 위기 이전('00~'07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5.2%중 절반인 2.6%p가 수출이 견인한 반면, 위기 이후('10~'11년) 경제성장률 5.0% 중 3분의 2 이상에 달하는 3.4%p의 기여를 함
- 특히 한국이 최근의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잘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한 가지는 21세기 초반 급부상하는 중국 경제의 고성장에 의지했기 때문임
 - 글로벌 위기 이후 기간인 2010~11년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대 중국수출/ 해당국 GDP)는 약 12.9%의 의존도를 기록함

<한국의 실제 수출의 성장기여도²⁾>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한 연구원 계산.

<아시아 주요국의 대중국수출/GDP 비율>



자료: IMF.

1) 현대경제연구원(2012e), "포스트 차이나 시장이 무역 강국의 기반이다", 현안과 과제를 재계재.
 2) 각 연도의 국민계정상 수출만의 기여도를 산업연관표(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상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로 조정하여 연구원 자체 계산한 수치로 한은에서 발표하는 수출이나 순수출 기여도와는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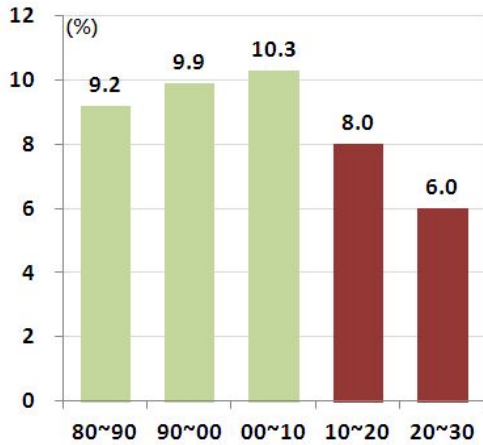
○ 포스트 차이나 시장의 발굴 필요성 증대

- 앞으로도 한국의 경제 성장이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해외 수요를 확보해야 함
- 현재에도 선진국에서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 중국이 경제의 성숙화 단계로 진입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중심의 경제 의존 구조는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당분간은 중국의 빠른 경제 발전을 동력 삼아 우리의 성장을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겠지만,
 - 중국은 시장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변신하고 있고 이미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은 더 이상 신흥 시장이라고 하기 어려움
 - 그동안 한국 경제의 해외 시장 수요 중심에는 중국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중국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향후 중국 경제는 경제 발전 단계의 상승으로 경제성장률은 점차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것임
 - 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현재의 모든 국제분업구조와 산업구조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가정할 경우,
 - 2010~20년 중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의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감소분은 0.9%p로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없다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4%p로 하락하게 됨
 - 또한 2020~30년의 기간에는 중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르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감소분은 0.8%p로 잠재성장률 자체를 2.6%로 떨어뜨리게 되는 것으로 분석됨³⁾

3) 현대경제연구원 (2012a)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98~'07년) 4.7%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08~12년) 3.8%로 하락. 2000~10년 기간에는 평균 4.3%를 기록함. 한편, 현대경제연구원 (2012b)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 1%p 감소시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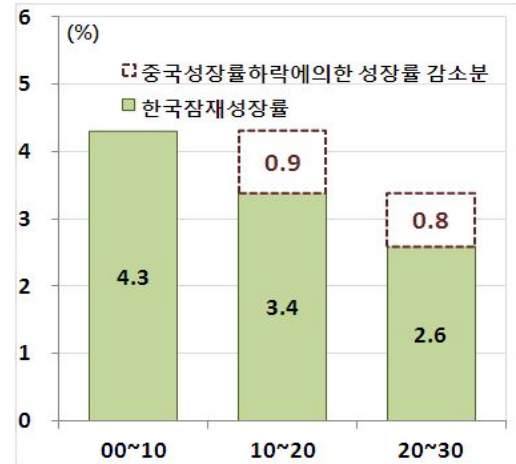
-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자원 조달 시장과 직접 진출을 겨냥한 투자 대상 지역으로의 가치가 있는 신흥 시장을 적극 찾아 나서야 하는 긴박함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중국의 중장기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ADB.
주: 2010~20년 및 2020~30년은 전망치.

<중국 성장률 하락의 한국 성장률에 대한 영향>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ADB의 중국성장률 전망치를 이용한 추정.

2. 세계 경제의 코어 이동

-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경제의 중심이 이동되는 가운데, 개도국 경제의 특징은 성장 캐치업, 교역 비중 증가, 자본 집중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 20세기가 선진국들이 세계 시장을 지배했다면 21세기는 개도국 및 중진국들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는 시대이며, 따라서 사업의 기회는 선진국보다 역동적인 신흥시장에서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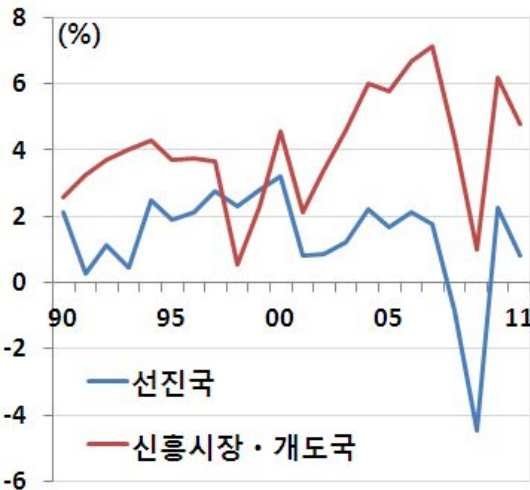
- (경제 발전 캐치업⁴⁾) 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신흥시장·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경제성장률 및 경제 발전 속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남

경제성장률은 0.4%p 하락 압력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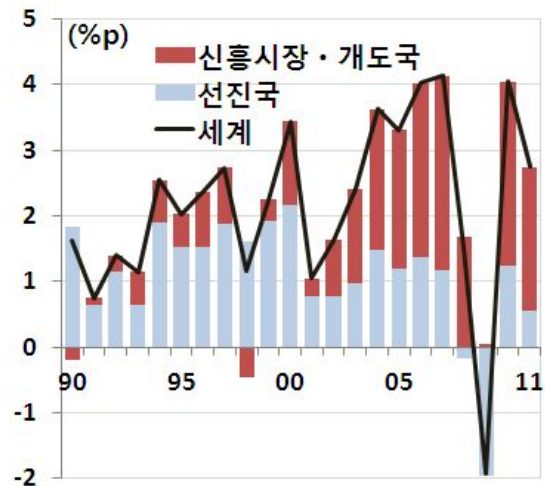
- 4) Robert J. Barro의 이론으로 후진국이라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선진국의 경제발전 정도를 추격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소득의 수렴가설(convergence of per capita income)로도 불리우고 있음. 이에 대한 긍정적인 실증분석 결과로는 Baumol(1986), Mankiw et al(1992) 등이 있음.

- 1990년대(1990~2000년) 선진국과 신흥시장·개도국의 경제성장률 격차는 연평균 1.0%p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2001~2011년)에는 4.6%p로 크게 확대됨
 - 1990년대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2.9%, 신흥시장·개도국은 3.9%를 기록하였으며,
 - 2000년대에는 선진국은 1.6%로 낮아진 반면 신흥시장·개도국 경제성장률은 6.2%로 크게 상승함
- 또한 인구 증가를 고려한 국가의 경제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1인당 GDP 증가율 자체도 후진국의 성장세가 확연하게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어 후진국이 선진국의 경제 발전 수준을 따라잡는 '캐치업(catch up)'이 나타나고 있음
 -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은 선진국이 1990년대 2.0%에서 2000년대 0.8%로 낮아진 반면, 신흥시장·개도국은 같은 기간 3.3%에서 4.7%로 상승함
 - 이에 따라 세계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을 100으로 보았을 때 신흥시장·개도국의 기여 정도는 90년대 17%에서 2000년대 60%로 영향력이 크게 확대됨

<선·후진국의 1인당GDP증가율>



<선·후진국의 세계 1인당GDP증가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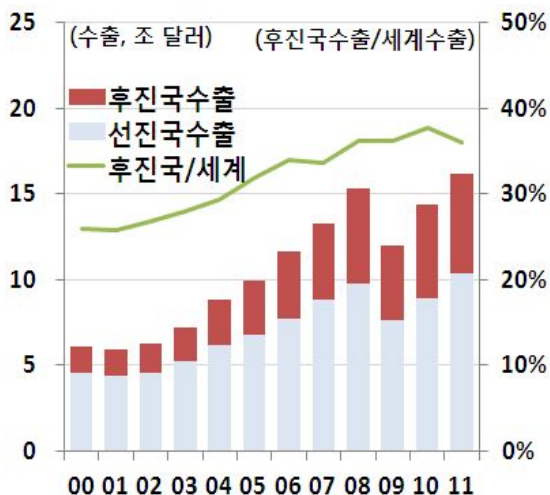
자료: IMF.

주: real GDP per capita 기준.

○ (교역 비중 증가) 제품의 복잡 다기화, 무역 장벽의 완화 등의 이유로 세계 수출·입 모두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임

- 후진국 수출액/세계 총수출액 비중은 2000년 26%에서 2011년 36%로 약 10%p가 높아짐
 - 선진국의 전체의 수출액은 2000년 4.5조 달러에서 2011년 10.4조 달러로 약 2.3배 증가한 반면,
 - 후진국의 경우 같은 기간 1.6조 달러에서 5.8조 달러로 3.6배 증가함
- 한편, 후진국이 세계 교역에서 공급자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증가율도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임
 - 글로벌 위기 이전의 기간('00~'07년)의 경우 선진국의 수입(명목 달러화수입액 기준)증가율은 연평균 10.1% 이었으며 후진국도 16.2%의 증가율 보임
 - 글로벌 위기 이후의 기간에도 전반적인 교역 위축 현상이 발생하여 선진국은 1.3%의 수입 증가율에 그쳤으며, 후진국도 4.5%로 낮아짐
 - 그러나 전세계 수입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후진국 수입이 글로벌 위기 이전 평균 25%에서 위기 이후 33%로 높아짐

<선진국 및 후진국 수출입 추이>



<선진국 및 후진국 수입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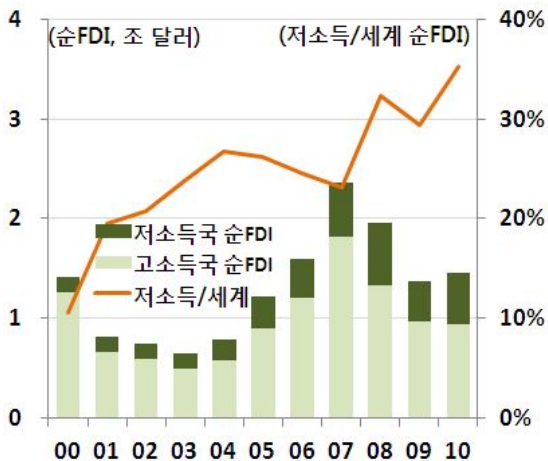
	'00~'07	'08~'11
세 계	11.6%	2.3%
선진국	10.1%	1.3%
후진국	16.2%	4.5%
후진국수입 비중	25%	33%

자료: UNCOMTRADE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선진국은 OECD 34개 회원국 기준.

○ (자본 집중 확대) 개도국의 고성장과 교역비중 확대는 선진국 자본을 유인하고 이는 개도국에 대한 자본집중 현상을 유발함

- 고소득국 즉 선진국에 대한 net inflow FDI(순외국인직접투자)⁵⁾는 2000년 이후 연평균 약 1조 달러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으나, 저소득국은 2000년 1,500억 달러 규모에서 2010년 5,000억 달러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이에 따라 세계 순 FDI에서 후진국으로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1%에서 2010년 35%로 빠르게 증가함
- 한편, 주요 지역별로 보면 남반구 신흥 지역에 대한 투자 규모 자체는 크지 않으나 그 자본 유입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전 세계의 순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1조 4,575억 달러로 이중 약 83%가 유럽·중아시아, 동아시아·태평양, 북미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반면 중남미, MENA, 남아시아, SSA 등의 남반구 신흥지역의 경우 순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2000년대('00~'10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대체적으로 빠른 증가 속도를 나타내고 있음

<소득기준별 순외국인직접투자 >



<지역별 순외국인직접투자(억 달러)>

지역	2010년		증가율 ('00~'10)
	금액	비중	
세계	14,575	100%	0%
유럽·중아시아	5,673	39%	△3%
동아시아·태평양	3,788	26%	9%
북미	2,602	18%	△4%
중남미	1,330	9%	4%
MENA	642	4%	19%
남아시아	279	2%	20%
SSA	261	2%	15%

자료: 세계은행.

주: 1) 순외국인직접투자(net inflows FDI) = 신규·증액 투자 - 투자 회수·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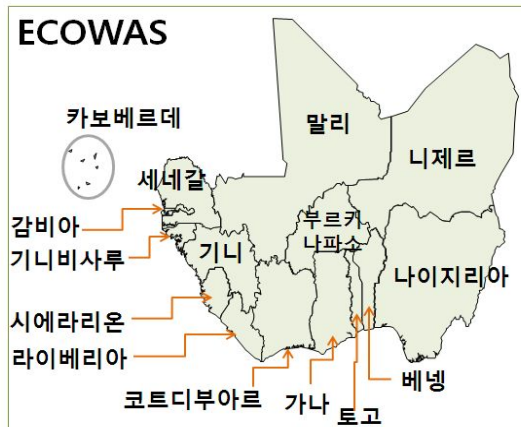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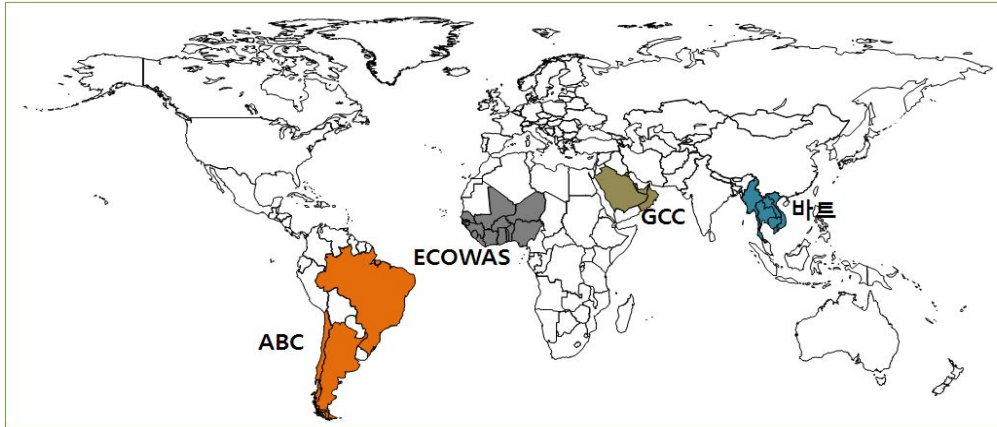
2) 고소득국은 세계은행 통계 분류상 high income 그룹, 저소득국은 low income 및 middle income을 합한 것임.

5) 신규·증액 투자에서 투자 회수·철수 부분을 차감한 것을 의미함.

3. 2013년 주목해야 할 신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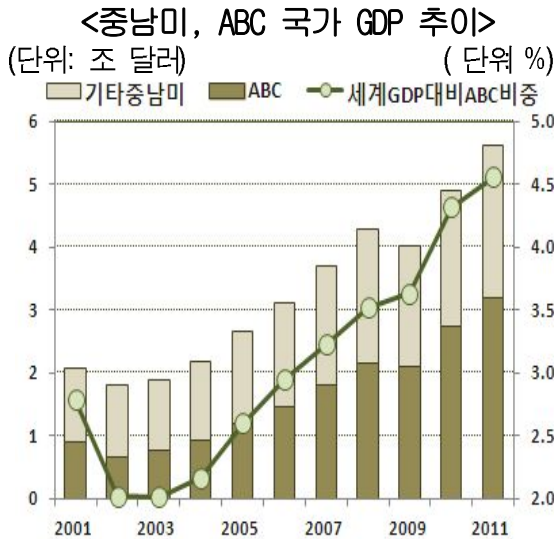
- 현대경제연구원은 ABC, 바트(Baht)경제권, GCC, ECOWAS의 네 개의 지역을 2013년 주목해야할 신시장으로 제시함

< 4대 신시장의 지리적 위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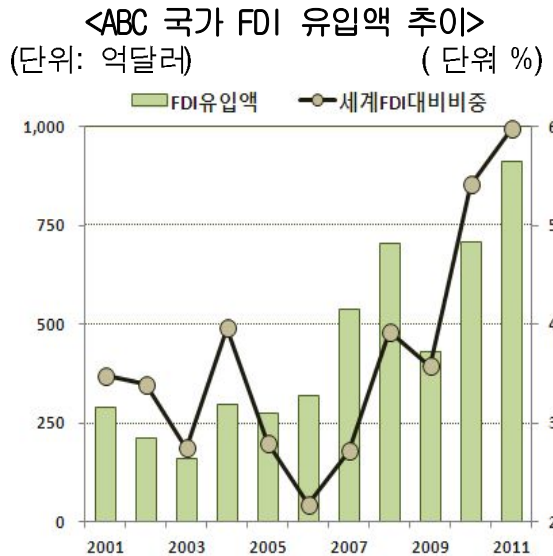


① 규모의 경제 - ABC⁶⁾

- 남미의 아르헨티나(Argentina), 브라질(Brazil), 칠레(Chile)를 일컫는 말로, 과거 디폴트로 인한 침체를 벗어나 대규모 경제권의 장점이 부각
 - 기타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낙관적인 경제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거대 소비 시장의 형성이 예상 (단, 최근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우려가 다시 확산중)
- ABC는 세계 GDP 대비 비중이 4.5%로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2017년 이후까지 4% 이상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 전망 (IMF)
 - 이밖에 ABC 국가들은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
-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으로 ABC 국가들의 고정자본 형성액은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연평균 21.2% 증가
 - 풍부한 천연자원 및 인적자원에 따른 제조 경쟁력과 내수 확대, 정부의 투자 유치 정책으로 FDI 유입액증가율은 2006년에서 2011년 연평균 23.5%에 달함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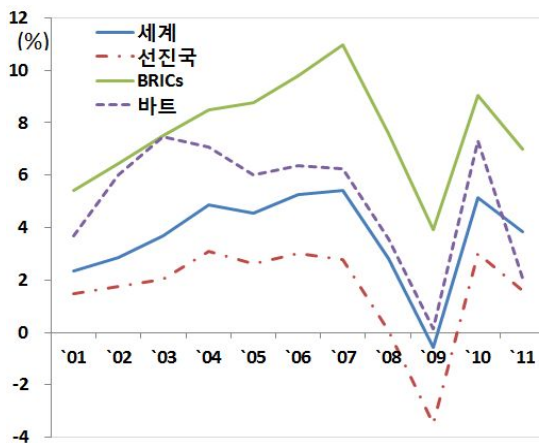
자료: UNCTAD.

6) 현대경제연구원 (2012d),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는 ABC(남미) 경제권", 현안과 과제, No. 12-52 참조.

② 속도의 경제 - Baht(바트)경제권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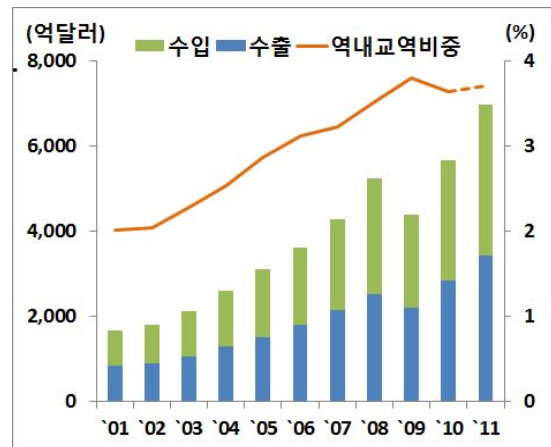
- 바트 경제권이란 태국의 화폐인 바트(Baht)화의 영향력에 따라 형성된 소규모 경제권을 일컫음
 - 일반적으로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반도에 위치한 국가들을 바트 경제권이라고 지칭함
 - 바트 경제권은 총 인구 2억 3천만명으로 한국의 약 4.7배, 총 면적은 약 19.4배에 이르는 규모
- 바트 경제권의 전세계 생산 비중은 현 1% 내외 수준에 불과하지만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바트 경제권 국가들은 금융위기에도 양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했으며 향후 6% 이상의 지속적 성장이 전망
 - 바트 경제권 지역의 무역 거래 활성화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출·수입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
 - 특히, 바트경제권 5개국의 2010년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약 196.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6.4% 상승하는 등 최근 외국인투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고성장의 중요한 생산요소인 자본축적이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

<바트 경제권 경제성장률>



자료: IMF.
주: 경제권 성장률은 역내 국가의 가중평균치.

<바트 경제권 교역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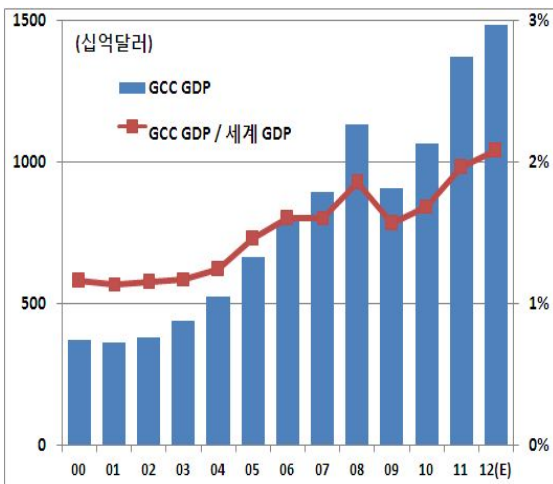
자료: IMF, UN Comtrade.
주: 2011년 역내 교역비중은 추정치.

7) 현대경제연구원 (2012c), "바트경제권의 부상과 대응", 현안과 과제, No. 12-50 참조.

③ 자원의 경제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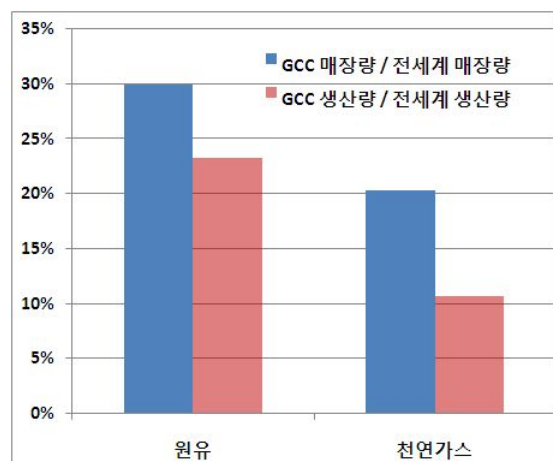
- GCC는 중동 걸프만 연안의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의 6개 산유국이 상호 협력을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 GCC 소속 국가들은 정치·종교·문화·언어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성을 지니는 석유자원이 풍부한 국가이며, 정치적으로 세습군주제를 유지하고 있고, 이슬람교를 믿으며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공통점 보유
- GCC의 명목 GDP는 2000~2012년까지 연평균 약 13%의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세계 경제규모의 약 2.1%를 차지(한국은 약 1.6% 비중)
 - GCC의 중요성은 원유 매장량 및 생산량 비중이 전세계의 각각 30%와 23%이며 전세계 천연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의 20%와 11% 차지
- 특히, GCC는 한국의 전체 해외건설 수주 중에서 GCC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내외를 기록하는 최대 수주 시장으로써의 중요성을 가짐
 - GCC로부터의 건설 수주액은 2005년 57억 달러에서 2011년 242억 달러로 연평균 23%씩 성장
 - 한국이 중동지역으로부터 수주하는 건설공사의 80% 이상이 GCC 국가들로부터 발생

<GCC 경제권 명목 GDP 규모>



자료: IMF
주: 2012년은 추정치.

<GCC의 원유, 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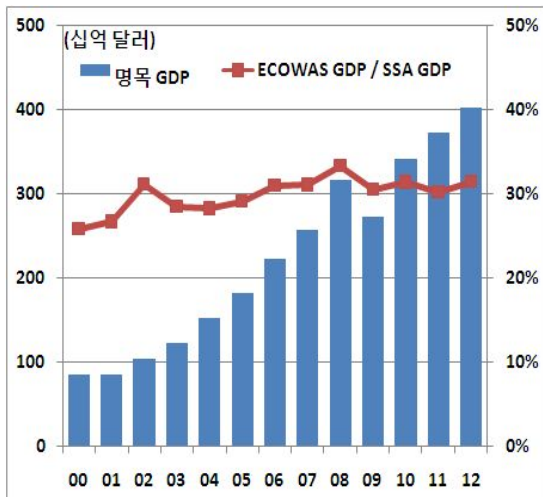


자료: BP(2011년 기준).

④ 가능성의 경제 -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서아프리카 경제협력체)

- ECOWAS는 서아프리카 국가들간의 비관세 제도 및 경제협력을 통해 역내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70년대 중반에 창설된 경제협력체
 - 회원국은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말리, 베냉,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에라리온,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토고의 15개국임
- ECOWAS의 GDP 규모는 2012년 기준(추정치)으로 약 4,030억 달러에 해당하며, 이는 SSA 전체(12,810억 달러)의 31% 수준
 - ECOWAS의 GDP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2%의 고성장을 기록 중이고, SSA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2000년)에서 31%(2012년) 증가
 - 나이지리아(68%), 가나(10%), 코트디부아르(6%) 등 3개 국가가 ECOWAS 경제 전체의 약 84%를 차지
- 한편 ECOWAS로의 순 FDI 투자 유입 규모는 2000년 19.2억 달러에서 2010년 113.1억 달러로 급증하는 추세

<ECOWAS 경제권 명목 GDP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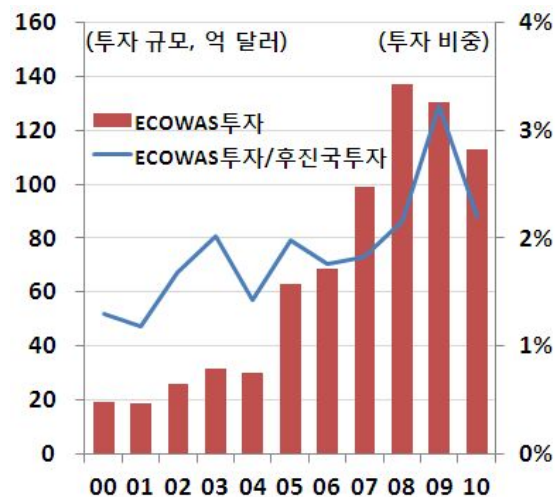


자료: IMF.

주: 1) 2012년은 추정치

2) SSA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미.

<ECOWAS의 순 FDI 규모>



자료: 세계은행.

4. 시사점

첫째, 신흥 경제권에 대한 접근은 정부 차원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외교·경제적 협력 관계를 동반해야 한다.

- 신흥 시장의 경우 대체로 한국 경제의 지난 개발·발전 경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인적 원조(직업훈련, 경제·산업 전문가 파견) 강화 등을 통해 우호적 협력 관계 구축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
-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정치·외교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경제 사절단 지속 파견, 국가간 협력강화 양해각서 체결 확대 등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
- 특히 공적원조(ODA)나 경제 발전 지원금 등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의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

둘째, 시장 진출 목적에 맞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진행이 요구된다.

- 기업은 해당 지역으로의 진출을 고려시 수출 시장, 투자 대상, 자원 확보 등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진출 계획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임
- 또한 해당 신흥 경제권에서 가장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된 거점 국가를 미리 선정하고 이를 발판으로 진출 대상국을 확대시키는 전략이 요구됨

셋째, 진출에 앞서 해당 지역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은 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함께 지역의 사회·문화적 관습이나 제도, 법률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
- 특히, 경제권과의 교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사회·문화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 육성이 시급

넷째, 신흥 시장 고유의 투자 환경 및 다양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 최근 아르헨티나의 상황에서 보듯이 국가 경제 전체의 디폴트 우려로 진출 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존
- 또한 신흥 시장은 대체적으로 사회 전반의 비합리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사업등록, 세제, 투자자 보호 등 기업 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참고 문헌>

- 현대경제연구원 (2012a), "잠재성장률의 위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대로 추락", *VIP REPORT*, No.12-03 (통권 제 474호).
- 현대경제연구원 (2012b), "양날의 칼(double-edged sword), 중국 경제", *현안과 과제*, No. 12-07.
- 현대경제연구원 (2012c), "바트경제권의 부상과 대응", *현안과 과제*, No. 12-50.
- 현대경제연구원 (2012d),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는 ABC(남미) 경제권", *현안과 과제*, No. 12-52.
- 현대경제연구원 (2012e), "포스트 차이나 시장이 무역 강국의 기반이다", *현안과 과제*, No. 1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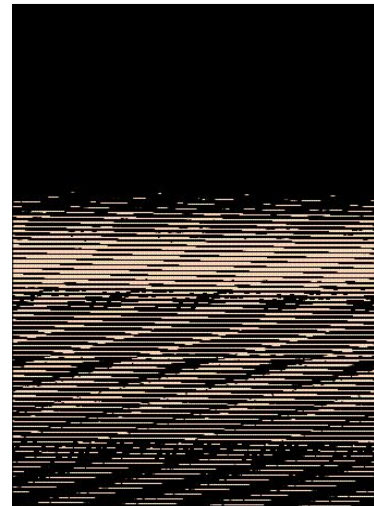
- Barro, Robert J. and Xavier Sala-i-Martin (1991). "Convergence across States and Region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no. 1, pp. 107~182.
- Barro, Robert J. and Xavier Sala-i-Martin (1992). "Converg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 April, pp. 223~251.
- Barro, Robert J. and Xavier Sala-i-Martin (2004). *Economic Growth*, 2nd ed., Cambridge MA, MIT Press.
- Baumol, W. (1986), "Productivity, Growth, Convergence and Welfare: What the Long-Run Data Show", *American Economic Review*, 76, 5, pp. 1872~1085.
- Jean Fourée, Agnès Béenassy-Quéérée and Lionel Fontagnée (2012), "The Great Shift: Macroeconomic projections for the world economy at the 2050 horizon," WORKING PAPERS No. 2012-03 February, CEPII(Centre d'Etudes Prospectives et d'Informations Internationales).
- Juzhong Zhuang, Paul Vandenberg and Yiping Huang (2012), *Growing beyond the Low-Cost Advantage: How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n Avoid the Middle-Income Trap*, ADB.
- Mankiw, N. G., D. Romer, and D. N. Weil (1992), "A Contribution to the Empirics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 No. 2: pp. 407~437. **HRI**

주 원 수석연구위원 (juwon@hri.co.kr, 2072-6235)

새로운수출시장, 남미ABC경제권⁸⁾

1. 중남미 경제권과 ABC

- 중남미 경제권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국가들을 통칭
 - 33개국으로 구성된 중남미는 면적 20,550천km²(세계 면적의 15%, 한반도의 93.5배), 6억명(세계 인구의 8.5%)이 거주
 -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 GDP 대비 8.0% 규모를 차지
 - 풍부한 천연자원과 원자재 수출로 글로벌 경제 침체에도 안정적 성장세
- 'ABC'는 중남미 경제의 중심이며 신흥 시장으로 부상 중인 '아르헨티나(Argentina)', '브라질(Brazil)', '칠레(Chile)'를 의미 (이하 ABC)
 - ABC는 중남미 인구의 41%, 면적의 58%, 경제(GDP)의 57% 비중을 차지
 - 인구의 70% 이상이 카톨릭 신자로 스페인어(아르헨티나, 칠레) 및 포르투갈어(브라질)를 사용, 1인당 GDP는 1만~1만 5천달러 수준
 -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제조업(광공업)을 중심으로 광물/농업 자원 수출이 활발



<ABC 국가 개요>

	아르헨티나 (Republic of Argentina)	브라질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칠레 (Republic of Chile)
면적	2,737천 km ²	8,515천 km ²	757천 km ²
인구	42백만명	190백만명	17백만명
종교	카톨릭 92%	카톨릭 71%	카톨릭 70%
언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화폐	페소(Peso)	레알(Real)	페소(Peso)
GDP (성장률)	4,736억US\$(8.9%)	23,540억US\$(2.7%)	2,701억US\$(5.9%)
1인당 GDP	11,470US\$	12,090US\$	15,520US\$
산업구조	서비스 59% 제조 31%	서비스 67% 광공업 34%	제조 54% 서비스 41%

주: 201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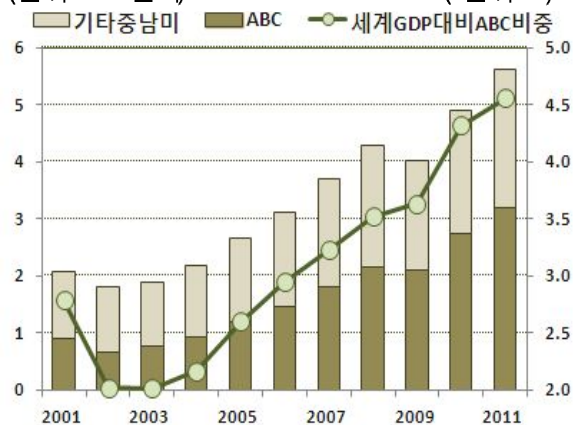
8) 현대경제연구원(2012),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는 ABC(남미) 경제권", 현안과 과제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재 게재.

2. ABC의 성장 잠재력

○ 경제 성장

- ABC 국가들은 보유 자원 및 정부 개혁 등을 바탕으로 성장을 지속하면서 신흥 유망 시장으로 부상 중
 - 2000년대 들어 급속한 경제 성장을 보이며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모습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를 보이고는 있으나, 풍부한 천연 자원 및 정부의 개혁 정책 등을 기반으로 빠른 경제 회복이 기대
 - 기타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낙관적인 경제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거대 소비 시장의 형성이 예상
- ABC는 세계 GDP 대비 비중이 4.5%로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 2000년대 초반까지 ABC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
 - 중남미에서의 경제 비중도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여 GDP 비중이 2005년 36%에서 2011년 63%에 달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2017년 이후까지 4% 이상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 전망 (IMF)

<중남미, ABC 국가 GDP 추이>
(단위: 조 달러) (단위: %)



자료: IMF.

<중남미, ABC 국가 성장 전망>
(단위: %)

	2009	2011	2013	2015	2017
중남미	-1.55	4.51	3.89	4.01	3.97
아르헨티나	0.85	8.87	3.06	3.98	4.04
브라질	-0.33	2.73	3.95	4.20	4.14
칠레	-0.89	5.92	4.45	4.60	4.60

자료: IMF.
주: GDP 성장률.

○ 산업 구조

- (아르헨티나) 물류·통신 등 서비스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
 - 물류 및 통신 서비스 산업은 연평균 11.2%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전 산업 대비 비중은 2005년 9.0%에서 2010년 11.3%까지 확대
 - 이에 비해 전통적인 수출 품목인 농림수산업의 경우 비중이 감소

- (브라질) 도소매, 숙박, 외식 산업의 성장세
 - 브라질의 도소매, 숙박 외식 산업이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의 18.4%에서 2010년에는 19.1%로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로 비중이 감소한 건설업은 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투자 정책 활성화로 성장이 지속될 전망

- (칠레) 광업·제조 비중이 높으며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
 - 칠레의 주요 수출 산업인 광산, 유틸리티 부문은 경제 비중이 17.0%로 가장 높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0.2%로 성장이 정체
 - 이에 물류·통신, 도소매·숙박 등 비해 서비스 산업은 빠른 성장 속도를 보 이면서 칠레 경제를 견인

<ABC 국가의 산업별 생산액 비중(GDP 대비) 및 성장 속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산업 비중	연평균 성장률	산업 비중	연평균 성장률	산업 비중	연평균 성장률
농림수산	8.2%	3.5%	5.6%	3.5%	4.0%	0.7%
광산, 유틸리티	6.6%	3.3%	6.3%	4.1%	17.1%	-0.2%
제조	22.9%	6.0%	16.4%	1.9%	13.9%	0.1%
건설	4.9%	6.3%	5.0%	4.3%	6.5%	2.7%
도소매, 숙박, 외식	15.2%	7.6%	19.5%	5.3%	10.9%	5.5%
물류, 통신	11.3%	11.2%	9.1%	4.4%	10.5%	6.5%
기타서비스	30.9%	5.8%	38.2%	4.3%	37.2%	3.9%

자료: UN.

주: 산업 비중은 2010년, 연평균 성장률은 2005~10년 실질 GDP 기준.

○ 자원 및 인구 구조

-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증대시키면서 성장하는 구조
 - 철광석, 구리와 같은 기초 광물은 물론, 리튬을 비롯한 희소 금속 자원 매장량 등이 풍부한 자원 부국
 - 곡물, 육류, 해산물 등 농수산 자원의 생산량 역시 풍부하여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
- 중산층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동시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젊은 국가로 소비시장이자 생산기지로서의 성장이 기대
 - 브라질의 경우 중산층 비중이 2012년의 54%에서 2018년에는 6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ABC 국가들의 중산층 증가는 소비 시장의 확대를 견인
 - ABC 국가들은 평균 연령이 29~32세인 젊은 국가들로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적 자원이 풍부하여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이 기대
 - 이밖에 내전 등 국내 갈등이나 국제 갈등이 거의 없어 정치 변수에 의한 경제적 위협이 적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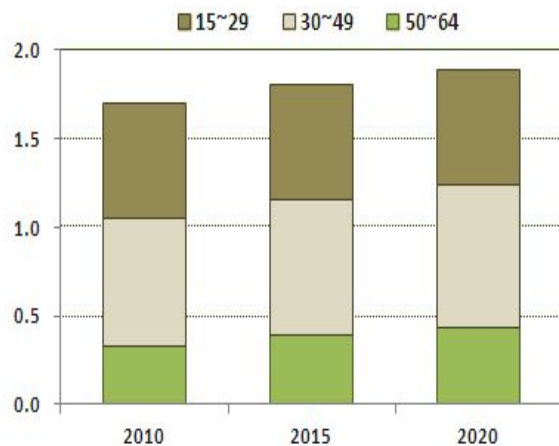
<주요 천연자원 세계 순위>

	광물자원	식량자원
아르헨티나	리튬 4위	말 6위 소 7위
브라질	철광석 2위 니켈 3위	돼지 3위 곡물 3위
칠레	리튬 1위 구리 1위	칠면조 2위 가자미 등 5위

자료: USGS, FAO.
주: 광물자원은 매장량, 식량은 생산량 기준.

<ABC 국가 생산가능인구 전망>

(단위: 억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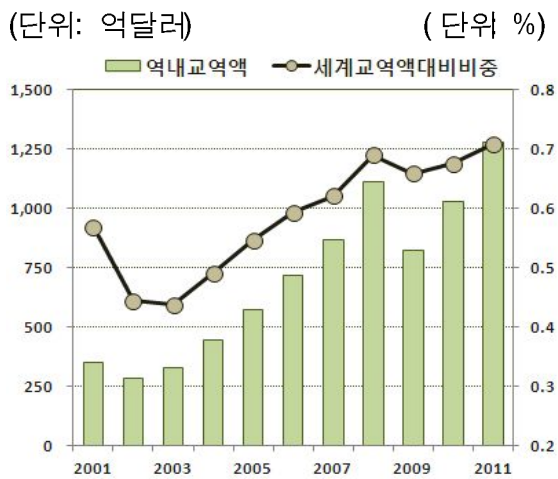


자료: United States Census Bure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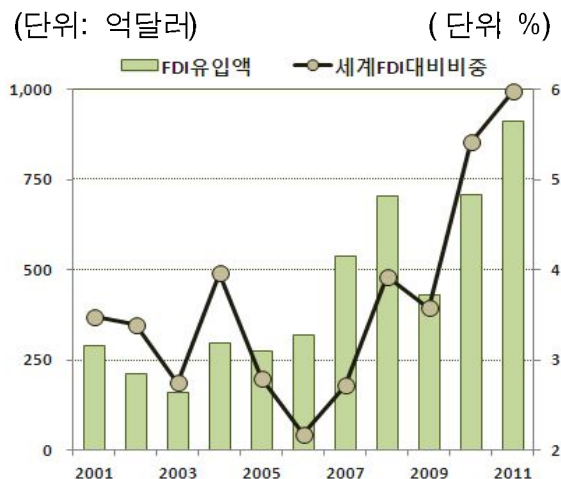
○ 투자 활성화 정책

- 남미 경제권의 통합과 ABC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등 국내외 정책적 변화는 향후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 그동안 남미 경제를 양분했던 남미공동시장(MERCOSUR) 및 안데스공동시장(CAN)의 국가들이 참여한 남미연합(UNASUR)이 2011년 공식 출범⁹⁾
 - 남미연합은 EU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함께 3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의 경제 협력 및 무역 장벽 철폐 등을 추진
 - 이밖에 ABC 국가들은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
- ABC 국가들의 투자 정책 및 성장 전망은 투자 규모 확대로 연결
 -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으로 ABC 국가들의 고정자본 형성액은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연평균 21.2% 증가
 - 풍부한 천연자원 및 인적자원에 따른 제조 경쟁력과 내수 확대, 정부의 투자 유치 정책으로 2006년에서 2011년 FDI 유입액 연평균 증가율은 23.5%

<남미연합 역내 교역 규모 추이>



<ABC 국가 FDI 유입액 추이>



자료: UNCTAD.

9)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안데스공동체(CAN) 등의 경제 협력체가 공존해 왔으나, 2011년 5월 남미 12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UNASUR가 출범을 공식 선언하며 경제 통합이 급진전

3. ABC 국가들의 주요 경제 현황

○ 아르헨티나

- **(경제 특징)** 2000년대 2차례 경제위기 극복 후 최근 3년간 경기 회복세
 -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출국 수요 급감 및 기상 악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
 - 정치적인 목적의 보호무역과 정부지출 확대 정책으로 물가는 10%에 달하는 높은 수준, 실업률은 하락 추세이며 2011년 7.2%
 - 곡물, 석유, 가스 및 수산자원 등 천연자원이 풍부, 산업선진국에 대한 1차산품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전력·도로·가스 등 인프라 확대 추진
 - 전통적으로 가족기업 중심의 중소기업이 발달

- **(투자 여건)** ABC 국가 중 상대적으로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
 - 정치·사회 : 영국과의 영유권 분쟁 및 스페인과 외교적인 마찰 가능성, 높은 교육수준 등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
 - 경제 정책 : 정부의 확장정책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가 감소하여 긴축정책으로의 전환 등 정책 방향성 예측의 불확실성 존재
 - 조세·금융 : 2중 과세 방지 협정, 금융거래세, 환율 변동성 확대
 - 기타 리스크 : 과중한 외채 부담과 낮은 대외신인도, 현지 법인 설립 장기간 소요,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인한 강성 노조, 부정부패 등

<아르헨티나의 주요 경제 지표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3f	2015f	2017f
경제성장률(%)	6.8	0.9	9.2	8.9	3.1	4.0	4.0
경상수지(십억달러)	6.0	7.5	2.5	-0.3	-0.4	-6.5	-10.7
물가상승률(%)	8.6	6.3	10.5	9.8	9.7	9.8	9.8
환율(피소, US1\$, 평균)	3.1	3.7	3.9	4.1	-	-	-
실업률(%)	7.9	8.7	7.8	7.2	7.2	6.7	6.6

자료: IMF, World Bank.

○ 브라질

- **(경제 특징)** 빠른 경제 성장과 국민 소득 증대로 기회의 국가로 부상 중
 - 경제 전망 기관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2027년 브라질을 세계 4대 경제 대국으로의 부상을 예견
 - 풍부한 자원 및 노동력을 바탕으로 미주 대륙 최대의 생산 기지로 변모하고 있으며, 소득 증대에 따른 내수 시장이 급성장
 - 2003년 45.1%였던 중산층 이상 계층은 2014년에는 71.0%까지 증가할 전망, 이러한 계층 구조 변화는 소비재, 서비스 상품 등의 소비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리우, 상파울루 등 동남부의 시장 성장이 기대

- **(투자 여건)** 국가시스템 확장 등 성장 정책과 자국 산업 보호주의가 상존
 - 정치·사회 :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주변국으로의 전이 가능성, 대외거래 및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의 변화 가능성 등 정책 리스크
 - 경제 정책 :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의 주요 사업으로 항만, 철도 등을 포함한 물류 인프라 투자를 진행, 자국 산업의 정책적 특혜 제공
 - 조세·금융 : 환율 및 물가의 동시 안정화 부담, 고정환율제로의 전환, 금융 거래세(토빈세, 현재 6%) 대폭 인상 등 해외자본 유출입 제한 리스크
 - 기타 리스크 : 근로자들의 낮은 보안 의식¹⁰⁾, 심한 빈부 격차(월 수입 100\$ 미만 빈곤층이 인구의 30%) 등

<브라질의 주요 경제 지표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3 ^f	2015 ^f	2017 ^f
경제성장률(%)	5.2	-0.3	7.5	2.7	4.0	4.2	4.1
경상수지(십억달러)	-28.2	-24.3	-47.3	-52.5	-70.1	-95.4	-108.1
물가상승률(%)	5.7	4.9	5.0	6.6	4.9	4.5	4.5
환율(레알, US1\$, 평균)	1.8	2.0	1.8	1.7	-	-	-
실업률(%)	7.9	8.1	6.7	6.0	6.5	7.0	7.0

자료: IMF, World Bank.

10) Cisco Systems.

○ 칠레

- (경제 특징)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 2004년 한국을 포함, 총 50개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개방경제
 - 글로벌 경기둔화로 원자재 가격 및 수출이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지진 피해 복구사업 등으로 2011년 5.9%의 경제성장 기록 (2012년 상반기 6.2%)
 - 풍부한 자원 보유국으로 구리 등 국제원자재 수요 변동이 경기 및 환율 변동으로 이어지는 대외 변수에 민감한 경제구조
 - 실업 및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3% 수준의 물가안정 및 실업률 감소를 위한 기준금리 조정 및 수출·투자 활성화 정책을 추진
 - 자유무역국가로 극심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 시장¹¹⁾의 특징

- (투자 여건) ABC 국가 중 전반적인 투자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
 - 정치·사회 : 인적자원의 교육 수준 및 생산성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뇌물 관행이 약하고 정책적으로 원칙을 준수하는 편
 - 경제 정책 : 외국인에 대해 특정 지역 투자시 인센티브 부여, 투자 허가 취득이나 회사 설립 등에서 자국 특성의 제도 운영(현지 변호사 활용 필요)
 - 조세·금융 : 중앙은행의 독립성 등 금융시스템 안정,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조세제도가 정착
 - 기타 리스크 : 내수시장 협소, 시장 개방 및 관세 인하로 국내 생산품 및 수입 제품간 경쟁 치열, 노동의 양과 질이 지역간 편차가 심함

<칠레의 주요 경제 지표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3 ^f	2015 ^f	2017 ^f
경제성장률(%)	3.1	-0.9	6.1	5.9	4.4	4.6	4.6
경상수지(십억달러)	-5.8	3.5	3.3	-3.2	-8.8	-9.0	-10.2
물가상승률(%)	8.7	1.5	1.4	3.3	3.0	3.0	3.0
환율(폐소, US1\$, 평균)	3.1	3.7	3.9	4.1	-	-	-
실업률(%)	7.8	10.8	8.2	7.1	6.9	6.9	6.9

자료: IMF, World Bank.

11) 600만 산티아고 거주 구매력 70~80% 차지.

4. 한국과의 경제 교류

○ 외교 관계

- 한국과 ABC 국가들은 1950년대 말 수교 이후 협력 관계 유지
 - 1959년 브라질, 1962년 아르헨티나, 칠레와 수교를 맺었으며, 각 국가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
 - 칠레는 1949년 중남미 국가 최초로 한국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였으며, 1960년대 중후반 ABC 국가들의 상주 대사관이 서울에 설치되어 운영 중
- 한국 교민의 ABC 국가 이주 역사는 100년에 이르며, 특히 최근 한국과 ABC 간의 인적 교류 확대로 ABC 국가의 한국 입국자 수 역시 급증
 - ABC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은 7만여 명으로 주로 의류 및 봉제, 도소매업의 종사 비중이 높음
 - ABC 국가의 한국 입국자 수가 2006년 1만 명에서 2011년 2만 명으로 두 배 증가하는 등 최근 양국 간의 인적 교류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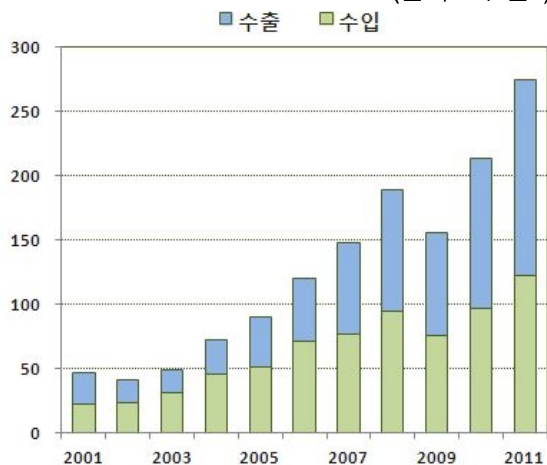
○ 경제 교류

- ABC 국가들의 빠른 경제 성장, 한·칠레 FTA 체결 등으로 한국과 ABC 국가들 간의 교역 규모가 빠르게 확대¹²⁾
 - 한국과 ABC 국가 간의 교역액은 2001년 47억 달러, 2011년에는 275억 달러로 연평균 19.4% 증가
 - 동기간 브라질과의 교역액은 연평균 20.8% 증가했으며, 칠레와의 2011년 교역 규모는 FTA 체결 직전인 2003년 대비 4.6배로 증가

12) 아르헨티나: 2011년 기준 한국 수출 대상국 중 55위, 수입 대상국 중 42위로 흑자 교역국이었으나 2012년 들어 아르헨티나 정부의 강력한 수입 규제 정책으로 적자 교역국으로 전환
 브라질: 수출 11위, 수입 19위의 흑자 교역국, 칠레: 수출 33위, 수입 26위의 적자 교역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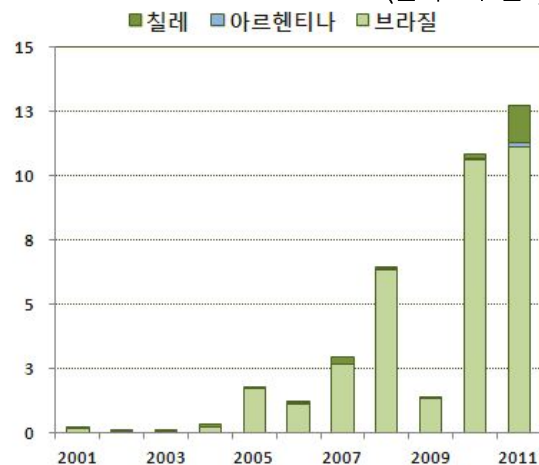
- 한국의 ABC 국가에 대한 수출은 운송장비, 석유화학, IT 제품 위주로 이루어지며, 수입의 대부분은 원자재로 구성
 - 2011년 한국의 對 ABC 국가 3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 선박, 석유 제품으로 이들 제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8%
 - 동기간 한국의 3대 수입 제품은 철광석, 구리, 구리 제품으로 전체 수입액 가운데 이들 제품이 60.0%를 차지
- 한국의 직접투자 규모 역시 브라질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
 - 2001년에서 2011년 사이 한국의 對 ABC 국가 FDI는 연평균 48.7%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11년 기준 對 브라질 FDI가 87.4%로 대부분을 차지하나 2011년 對 아르헨티나 FDI가 2001년 대비 2.8배, 對 칠레 FDI는 2003년 대비 26.4배 증가하는 등 ABC 국가에 대한 투자가 증대
- 2000년대 중반까지 IT 및 도소매업 중심의 투자에서 광업, 금속 제조, 운송 장비 제조 등으로 다양화
 - 2001년에서 2005년 누적 기준 한국의 對 ABC 국가 전체 FDI 중 IT 및 도소매업이 60.4%를 차지
 - 2000년대 중반 이후 광업 투자 급증, 금속 및 운송장비 제조업 투자 증대로 이들 산업 비중은 2001년~05년 21.7%에서 2006년~11년 74.7%로 급격히 확대

<한국의 對ABC 국가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對ABC 국가 직접투자>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5. 시사점

첫째, 소비시장 및 생산기지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공략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장 접근 노력이 요구된다.

- **(내수시장)**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비재 수요가 급격히 확대
 -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교통 및 소비시장, 자원 및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 스포츠 이벤트 개최 효과 등 성장잠재력 내재
 - IT 산업 등의 발달로 온라인 쇼핑시장이 급성장, 대형 쇼핑몰과 PB 시장 확대로 소비심리가 개선 중
 - 아르헨티나는 빈곤층 증가로 저가 상품 선호가 높은 반면, 브라질과 칠레는 품질과 기술을 중시하는 고급화 등 소비 경향 차별화가 뚜렷
- **(생산기지)** 수입 규제 강화 정책 경향으로 현지 생산기지화 투자 확대
 - ABC 국가들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함께 자국산업 보호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입 규제 강화 정책을 병행
 - 수요 파급 효과가 크며 진출 기회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SOC 시설 사업 등 정부 정책 투자 시장 선점 노력이 필요
 - FTA 등으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제조업의 경우 현지 조립 생산으로 수입 규제를 회피

둘째, 특히 사회 기반 시설 및 시스템 구축 수요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여 인프라 수요건설, 원자재, 금융 등의 신사업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 **인프라** : 정부 주도로 에너지 인프라 확장에 적극적인 가운데 특히 민간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배전 시장은 시장 진출의 기회
- **물류** : 육운 및 내륙 수운 항만의 민간 투자 등 사업 참여의 기회가 확대
- **자원** : ABC 국가들은 광물 자원 외에도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국이며, 특히 정부는 민간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상황
- **금융 등** : 경제 성장 및 소득 증대에 따라 금융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교육 등 기타 서비스 산업들의 수요 증대 역시 기대

셋째, 국수주의, 정치적 불안정 등 개도국 특유의 투자 환경 및 다양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력을 배양해야 한다.

- 진출 형태 : 자국 산업 보호 정책으로 현지 법인 설립이나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유리, 법인 설립시에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외국 기업들의 경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설립을 선호
- 외국인 투자 제도 : 중앙 및 지역 정부들은 민간 기업의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므로 투자시 내외국인에게 동일한 특혜를 부여하는 경향
- 안정성 확보 : 자산 동결 등에 의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투자 안정성 보장 확보 필요
- 현지화 : 현지 인력 고용 등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 확대, 지역경제에 봉사활동을 확대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친밀감을 강화
- 기타 리스크 : 정치·사회·조세·금융·인적자원 등에서 각 국 특유의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회피 노력

넷째, 정부의 간접적인 정치·외교적 정책적 지원 기업들의 현지 기업과의 협력 강화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 정부는 정치·외교적 관계의 지속적이고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경제 사절단 지속 파견, 국가간 협력강화 양해각서 체결 확대
- 특히 공적원조(ODA)나 경제 발전 지원금 등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 민관 합동 프로젝트 및 시장 개척단 확대
- 기업은 FTA 등을 감안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현지 기업과의 사전 협력 강화, 틈새시장 공략을 본격 현지 진출 교두보로 활용 **HRI**

백홍기 수석연구위원 (hkback@hri.co.kr, 02-2072-6228)

김필수 선임연구위원 (pskim@hri.co.kr, 02-2072-6238)

【별첨】 ABC 국가별 경제 현황 및 진출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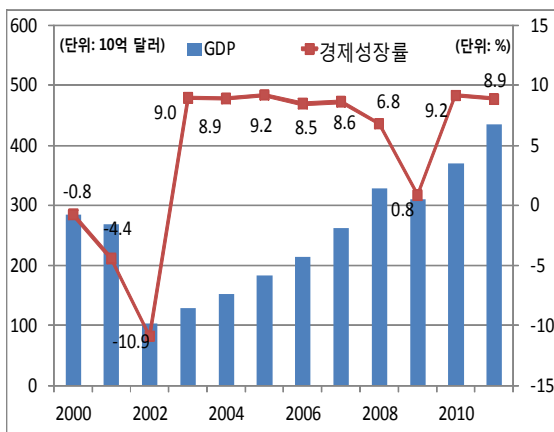
1. 아르헨티나

1) 경제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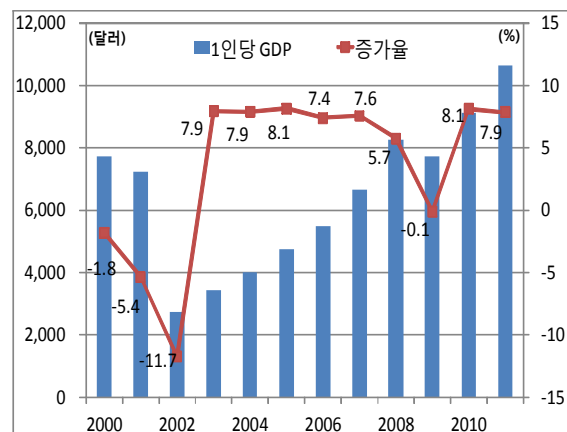
○ 경제 성장

- 2010년 이후 경기 침체기에서 벗어나면서 2011년 9.2% 경제성장률 기록
 - 2003년 이후 8%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둔화
 - 2009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주요 수출국의 수요 급감으로 수출 감소, 기후 여건 악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 감소 등으로 산업생산 활동 위축, 그리고 정치적 불안 등으로 투자의 급락으로 0.8%의 경제성장률에 그침
- 최근 수출경기 둔화 등으로 2012년 성장률은 4%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¹³⁾
 - 지난 30개월 만에 처음으로 2012년 4월 아르헨티나의 수출은 전월 대비 6% 감소, 산업생산은 2012년 1월~4월 전년 동기대비 0.2% 둔화

<GDP>



<1인당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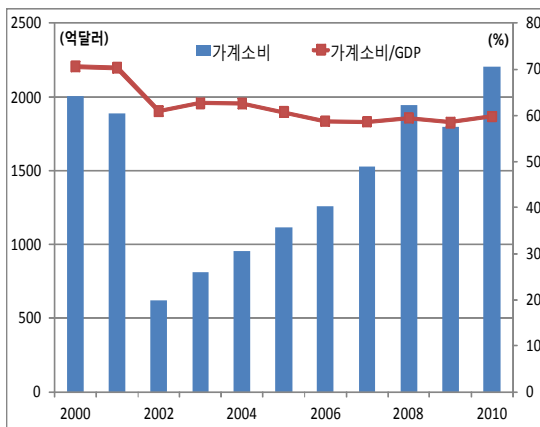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2. 04.

13)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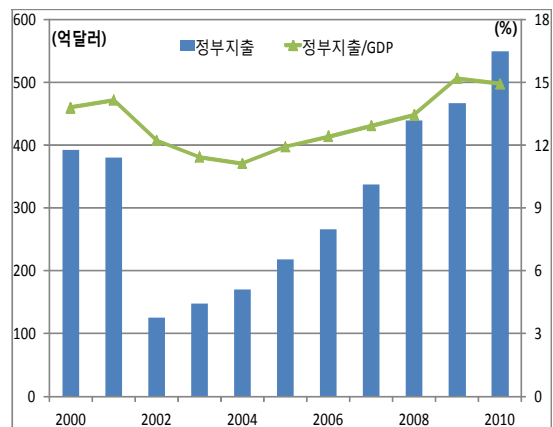
○ 소비 지출

- 아르헨티나의 GDP 구성은 가계소비 60%, 정부지출 15%, 투자지출 25%
- GDP 대비 가계 소비지출 비중은 60% 수준
 - 가계 소비지출의 GDP 비중은 2001년 70% 수준에서 2002년에는 60% 수준으로 급감하여 2002년 가계 소비는 6,210억달러
 - 2011년에도 GDP 대비 가계 소비지출 비중은 약 60%를 기록하고 있음
-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은 10%~15% 수준에서 등락하며, 최근 15% 수준
 -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은 2001년 14%에서 2002년 11%로 3%p 감소,
 - 2007년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 및 인프라 확충 등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약 15% 수준을 기록
 - 페론주의 경제전략인 정부지출 확대의 영향으로 정부지출 규모가 연간 10%를 초과
- 공공부문의 투자확대의 영향으로 GDP 대비 투자부문의 비중은 2002년 총투자/GDP 비중은 10%에서 2011년에는 약 25% 수준으로 증가¹⁴⁾

<가계 소비 지출>



<정부 지출>



자료: IMF, 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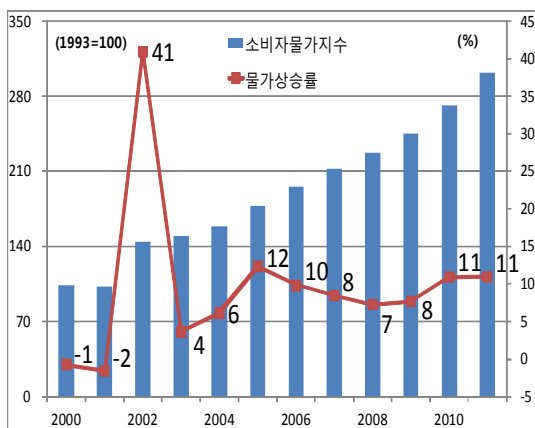
14) 5페이지에서 저축, 투자 및 총고정자산형성 관련 데이터 등을 논의하고 있음.

○ 성장 저해 요인 : 인플레이션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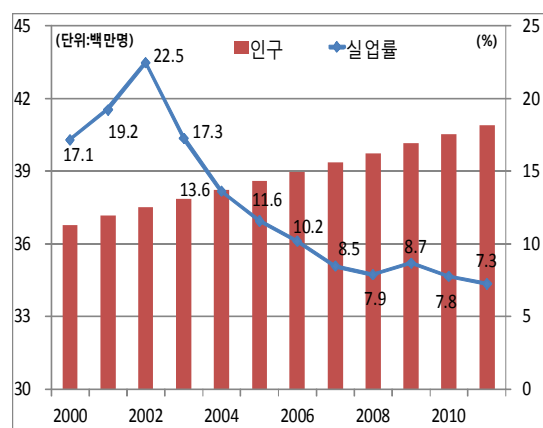
- 정치적인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보호무역과 정부지출 확대 정책으로 물가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안정된 물가 수준 유지를 포기하고, 정치적인 안정을 선택하여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보호무역과 정부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결과는 10%에 육박하는 인플레이션
 - 보호무역 철폐 및 수출입 자유화 등 시장 지향적인 경제정책은 물가 및 외환 시장 등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나, 정치적인 지지를 획득하기 어려움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하여 아르헨티나 정부는 생필품에 대한 가격 및 수출을 통제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개입

-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친노조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2002년 22.5%에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1년 7.3%의 높은 수준
 - 2002년에는 22.5%의 실업률을 기록하였으나, 경기가 안정되면서 실업률 하락
 - 아르헨티나는 국민의 평균교육 연수가 높고 문맹률은 2.2%의 선진국 수준으로 인적개발지수는 세계 46위로 칠레 45위에 이어 중남미에서 높은 수준
 -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노조 경향이 있어 투자매력도를 감소¹⁵⁾

<인플레이션>



<실업률>



자료: IMF, 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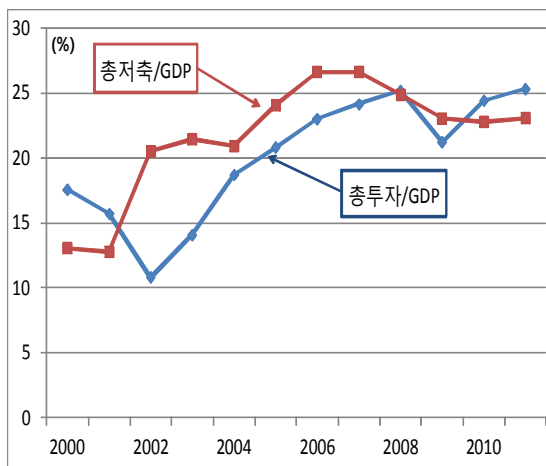
15) 노조활동이 활발하고 노동법과 노동권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에 속함.

○ 성장 기반 조성 : 저축 및 고정자본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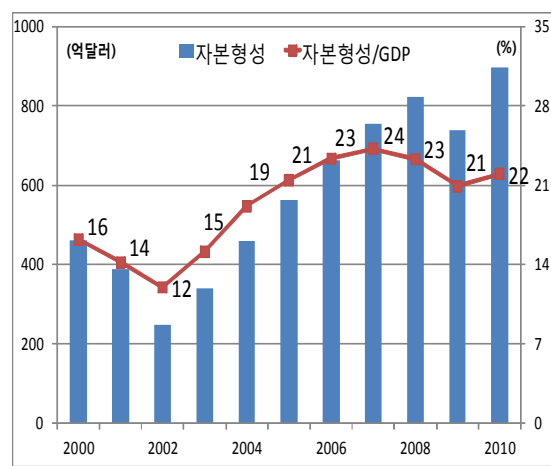
- 아르헨티나는 높은 저축률을 바탕으로 경제성장 기반인 고정자본 확보가 필요
 하나, 최근 GDP 대비 고정자본 형성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2009년까지 총저축이 총투자를 초과하였으나, 2010년 이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총저축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총고정자본 형성의 비중도 감소하고 있음
 - GDP 대비 총투자 및 총고정자본 형성 비중은 25% 수준을 초과하지 못함
 - 따라서 성장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

-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1차산품에 의존하는 경제 여건 등으로 제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자본형성이 부족
 - 세계 3대 곡창 지대인 팜파스 대평원, 석유 및 수산자원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
 - 아르헨티나의 교역조건이 2002년 98.7에서 2008년에는 113.2로 향상하면서 1차산품 수출 총액은 동기간 2.27배 증가¹⁶⁾
 - 아르헨티나는 산업선진국에 대한 1차산품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제조업 등의 자본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GDP 대비 저축 및 투자>



<총 고정자본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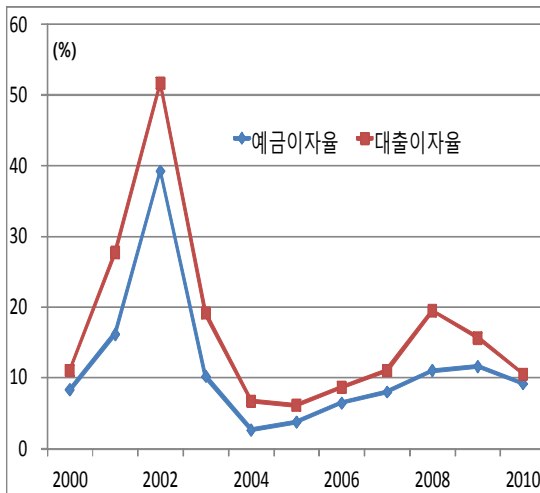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Bank.

16) 자료: CEPAL 2010. 김기현, '라틴아메리카 경제 불은 어디서 왔는가?', 2011 라틴아메리카 연보, pp.115-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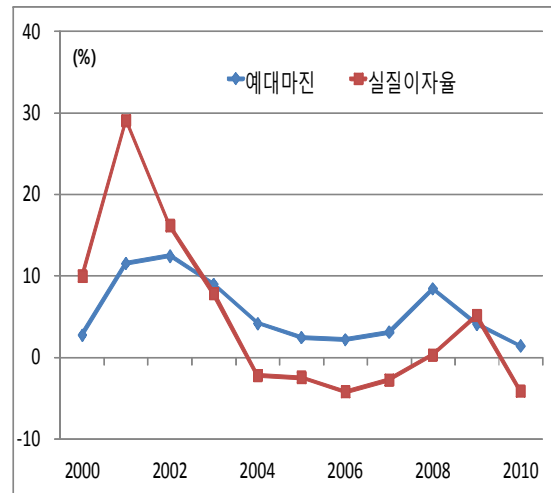
○ 금융시장 : 예대 금리 및 실질금리

- 금융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예대 마진 및 실질이자율은 낮은 수준 유지
 - 2001년 디폴트 선언으로 높은 이자율을 거치면서 2004년 이후 10% 이내의 이자율을 지속하지 못하고 2008년에는 20% 수준의 대출이자율을 기록
 - 예대 마진은 2001년 및 2008년 금융위기에 대출이자율 인상으로 상승하였으나 오래 지속되지 않고, 금융위기 안정에 따라 예대 마진은 감소하였음
 - 2004년 예금 이자율의 하락 그리고 2005년 12%의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마이너스 실질 이자율을 기록
- 아르헨티나는 2001년 국가부도의 영향으로 국가의 신뢰도가 훼손된 상태에서 민간연금의 국유화 계획, 중앙은행에 대한 정치적 압력 등으로 CDS 프리미엄이 상승¹⁷⁾

<예금 및 대출 금리>



<실질금리 및 예대마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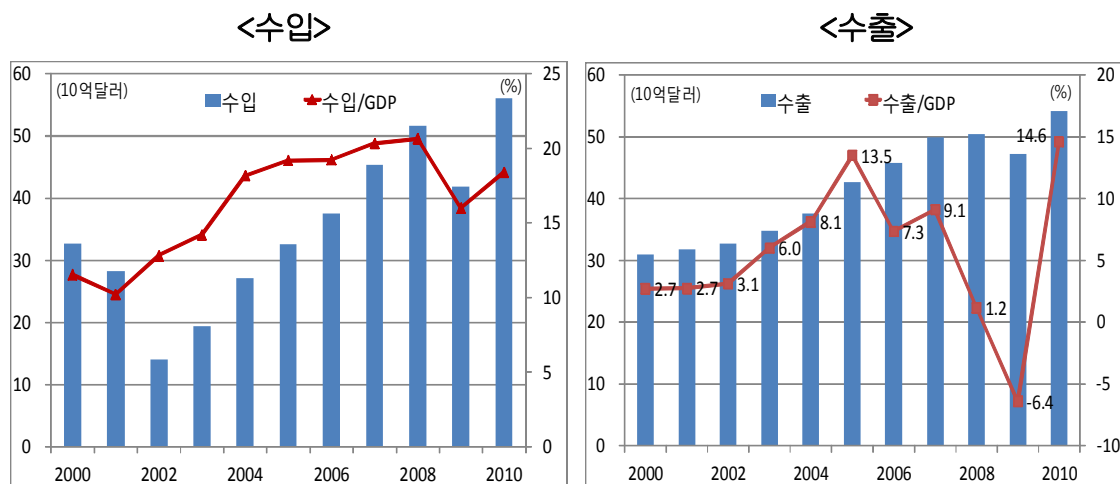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Bank.

17)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2010.04)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CDS 프리미엄은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7년 459, 2008년 4,570, 2009년 918 2010.4월 890을 기록하면서 2007년의 약 2배 수준 증가.

○ 대외거래

-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증가하면서 대외경제 의존도 상승 추세를 보임
 - GDP 대비 수입 비중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회복되어 GDP 대비 수입 비중이 20%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
 -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00년 이후부터 2006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07년 이후 증가세가 감소하면서 2009년에는 -6.4%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14.6%로 급격히 회복

- 대외거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원자재 수출 및 특정국 수출에 의존도 높은 경제구조를 보임
 - 아르헨티나의 수출은 2000년 310억달러에서 2010년에는 540억달러, 수입은 2000년 330억달러에서 2010년에는 560억달러로 교역규모의 증가 지속
 - 제조업 분야의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의 낮은 국제경쟁력을 나타내고 있음
 - 원자재 및 음식 수출이 전체 수출의 50% 비중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¹⁸⁾
 - 또한 중국, 미국 등 특정국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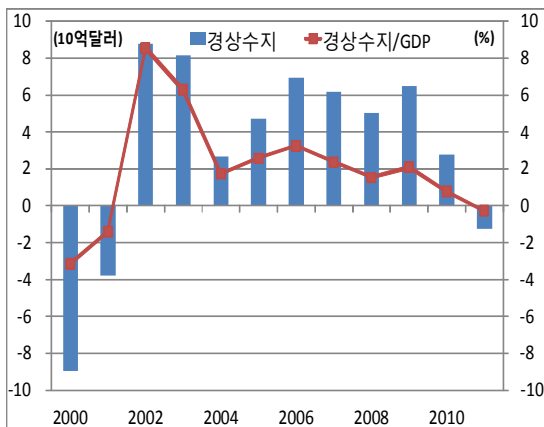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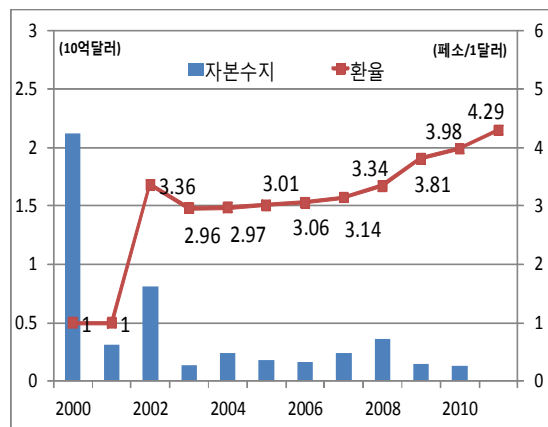
18) World Bank에 의하면 2010년 음식 가공품은 전체 상품 수출의 51%를 차지하였으며, 석유 등의 수출 비중은 2010년 17%에서 2010년에는 8.1%로 감소하였음.

- 2001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단기외채에 의한 대외경제 불안 요소는 해소¹⁹⁾
 -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02년 140.8%에서 2008년에는 43.1%로 감소,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하였던 아르헨티나 경제위기는 안정된 수준을 유지
 -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의 비중은 2002년 10.2%에서 2010년에는 27.4%를 기록
 - 2001년 말 아르헨티나 정부의 디폴트 선언으로 지급이 중지된 채권의 일부를 탕감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채권자들은 만기연장 및 금리 인하에 동의함
- 2002년 환율체계 개혁 이후 아르헨티나 폐소화의 평가 절하의 영향으로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한 이후, 그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01년 12월 국가부도의 영향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2년 1월 '환율체계의 개혁 및 국가비상사태 법안'을 발표, 폐소화 가치는 평가절하 되어, 2002년 연말에는 달러당 폐소화 환율이 3.36 기록
 - 아르헨티나 폐소화가 평가절하의 영향으로 2002년 경상수지는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흑자폭이 매년 감소하여 2010년에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

<경상수지>



<자본수지²⁰⁾ 및 환율>



자료: IMF, World Bank
 주: 환율은 연말 종가기준임.

19) <단기외채 비중(%)>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단기외채/외환보유고	112.6	140.8	134.6	88.4	43.1	67.1
단기외채/총외채	20.1	10.2	16.3	24.4	16.8	27.4

자료: World Bank.

20)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국제금융시장 저금이 제한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

2) 아르헨티나 진출 현황으로 본 사업 기회

- 국내 기업들의 진출 현황은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관련 투자 비중이 높음
 - 한국의 아르헨티나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말 기준 신규법인 투자 50건, 총 투자금액 1억 6,380만 달러 규모
 - 투자 자금 규모 기준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관련 투자로 전체 투자의 34%인 5,500만 달러에 달함
 - 석유·가스 등 자원 개발 분야에 진출한 주요 기업으로는 (주)대우인터내셔널, 페트로페라(주), (주)골든오일 등이 있음²¹⁾
 - 선박 관련 기업으로는 (사)한국선급, (주)동남이 서비스 및 제조업으로 진출
 - 의료기기 도소매 판매법인으로 진출한 업체는 누가의료기(주) 및 (주)세라젬

<아르헨티나 진출 국내기업 현황>

기업명	주요 사업 분야
(사)한국선급	등록선박검사, 정부 업무연락, 해외선사 신규등록유치
(주)대우일렉트로닉스	WM, REF, NOW, A/C & Etc(본사 영업 활동 지원)
(주)사조산업	오징어 채낚이 사업
(주)삼성전자	TV, 냉장고, 세탁기, 핸드폰
(주)가나마린	오징어 조업 및 수출
(주)골든오일	석유, 가스 개발 및 광업 자원 개발
(주)누가의료기	온열치료기, 마사지 기구
(주)대우인터내셔널	자원 개발, 무역(수출입, 삼국간 교역, 복합거래), M&A
(주)동남	선박 운항 및 판매
(주)세라젬	온열치료기, 마사지 기구
(주)아리온테크놀로지	디지털방송수신기(STB), 이동방송수신기(DMB) 판매/공급
(주)광조명	절전형 전구(EL 램프)
(주)페트로페라	석유 및 천연가스
(주)한성기업	오징어 조업, 가공 및 판매
LG전자	IT·전자기기제품

자료: KOTRA.

21) 페트로페라(주)는 아르헨티나 라브레아 석유생산광구의 지분과 운영권을 바탕으로 아르헨티나 북서 분지에서 석유부존이 확인되어 있는 광구의 확보를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

3) 아르헨티나 경제의 3대 리스크 요인

① 포클랜드 영유권 분쟁에 따른 전쟁 재발 가능성

- 포클랜드 전쟁 발발 30주년으로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영유권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효지배하고 있는 영국은 거부
- 최근 영국의 석유회사 보더스&서던 페트롤리엄이 포클랜드 섬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가스층을 발견, 2011년 9월에도 포클랜드 인근 해역에서 영국 석유회사 록호퍼는 석유 유전을 발견
- 포클랜드 주변의 지하자원 가치 및 주변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 포클랜드 분쟁이 전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② 스페인과의 외교 마찰 및 국제사회에서 고립

- 아르헨티나는 원유 가스회사인 YPF의 국유화를 선언,
- 스페인의 렘솔은 YPF 지분의 57%를 보유, 스페인과 외교적 마찰 심화
- 스페인은 WTO에 YPF 국유화 문제를 제소하고 EU에 지지를 촉구, EU-남미 공동시장의 FTA협상에서 아르헨티나를 제외할 것을 주장
- 영국과의 포클랜드 영유권 분쟁, 스페인과의 석유회사 국유화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교적 갈등이 국제사회의 고립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③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및 심각한 경기위축 가능성

- 아르헨티나 정부는 가격통제, 1차산품 수출금지 정책 등 인위적 시장개입을 지속
- 현 정부의 확장정책에도 2011년 기업의 설비투자가 감소하여 아르헨티나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대, 경제정책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음
- 기존의 확장정책이 긴축정책으로 전환될 경우, 금리인상에 따른 내수 위축 및 통화가치 절상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 심각한 경기 위축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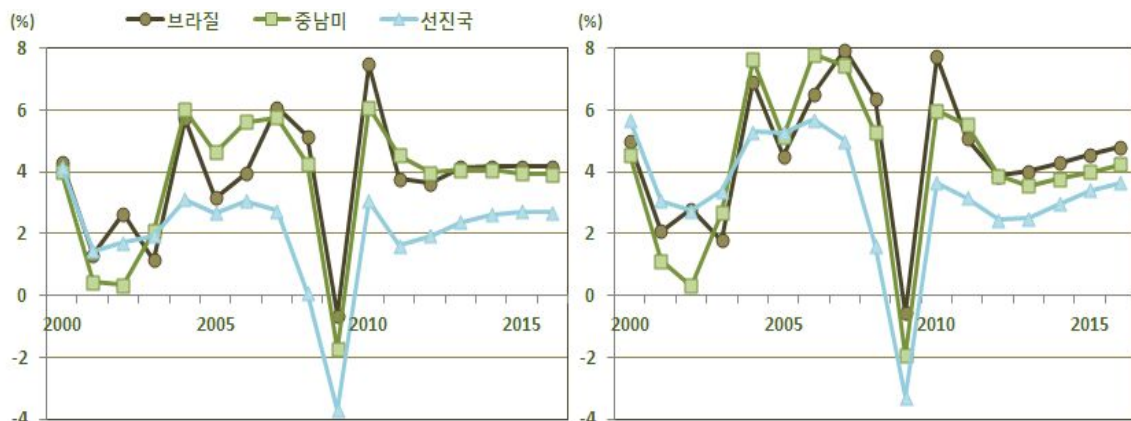
2. 브라질

1) 브라질의 성장과 기회

- **(남미의 경제 대국)** 브라질은 빠른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2027년에는 세계 4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전망(2010년 기준 7위)²²⁾
 - **경제 규모의 증대:** 브라질의 경제성장 속도는 선진국은 물론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주변 중남미 지역 개발도상국들의 성장 속도를 능가할 전망
 - **1인당 GDP 증가:** 또한 1인당 GDP의 증가, 소득 증대 등에 따라 국내 소비량 역시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새로운 기회의 대륙)** 생산 기지 및 시장으로서 새로운 기회가 부상
 - **거대 생산 기지 형성:** 브라질은 기존의 자원은 물론 풍부한 노동력 등의 매력을 바탕으로 각 기업들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증대
 - **수익 구조 다변화 기회:** 브라질 국내 시장 역시 빠르게 증대되고 있어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한 활로로도 부상 중

<브라질, 중남미, 선진국의 경제성장 추이 및 전망 비교>
(경제성장률) (1인당 GDP 증가율)



자료: IMF.

주: 1)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 증가율, 1인당 GDP 증가율은 구매력 기준 명목 증가율
2) 선진국에는 G7 및 한국, 홍콩, 기타 유럽 국가 등을 포함한 30개국으로 구성.

22)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 브라질 경제의 특징

(1) 브라질 경제를 주도하는 상품

○ 생산 및 수입 증가 상품군

- (제조업의 회복) 2009년의 경기 침체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 내구 소비재 및 중간재: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브라질 제조업은 내구 소비재 및 중간재(원자재의 1차 제조)를 중심으로 성장
 - 미주 최대의 공장지로 변모 중: 또한 풍부한 자원 및 자체 시장의 증대, 항만 투자의 확대가 예상되어 주요 생산 기지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
- (소비재 수요의 확대) 한편 소비재 제품의 경우 국내 생산량 및 수입량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내수의 증대를 반영
 - 소비재 수입 증가: 전체 수입에서 소비재 비중은 2011년 3분기 말 누적 기준 17.4%로 5년 전인 2006년보다 4.3%p, 10년 전인 2001년보다 4.6%p 증가
 - 소비재 내수 확대의 반영: 이는 브라질의 소비재 생산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유추 가능

<브라질 제품 성질별 제조업 생산지수> <브라질 제품 성질별 제품 수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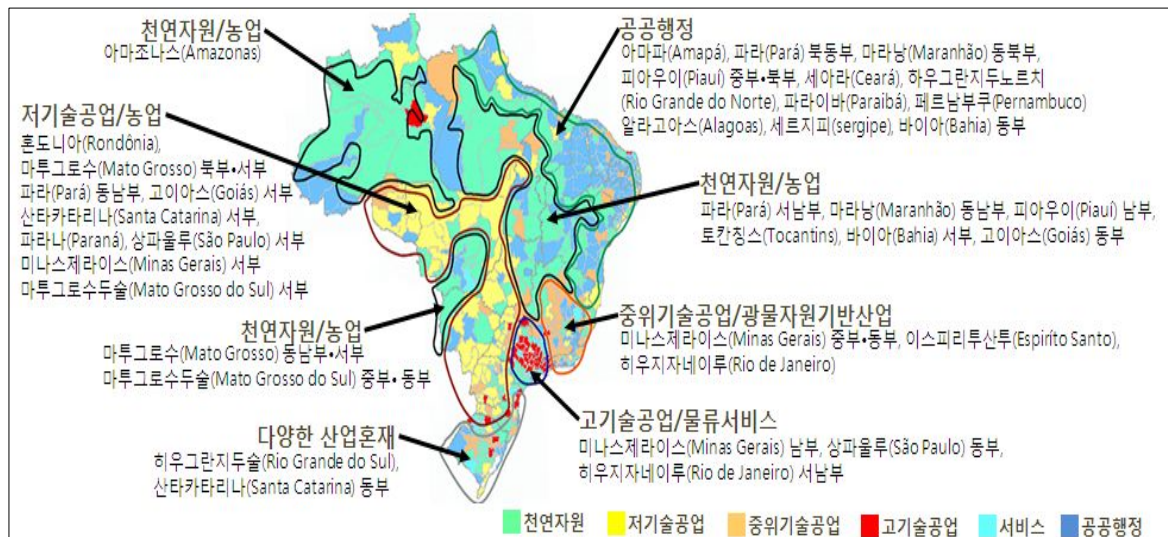


자료: 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ística, Ministry of Development, Industry and Foreign Trade.

○ 지역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

- (다양한 산업군 발달) 브라질은 국토가 넓고 자원이 많다는 특징, 생산 시설 및 항만의 산재 등과 같은 원인으로 지역별로 주도 산업의 편차가 큰 상황
 - 원자재 산업 중심 지역: 서부 지역 및 중부,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북서부 지역은 천연자원 및 농업이 지역 경제를 견인
 - 공업 및 서비스 중심 지역: 이에 비해 동남부 지역은 전통적으로 생산 시설이 위치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공업이 발달
 - 물류 및 서비스 발달: 동남부 지역의 경우 기존 항만이 존재함은 물론 최근 각종 상품 교역의 증대에 따라 물류를 비롯한 서비스업이 빠르게 성장
- (지역 간 경제적 차이의 영향) 경제가 발전할수록 지역 간 자원 및 제품 운송량이 증가하는 한편, 북부 지역은 경제 부흥을 위한 정부 노력 예상
 - 국내 물류 수요 증대 예상: 지역간 생산품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은 국가 경제 및 수출량이 증대될수록 내륙 물류의 수요는 확대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
 - 북부 지역의 투자 수요 확대: 정부는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된 북부 지역의 투자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

<2002년~2023년 브라질 지역별 견인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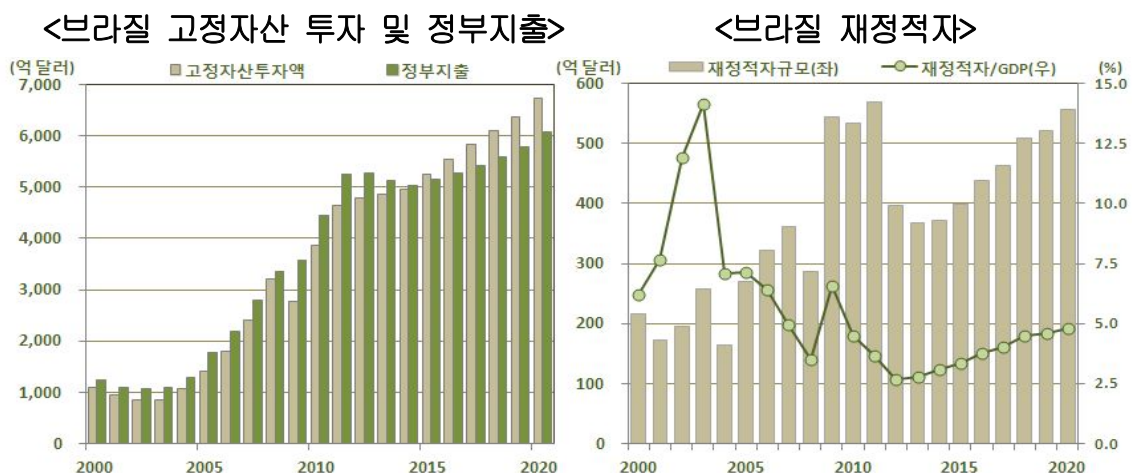
자료: Márcio Rogério Silveira.

(2) 인프라 개발 사업

○ 고정자산 투자 증대

- (인프라 개발 지속) 2011년 취임한 호우세피 대통령이 전임 룰라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개발의 지속이 예상
 - 고정자산 투자 증대: 2011년 브라질의 고정자산 투자는 4,638억 달러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0년까지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정부 주도 투자: 최근에는 정부 주도의 고정자산 투자가 활발하여 2011년의 정부 소비지출 전망치 5,257억 달러는 2001년의 4.8배에 달하는 수치

- (정부 지출 확대)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긴축 재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지출 확대 불가피 : 신임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의 지속,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을 천명한 가운데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을 위한 투자가 필요
 - 적자 기조의 지속: 브라질의 재정 적자 폭은 2013년까지는 크게 감소하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적자 기조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정부 지출의 안정적 확대: 결국 국가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정부 지출 규모의 점진적인 증대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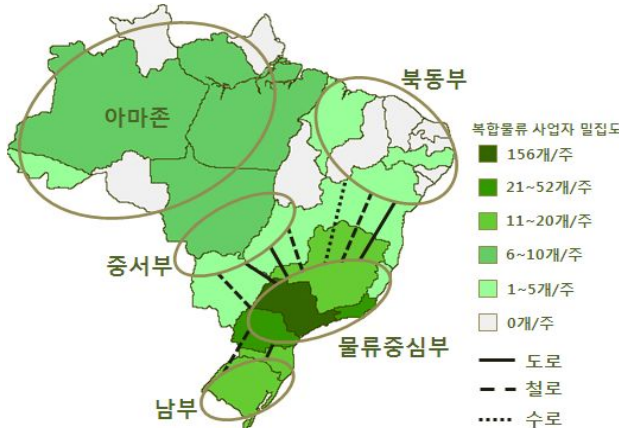
자료: Oxford Economics.

주: 고정자산투자 및 정부지출, 재정적자 규모는 명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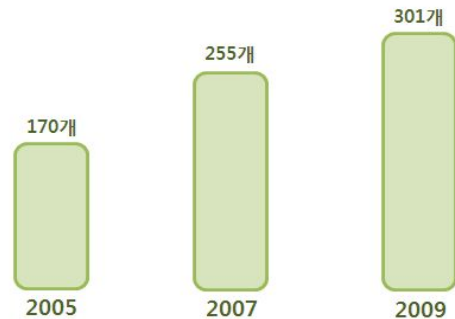
○ 물류 인프라 확충

- (물류 인프라 투자에 주목) 특히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가운데 항만, 철도 등 물류 인프라는 브라질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
 - **인프라 투자 계획:** 정부의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은 2010년까지 1차 계획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교통 등을 포함한 2차 계획 실시²³⁾
 - **항만 투자 증대:** 리우(Rio de Janeiro)항²⁴⁾과 파라나(Paranaguá)항²⁵⁾의 확장을 발표하는 등 자원 등 국제 화물 운송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
 - **내륙 수송 인프라 투자:** 낙후된 내륙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해 2000년대 중반 이후 2020년까지 철도를 비롯한 국가물류수송계획 및 다개년계획 실시
 - **태평양~대서양 연결 사업:** 또한 남미 대륙 서부의 페루 항만(카야오항)과 동부의 브라질 간 도로, 철도, 내륙항 연결 사업이 발표²⁶⁾됨에 따라 브라질의 對아시아, 페루의 對유럽 교역에 새로운 길이 조성될 전망

<브라질의 지역별 물류/운송>



<브라질 복합 물류 사업자 수>



자료: Roberto França da Silva Junior, Vencovsky, Vitor Pires.

- 23)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 Programa de Aceleração do Crescimento)에 따르면 2010년까지 에너지 및 기타 부분에 1조 1,480억 헤알의 1차 투자 계획이 진행되었으며, 2011년 이후 1조 5,910억 헤알의 2차 투자 계획이 진행되어 이 가운데 1,050억 헤알을 교통 부분에 투자할 계획, Global Insight.
- 24) 6억 1,100만 달러의 민간 투자를 통해 Post-Panamax급 수용이 가능하도록 터미널을 확장하고 화물 처리능력을 확대시킬 계획으로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이전까지 단계적으로 마무리할 예정.
- 25) 향후 5~10년 간 16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연간 처리 능력을 4,500만 톤에서 7,000만 톤으로 증대시킬 예정.
- 26) 페루 교통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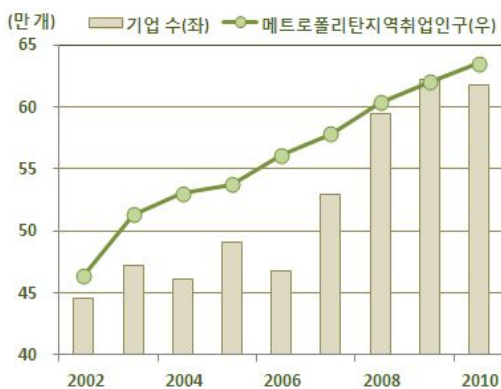
(3) 민간 소비 증대

○ 소득 수준의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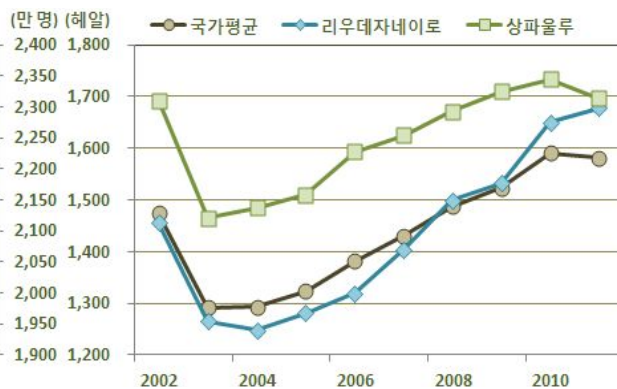
- (취업 인구의 증가) 국가 경제의 발전을 반영하여 사업체 수가 증가하는 한편, 취업 인구 역시 동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기업 수의 증가: 2010년 말 기준 정부에 등록된 기업은 총 618만 개로 2006년 이후 연평균 4.7% 증가하는 상황
 - 도시권의 취업 인구 증가: 사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자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리우 등 동남부 지역 도시를 중심으로 구성된 도시권의 취업 인구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2010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 (임금 상승) 근로자 임금은 2003, 2004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리우의 임금은 수도 상파울루 수준에 근접
 - 실질 임금 상승: 원자재의 국제 수요 증대 등으로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한 2000년대 중반부터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빠르게 증대
 - 동남 지역 임금 상승: 특히 리우 지역의 실질임금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2010년에도 상승을 지속하며 브라질 최고 임금 지역인 상파울루 수준에 근접

<브라질 기업 수 및 대도시권 취업자 수>



<브라질 근로자 실질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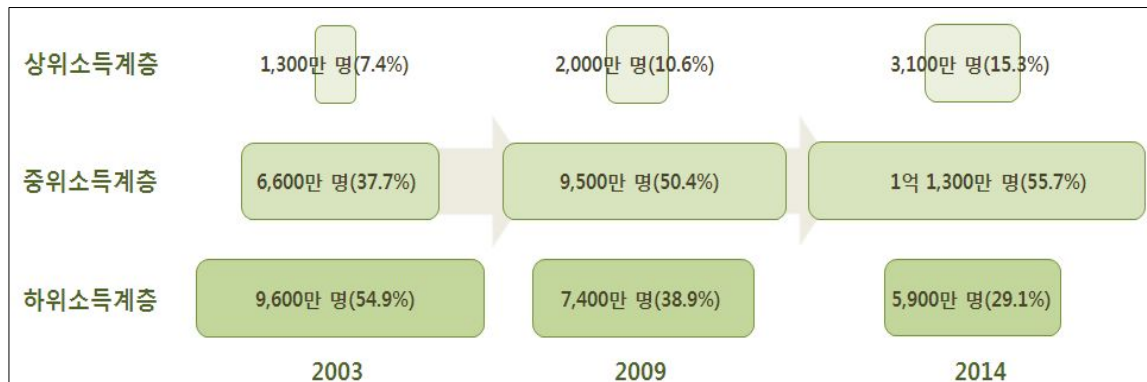
자료: National Department of Commerce Registration, 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ística.

- 주: 1) 기업 수는 정부에 등록된 기업 수
- 2)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브라질 정부의 정한 14대 도시권(Região Metropolitana)을 의미
- 3) 실질임금은 각 연도 월별 실질임금의 평균 수치, 2011년은 7월까지의 평균.

○ 중산층의 증가

- (소득 계층 구조) 본래 브라질은 'Belinda'라 불리며 빈곤층이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득 계층 구조가 특징
 - 빈부 격차 문제: 과거 브라질은 소득 상위 3%가 경작지의 60%, 상위 10%가 국부의 반 이상을 소유한 반면 국민의 43.5%는 일일 소득 2달러 이하 빈곤층
 - 인도 속의 벨기에: 이에 따라 브라질의 사회 구조를 작고 부유한 벨기에가 가난하고 거대한 인도에 둘러싸여 있다는 의미에서 Belinda²⁷⁾로 표현
- (중산층의 확대) 하지만 최근 빈곤층이 감소하고 중산층이 확대되는 등 과거의 소득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변화
 - 소득 계층 구조의 변화: 2009년 중위 소득 계층은 2003년 대비 2,700만 명 증가하고 하위 소득 계층은 2,200만 명 감소하는 등 소득 계층 구조가 변화
 - 중상위 계층의 증가 전망: 또한 2014년에는 상위 소득 계층이 국민의 15.3%로 확대되고 중위 소득 계층은 1억 1,300만 명(55.7%)에 달할 전망
 - 동남부의 고소득층에 주목: 이밖에 리우, 상파울루 등 동남부²⁸⁾의 고소득층은 전체 고소득층의 61%에 달해 이들을 중심으로 한 소비 시장 확대가 기대

<브라질의 소득 수준별 인구 변화>



자료: Fundação Getulio Vargas.

주: 상위계층(A, B계층)은 월 가계 소득 6,941헤알 이상, 중위계층(C계층)은 1,610헤알 초과 6,941헤알 미만, 하위계층(D, E계층)은 1,610헤알 이하 계층으로 분류.

27) Edmar Bac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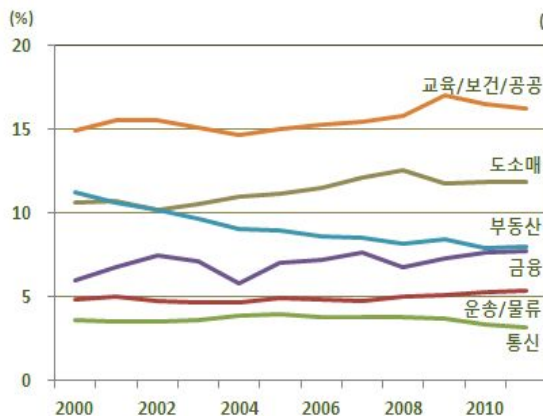
28) 브라질 정부의 분류 기준에 따라 동남부 지역에는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미나스 제라이스, 이스피리투상투, 산타카타리나가 포함.

○ 민간 소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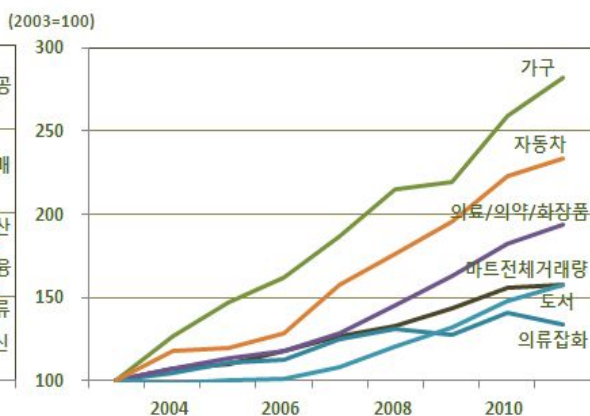
- (서비스업의 확대) 소득 수준 향상 및 중산층의 증가에 따라 서비스 상품 등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상황
 - 서비스업 비중 증대: 부동산 및 통신 부분을 제외한 주요 서비스 산업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
 - 주목해야 할 서비스 산업: 경기 침체 상황인 2009년 이후 다소 축소되기는 했으나 금융, 도소매, 교육 등의 산업 비중은 향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운송 물류 산업: 운송 및 물류 산업은 확연한 비중 증대는 없으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가 경제 성장에 따라 산업 규모의 확대는 지속될 전망

- (소비재 수요의 확대)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가구를 비롯한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대되는 상황
 - 내구 소비재 거래 확대: 2000년대 중반 이후 가구, 자동차 등 내구 소비재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
 - 비내구 소비재 소비 증대 전망: 가정 내의 인프라라 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 보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의류 등 비내구 소비재의 소비 증대가 기대

<브라질 주요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



<브라질 주요 상품 거래량 지수>



자료: 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ística.

3) 국내 기업 진출 현황

○ 對브라질 투자

- (직접투자 확대) 對브라질 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1년 상반기 누적 기준 한국은 10대 브라질 투자국 중 하나
 - 브라질 투자 규모 증대: 한국수출입은행 신고액 기준 2010년 對브라질 직접 투자액은 7억 8,071만 달러로 2001년과 비교하여 19.1배 증가
 - 투자 대상의 다양화: 또한 과거에는 제조업 및 광업 투자가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도소매,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등의 투자 진행 추세

- (외교적 노력) 최근 한국·브라질은 제2차 재무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 협력 공조,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공감대가 형성
 - 양국 간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 특히 양국의 기업 간 교류 지원,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개선 등을 통한 투자 활성화가 기대
 - 공공재원의 투자 지원 확대: 또한 한국수출입은행과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간의 MOU 체결로 현지 진출 시 공적 기금을 통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

- (브라질 교민 협력 기대) 또한 브라질 진출 시 정보 수집 등에서 현지 교민과의 협력 및 교류 역시 기대
 - 브라질 교민 현황: 1953년 브라질 이민이 시작되어 현재는 5만여 명의 교민이 현지에서 활동 중
 - 브라질 교민의 위상: 섬유, 의류 시장을 한국 이민자가 장악하는 등 소비재 및 지역 유통 시장과 같은 분야에서 한인의 위상이 낮지 않은 상황

○ 주요 기업 진출 현황

- (제조업 위주의 진출) 한국 기업들은 1990년대 이후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 등 제품 생산 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한 진출이 대부분
 - 전기전자: 삼성전자 및 계열사, LG전자 등은 현지 생산 공장 설립이 주요 진출 목적이었으며 이후 현지 판매량 역시 증가하는 중

- **철강:** 포스코 및 동국제강 등은 철광석 등 원재료 확보와 발레 등 현지의 세계적 철강 기업과의 제휴와 같은 이점에 따라 단독, 합작 공장을 설립
 - **자동차:**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현지 공장 설립 및 관련 부품 업체의 진출로 브라질을 포함한 미주의 자동차 수요에 대응하는 생산 기지가 건설
- **(소비재 수요의 확대)** 최근에는 현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재, 인프라 등은 물론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진출까지 가시화
- **원자재 확보 및 유통:** SK, 삼성물산 등의 자원 확보 사업이 활발한 가운데 삼성물산, at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컨소시엄이 농산물 유통 시장에 진출
 - **인프라 관련 사업:** 두산인프라코어의 건설용 장비나 LS 전선의 전력선과 같은 관련 제조업의 진출에 이어 최근에는 SK텔레콤이 통신 시장에, 한국전력 기술이 에너지 시장에 진출을 고려 중
 - **서비스 등 기타:** 이밖에 메디슨의 의료기기 시장이나 게임 업체들의 온라인 게임 시장과 같이 서비스 등 다양한 시장으로의 진출이 시작

<브라질 진출 주요 한국 기업>

기업	생산 / 판매 품목 및 업종
CJ	동물 사료용 아미노산 L-Lysine 등 생산 및 판매
LG전자	휴대폰, TV, 모니터, 백색가전 등 생산, 판매
SK, SK 텔레콤	자원개발, 4세대 통신 시장 진출 검토 중
동국제강	슬라브 생산 및 현지 철강 기업과 합작 제철소 설립
두산인프라코어	건설용 장비 판매, 공장 건설 중
만도	자동차용 부품 생산 공장 건설 준비 중
메디슨	의료기기 생산 및 판매
삼성SDI	브라운관, TV 및 모니터부품, 핸드폰용 LCD모듈 등
삼성전자	TV, 모니터,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홈시어터 등
삼성중공업	현지 조선소 합작 투자
삼성물산, 한진, at	농산물 저장 및 유통, 판매
포스코	판재류 등 철강재 생산
한국타이어	타이어, 튜브, Flap, 휠 등 생산 및 판매
현대중공업	중장비 생산 및 판매
현대자동차	자동차 생산 및 판매
효성	타이어 코드 등 생산 및 판매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3. 칠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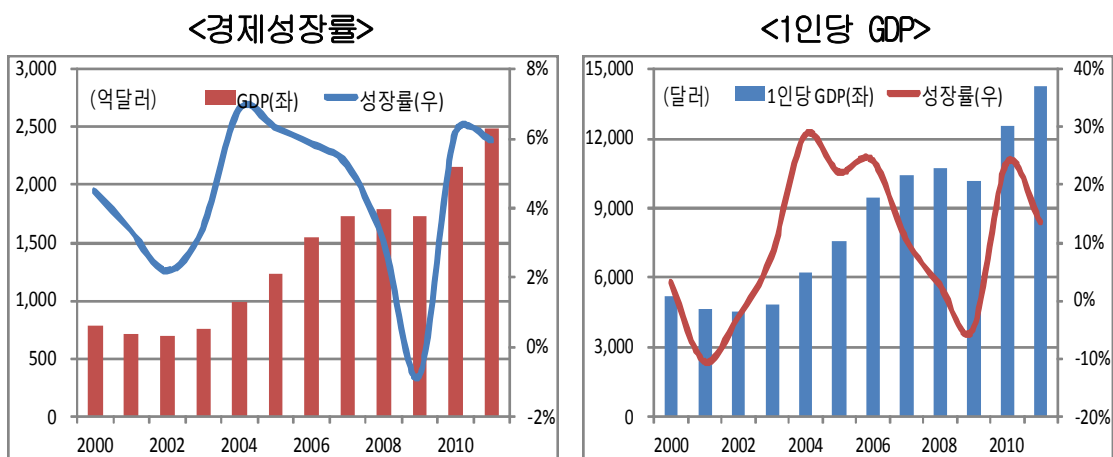
1) 칠레 경제의 특징

○ 수출 주도형 성장을 추구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 칠레 정부는 1970년대부터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구축
 - 시장 중심의 경제체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2004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개방경제를 추구
 - 2015년까지 수입 관세 철폐를 추진하고 있음

- 안정적인 성장으로 OECD에 가입하는 등 선진국으로의 발전을 기대
 - 칠레는 1990년대 이후 정치적 안정 유지 및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자유시장의 원칙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국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 2010년 5월 칠레는 멕시코에 이어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OECD 가입
 - 이에 따라 선진국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만한 상태임

- 지진피해 복구사업 등의 영향으로 2011년 5.9% 경제성장률 기록
 - 300억 달러 규모의 피해복구 사업으로 남미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
 - 2012년에는 원자재 수출 침체 및 가격 하락 등으로 소폭 성장둔화 예상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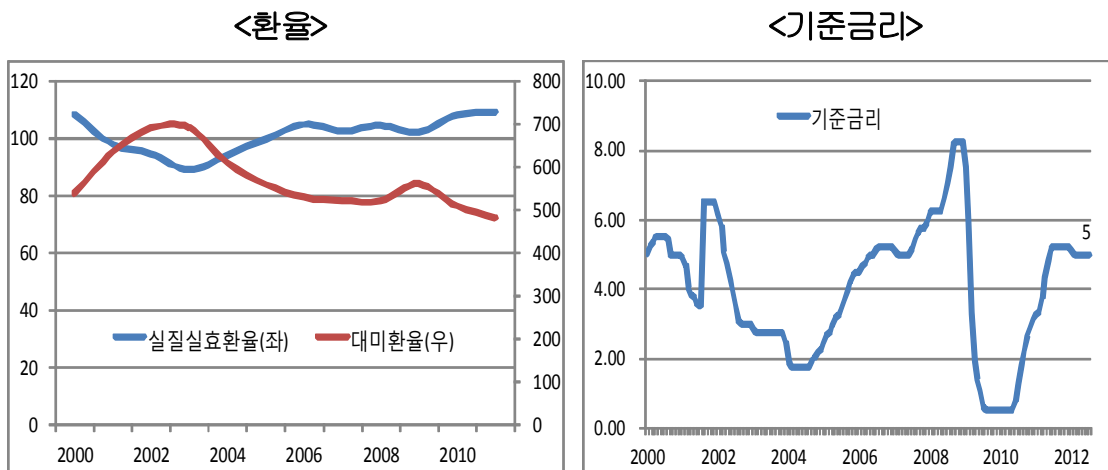
자료: IMF.

29) IMF는 2012년 칠레의 경제성장률은 4.3%에 그칠 것으로 전망(상반기 실적 6.2%).

○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환율 및 금리

- 칠레의 기준금리 변동성이 크고 페소화 환율은 고평가되어 있음
 - 칠레의 페소화는 2009년 달러당 561페소에서 2011년에는 484페소로 하락, 반면 실질실효환율은 2009년 102에서 2011년에는 109로 상승하여, 칠레 페소화의 고평가를 나타냄
 - 2008년 8.25%에서 2010년에는 0.5%로 인하, 2011년에는 5%로 조정하였음

- 국제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음
 - 풍부한 자원 보유국으로 구리 등 국제원자재 수요 변동이 칠레의 경기 및 환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동, 요오드, 레튬, 리튬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광물자원은 칠레 전체 수출의 58%를 차지하며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
 - 칠레는 50개국과 FTA를 체결하며 급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여 3차 산업 비중이 확대되었으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산업구조
 - 따라서 구리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확대는 칠레의 경제 성장 및 경기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칠레 정부는 기준금리 조정으로 대응



자료: World Bank, Bloomberg.
 주: 실질실효환율 200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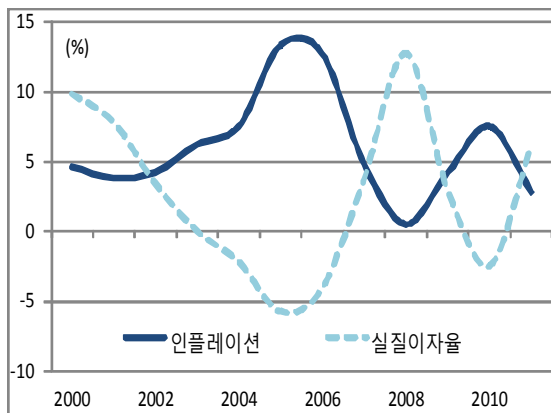
○ 최우선 정책 목표 : 물가 안정 및 실업 문제 해소

- 칠레 정부는 물가를 3% 수준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선정
 - 물가 안정을 위한 목표치인 3%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금리 정책 활용, 2012년 인플레이션은 3.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물가 상승요인으로는 국제유가, 발전 단가 상승, 송전망 불안 등 전기요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실질 이자율은 5%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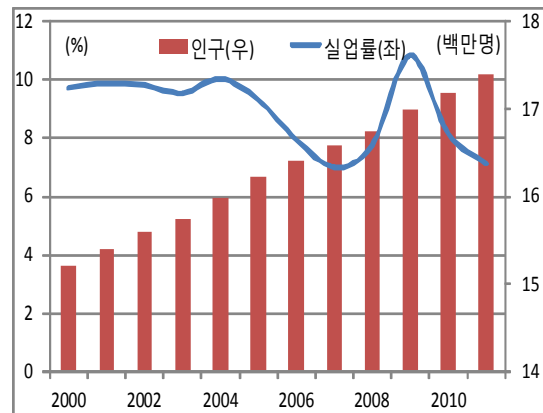
- 높은 실업률은 칠레 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 2000년대 초반 10% 수준의 실업률이 2005년 이후 매년 1%씩 감소하였으나 2009년 실업률은 11%를 기록함
 - 2010년 이후 실업률이 하락하여 2011년에는 7%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칠레의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은 100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수출확대 및 투자활성화를 추진

- 2012년에는 칠레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실업률은 7%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인플레이션과 실질이자율>



<실업 및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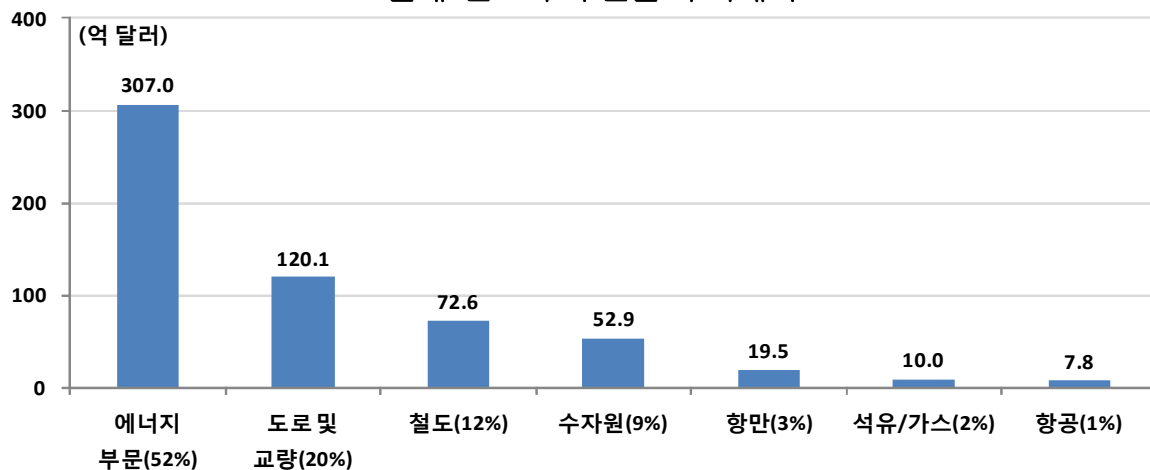
자료: IMF.

2) 칠레의 인프라 개발 사업

○ 대지진 인프라 피해 복구 사업

- 2010년 2월 칠레 중남부 지역의 대지진 피해규모는 약 300억달러
 -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지진대에 속한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최근 2년 동안 2천 100여 차례의 지진이 발생
 - 2010년 2월에는 칠레 중남부 지역에서 규모 8.8의 대지진이 발생하여 524명이 사망, 31명이 실종되었으며, 총 300억 달러의 피해 발생함
 - 2012년 8월 4일에도 칠레 중북부 지역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나,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 지진 피해 복구 등 인프라 프로젝트에 590억달러 투자 예정
 - 지진 피해 복구 및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에너지 부문, 도로, 철도, 수자원, 항만 등에 59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수립
 - 전력, 석유,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투자는 307억달러로 전체 인프라투자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등 교통 인프라투자는 220억 달러로 37%를 차지하고 있음

<칠레 인프라 부문별 투자계획>



자료: BMI, 무역협회, 국제무역원, Trade Focus, vol. 11 No.32, 2012년 7월.

주: 2012년 2월 기준 신규투자 또는 투자 예정 프로젝트 추정치, 에너지 부문이란 발전소 및 송전선로.

○ 인프라 투자 확대

- 중남미 지역의 해외건설 수주 실적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중남미의 인프라투자는 GDP 대비 2004년도 1.5%에서 2015년에는 4.5%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칠레는 브라질, 페루, 등과 같이 인프라 투자환경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교통, 에너지, 상하수도 및 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예상
 - 또한 중남미 지역의 경제성장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건설 인프라 투자확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칠레의 건설 투자 중 인프라 부문의 확대를 기대
 -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소득 증가에 따른 인프라 수요 증가
 -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도시정비 등 기존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투자 증가
 - 2007년 이후 칠레의 건설 산업은 연평균 성장률 15.2%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진 피해복부 및 에너지 분야의 개발 등 인프라 투자 확대를 예상

<중남미 주요국의 건설산업 규모>

(단위: 10억 달러, %)

	2007	2008	2009	2010	2011	07-11 성장률
브라질	57.1	69.9	68.7	93.9	110.1	17.8
멕시코	70.5	75.9	59.0	67.0	73.9	1.2
아르헨티나	14.9	18.0	16.0	19.0	21.6	9.7
콜롬비아	13.3	17.0	18.2	21.4	23.1	14.8
베네수엘라	14.7	20.3	26.9	15.4	17.8	4.9
칠레	10.6	13.6	12.2	16.0	18.7	15.2
페루	6.5	8.2	9	11.6	12.9	18.7
합계	187.6	222.9	210.0	244.3	278.1	10.3

자료: 국제무역연구원, 무역협회,

○ 국가전력개발전략 주요 내용 및 인프라 개발 추진 계획

- 칠레 정부는 ‘국가전력개발전략 2012~2030’을 발표하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6대 정책방향을 제시
 - 경제성장에 따라 연평균 6~7%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미래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 확보 전략 수립
 - 6대 정책 방향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수력발전 확대, 송전인프라 개선, 전력시장 경쟁 확대, 중남미 국가 전력망 통합

- 추진 배경은 높은 에너지 대외의존도 완화 및 에너지 효율성 확보
 - 칠레는 원유의 98%, 석탄의 92%, 천연가스의 74%를 수입
 - 칠레의 에너지원은 석탄, 디젤, 천연가스 등을 이용하는 화력 62%, 수력 35%, 신재생에너지 3% 등으로 분포
 - 칠레의 에너지 공급원이 제한적이며 대부분 화력발전에 의존하여 가뭄이나 국제에너지가격 상승 등 외부여건에 취약
 - 전력 생산의 확대 및 효율성 제고, 그리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우선 해결해야할 중대한 문제

<칠레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단위:TWh)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화력	38.40	40.61	42.03	43.88	45.39	47.11
수력	21.89	23.1	24.37	25.83	27.51	28.61
신재생에너지	3.67	4.43	4.65	4.90	5.11	5.34
원자력	0	0	0	0	0	0
전체발전량	64.32	68.14	71.05	74.60	78.01	81.06

자료 : EIA, World Bank.

- 에너지 효율성 제고 계획 실천 및 효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및 기구 설치
 - '국가 에너지 효율성 증대프로그램' 운영
 - '에너지 효율성청' 신설
 - '에너지 효율성 인증마크 제도' 시행
 - '에너지 효율성 최소 기준' 적용
 - '에너지 효율적 주택 조명과 도로 조명' 설치
 - '효율적 에너지 정책 개발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부처간 위원회' 설치

-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가로막는 높은 투자비용, 자금조달의 어려움, 송전망 연결의 한계 등 기술적 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발전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및 공개입찰 실시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타당성 평가 및 정보제공을 위한 지리정보센터 구축
 - 공공기관과 협의, 효율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자금조달 방안 개선
 -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기능을 포괄하는 공공기관 설립
 - 신재생에너지 종류별로 차별화된 발전전략 및 기술 개발 지원

- 국가전력개발전략의 추진 내용에 따르면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개발 기대
 - 구체적 전략의 내용에는 '환경 보존', '기술혁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유도', '에너지 효율성 제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 시스템 구축' 등 기존 에너지 인프라의 개선을 추진,
 - '전 국민에게 전력공급 균등성과 접근성 보장', '지역별 차별화된 정책 수립',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전력공급 구조 구축', '중남미 국가와의 전력망 통합', 등 신규 인프라 개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시스템 구축, 송전망 확대 구축 등에 필요한 SOC 인프라 투자가 동반될 것으로 보임
 - 국가 전력개발전략에는 에너지 인프라 개발 및 도로, 송전시설 등 SOC 투자가 확대 예상

○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

- 신재생 에너지 육성정책 추진
 - 칠레 정부는 2008년 8월 신재생 에너지 의무규정 제정, 환경보호 및 전력 공급선의 다양화를 추진
 - 2010년부터 200MW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모든 전력기업은 2024년까지 의무적으로 연간 전력 생산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함
 -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를 통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중장기 에너지 공급 방안'의 목표 설정

-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여건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
 - 2007년 이후 가뭄이 지속되어 수력발전량이 감소하며 전력공급 사정 악화
 - 전력에너지 확보를 위해 수력, 화력, 태양열 등의 발전소 건설을 추진
 -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지역은 일조량이 많고,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태양광 발전에 최적여건을 갖추고 있음
 - 풍력 발전은 칠레 중부지역 코킴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추진

<칠레의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 주요 현황>

(단위: 백만 달러, MW)

	프로젝트명	회사명	투자액	용량
풍력 발전	MonteRedondo	Suez	150	38
	Totoral	Norvind (SN Power)	100	46
	Canela	Endesa Eco (Central Ecolica Canela)	17	19
	Canela II		168	60
태양광	Pica 90MW	Element Power Chile	288	90
	Lagunas		96	30
	Salar de Huasco		96	30
	Atacama Solar 250MW	Atacama Solar	773	250

자료: 국제무역연구원, 무역협회,

3) 칠레 진출 여건 및 국내 주요기업 진출 현황

○ 칠레의 해외기업 진출 여건

- **(제도적 여건)** 칠레는 민관합동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s)에 대한 법적·정치적·제도적 투자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민관합동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s)은 민간은 주로 기술과 자본을 제공, 정부는 이해관계조정 및 운영을 담당,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도로, 전력, 공중위생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 2010년 Infrascop Index는 79.3점으로 교통, 에너지, 상하수도 등 인프라 건설에 대한 규제정책, 운영환경 등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³⁰⁾
 - 칠레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진출 환경)** 칠레의 해외기업 진출여건은 법인설립 소요일을 제외하고, 외국인 유치제도, 정책 투명성, 금융비용 등에서 한국보다 우수

<칠레 진출 여건>

	법인 설립			외국인 유치제도	정책 투명성	금융비용
	절차수	소요일	비용			
한국	8(78)	14(58)	14.7(81)	4.5(85)	3.4(128)	4.3(62)
칠레	8(78)	22(84)	6.8(57)	5.6(7)	5.3(14)	5.4(16)
비고 (단위)			1인당 GDP 대비 %	1점(부족)~7점(우수)		

자료: 세계은행, 국제무역연구원, 무역협회.

주: 괄호는 140개국 중 각 국가의 순위.

30)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Infrascop Index는 100점 만점이며, 브라질 73.2, 페루 67.2, 멕시코 58.1 등으로 중남미 상위 국가 중에서 칠레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국내 주요 기업들의 진출 현황

- 수출입은행의 투자금액 기준에 따르면 칠레의 광업 투자 비중이 높음
 - 제조업 및 도소매업 투자에 집중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한 투자 및 현지 금융을 통한 투자의 집계에는 한계가 있음
 - 투자금액 기준 우리나라의 대 칠레 투자는 광업 1억 9,214만달러 69.1%
 - 도소매업은 5,467만달러로 19.6%, 그리고 제조업은 2,202만달러로 7.9%의 비중을 차지

- 플랜트, 제조, 에너지 등으로 진출분야가 확대되는 추세
 - **에너지** : LG상사에서 칠레의 에너지 기업 Geopark의 지분 20%를 인수하여 칠레의 원유 및 가스개발에 참여
 - **발전시설 등 플랜트 건설** : 포스코건설이 전력회사인 AES Gener사의 화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2006년 하반기, 칠레 사무소 개설
 - **제조업** : 1993년 이건산업이 목재 가공업으로 진출, 2007년에는 신광목재가 투자하여 진출
 - **광산업** :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삼성물산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칠레의 리튬 광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칠레의 광산업체 코피아포 지분 30%를 인수하여 동 광 프로젝트에도 참여

<칠레 진출 국내 기업 현황>

업종	진출 기업
전자	삼성전자 (1981), LG전자 (1981), 대우일렉트로닉스 (1993)
플랜트	포스코건설(2006; 화력발전소 플랜트), 두산중공업(2012; 담수화플랜트), 세일(2008;건설업, 보일러), 효성(2011; 변전소 플랜트)
자원	한국광물자원공사(2011)
목재	이건산업(1993; 합판 등 제조), 신광산업(2007; 합판 등 제조)
상사	삼성물산(1980; 도소매업), LG상사(2011; 도소매업), 대우인터네셔널(2012; 도소매업)

자료: Global Window, KOTRA, 2012년 6월 기준.

(여 백)

생산 기지의 대안, 동남아 바트(Baht) 경제권³¹⁾

1. 신흥 유망시장으로 주목받는 바트 경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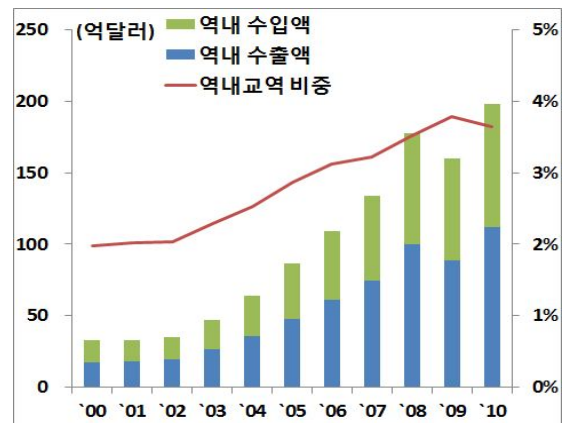
○ 개 요

- **(정의)** 바트 경제권이란 태국의 화폐인 바트(Baht)화의 영향력에 따라 형성된 소규모 경제권을 일컫음
 - 일반적으로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반도에 위치한 국가들을 바트 경제권이라고 지칭함
- **(지리적·경제적 연관성)** 해당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문화가 유사하며 역내 교역이 활성화되는 등 최근에 들어 경제적 관련성이 증대되고 있음
 - 태국의 대중·대미 교역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아 역내 총교역비중은 약 3.6% 수준(2010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지만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경우 역내 교역 비중이 각각 61.6%, 33.0%, 28.6%에 달하고 있음³²⁾

<바트 경제권의 위치>



<바트 경제권의 역내 교역>



자료: UN Comtrade.

31) 현대경제연구원(2012), "바트경제권의 부상과 대응", 현안과 과제(12-50)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재 게재.

32) 통계상으로 포착되지 않는 밀무역규모까지 고려하면 역내 교역규모는 이보다 더 크다고 판단됨.

○ 바트 경제권의 규모

- **(주요 지표)** 바트 경제권은 총 인구 2억 3천만명으로 한국의 약 4.7배, 총 면적은 약 19.4배에 이르는 규모
 - 바트 경제권 국가들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베트남으로 약 8,900만명이며 태국과 미얀마 또한 6,000만명 이상의 인구 보유
 - 5개국 중 가장 국토 면적이 큰 국가는 미얀마이며, 베트남은 약 3,400km의 해안선을 보유
 - 태국과 베트남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의 주요 산업은 농업, 광업, 임업 등 1차 산업임

- **(경제 규모)** 바트 경제권의 전세계 생산 비중은 현 1% 내외 수준에 불과하지만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전세계 총생산중 바트 경제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0.4%에서 2010년 0.8%로 증가하였고, 특히 2000년 이후 성장세가 가파른 상황
 - 5개국의 총 1인당 GDP는 1990년 약 740달러에서 2011년 2,280달러까지 상승하였으며 IMF에 따르면 2017년 3,500달러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바트 경제권의 주요 지표>

	단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합계
인구	만명	6,400	8,900	1,500	630	6,200	23,630
면적	km ²	513,000	331,000	181,000	237,000	677,000	1,939,000
국내총생산(실질)	100만\$	345,672	122,722	12,890	8,302	51,444	541,030
세계경제비중	%	0.49	0.18	0.02	0.01	0.07	0.77
1인당GDP	\$	5,395	1,374	853	1,320	824	2,280
주요 산업	-	제조업	제조업	농업 봉제업	농업 광업	농업 임업	-
주요 자원	-	석고,주석	석유, 보크사이트	철,금,망간	금,동, 석고, 주석	아연,주석, 천연가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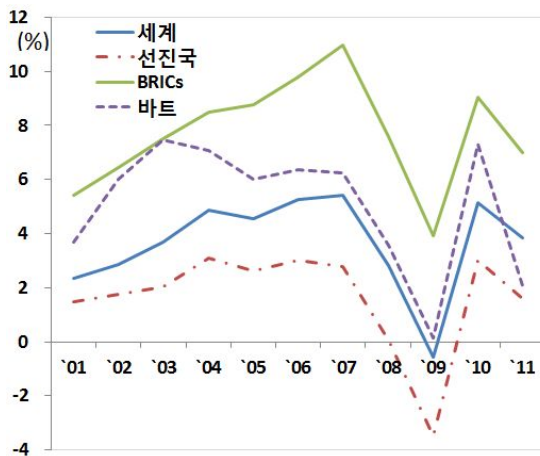
자료: IMF, CIA.

주: 2011년 기준.

○ 바트 경제권의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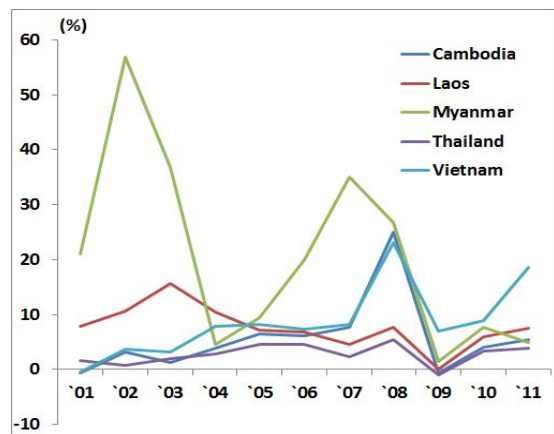
- **(경제성장률)** 바트 경제권 국가들은 금융위기에도 양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했으며 향후 6% 이상의 지속적 성장이 전망
 -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2001~11년) 캄보디아와 태국은 약 2배, 베트남 2.7배, 라오스 4배, 미얀마는 7배에 달하는 국내총생산 증가를 기록³³⁾
 - 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선진국의 경기침체에 따라 2012년 3.3%, 2013년 3.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신흥개도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2012년 5.3%, 2013년 5.6%), 그 중에서도 바트 경제권 국가들은 연평균 6%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물가상승률)** 2008년 이후 물가변동폭이 감소하고 있으나 해외자본 유입,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불안요인 내재
 - 2001-06년과 2007-11년 연평균 물가상승률의 경우 미얀마(23.6→14.5%), 라오스(9.7→5.1%)와 달리 베트남(5.0→13.0%), 캄보디아(3.3→8.0%)는 상승세
 - 다만, 태국의 물가는 2001-06년 2.7%에서 2007-11년 2.8%로 바트 경제권 국가 중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바트 경제권 경제성장률>



자료: IMF.
주: 경제권 성장률은 역내 국가의 가중평균치.

<바트 경제권 소비자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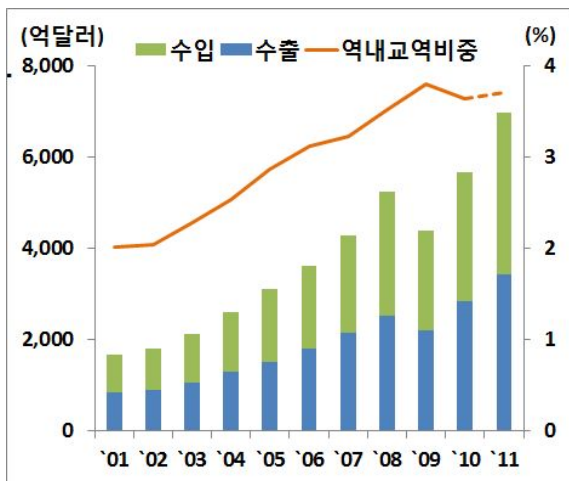
자료: IMF.
주: 연평균 성장률 기준.

33) 다만 2011년은 태국 대홍수의 영향으로 바트 경제권 전체 경제성장률이 2.1%로 다소 위축됨.

- **(교역 규모)** 바트 경제권 지역의 무역 거래 활성화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출·수입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
 - 5개국의 2011년 총 수출액은 3,420억 달러, 수입액은 3,540억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총무역액은 약 6,950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23% 상승
 - 태국 4,550억 달러, 베트남 2,000억 달러, 미얀마 180억 달러, 캄보디아 160억 달러, 라오스 50억 달러로 태국과 베트남의 무역 규모가 압도적
 - 2009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특수성을 제외하면 바트 경제권 지역의 총무역액은 2006년 이후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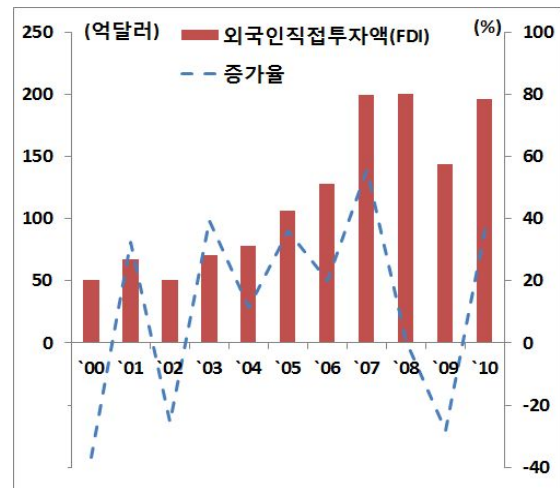
-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최근 외국인투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고성장의 중요한 생산요소인 자본축적이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
 - 5개국의 2010년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약 196.5억 달러로 전년대비 36.4% 상승
 - 국가별로 살펴보면 태국 96억 달러, 베트남 80억 달러, 라오스 2.7억 달러, 캄보디아 7.8억 달러, 미얀마 9.1억 달러로 집계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투자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이나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금융 및 자본 시장이 안정될 경우 투자 유입이 빠르게 확대될 전망

<바트 경제권 교역 규모>



자료: IMF, UN Comtrade.
 주: 2011년 역내 교역비중은 추정치.

<바트 경제권 외국인직접투자>



자료: UN, IMF.
 주: 순투자액 기준.

- (국가별 산업 구조) 베트남과 태국은 제조업, 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는 1차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보유
 - (태국) 수출이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출중심구조로 제조업 생산기반이 구축되어 있으며 주요 수출품 1, 2위는 컴퓨터와 자동차임(2010년 기준)
 - (베트남) 태국과 같이 적극적 산업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제조업이 성장 견인차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요 산업은 섬유, 신발 등 경공업 분야임
 - 또한 베트남은 해안선이 3,260km에 달하여 연안어업 및 양식업이 발달하였으며 브라질에 이은 세계 제2위의 커피 수출국임
 - (미얀마· 캄보디아) 노동집약적 산업, 특히 봉제업 중심의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관광업, 농업, 광업 등에서도 잠재력 보유
 - (라오스) 천연자원 부문(광산 및 수력발전 분야)에 대한 대규모 해외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자원개발 분야가 국가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성장
 -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수력전력 대부분이 태국으로 수출되어 태국 제조업 부문의 성장에 따른 라오스 전력산업의 동반 성장이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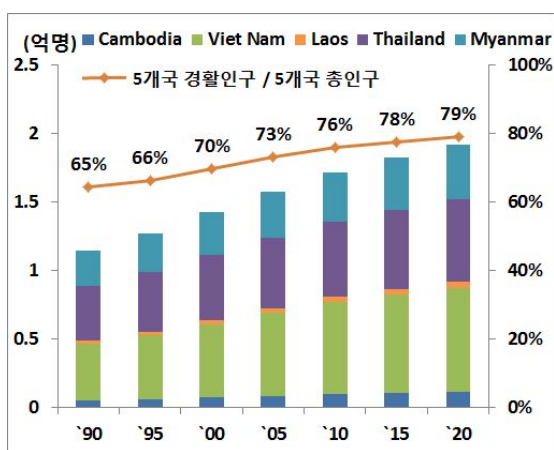
2. 바트 경제권의 잠재력 및 한계

1) 잠재력

- (생산 기지로서의 가능성)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임금 등의 장점과 더불어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과 인도에 대한 높은 접근성으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성장이 기대
- (풍부한 노동력) 바트 경제권의 경제활동가능인구는 1억 7,000만 명(2010년 기준)으로 UN에 따르면 2020년 약 1억 9,000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
 - 경제활동가능인구(15세 이상)의 비중은 2000년 69.9% 2010년 76.1%, 2020년 79.1%의 추세로 젊은 노동력을 보유한 지역
 -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급속하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비교해 해당지역은 장기적으로도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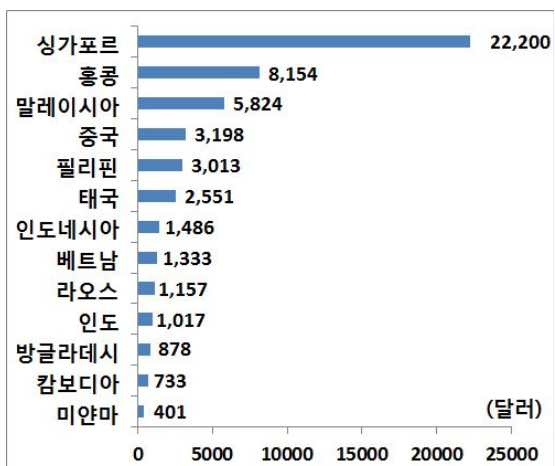
- **(높은 임금 경쟁력)**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중국의 약 1/3수준이며 캄보디아는 1/4, 미얀마는 1/7 수준으로 중국에 비해 임금 경쟁력이 우수
 - 2011년 기준 각 국의 총 최저임금(연봉기준)은 미얀마가 약 400달러, 캄보디아 약 700달러로 가장 낮으며 그 외 국가들도 중국과 비교시 우수한 임금 경쟁력을 보유
 - 이에 비해 중국 정부는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중국 진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
- **(중국·인도 시장에 대한 높은 접근성)** 바트 경제권은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중국·인도를 겨냥한 생산기지로서 활용 가능
 - 바트 경제권이 위치한 인도차이나 반도는 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길목임
 - 육로 이용시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이 중국과 직접 연결되며, 해로로는 미얀마·태국이 인도와, 베트남이 중국과 근접함

<바트 경제권 경제활동가능인구>



자료: UN, ILO 자료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계산.
 주: 경제활동가능인구 = 15세 이상 인구.

<아시아 주요국 총 최저임금(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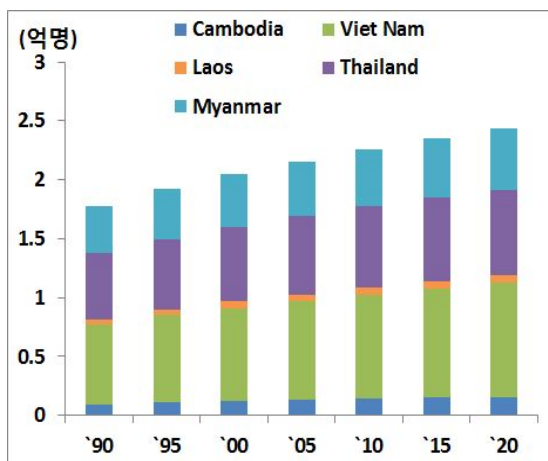


자료: KOTRA, Thai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주: 총 최저임금 = 최저임금 + 의무복지비용, 연봉기준.

○ (소비 시장으로서의 가능성) 현재 구매력은 낮지만 성장률이 높아 미래 세계 경제의 주요 소비 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 존재

- (거대 인구 규모) 바트 경제권은 2억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소비시장
 - 각국의 총 인구는 2010년 기준 라오스 620만 명, 캄보디아 1,400만 명, 미얀마 4,800만 명, 태국 6,900만 명, 베트남 8,800만 명으로 총 2억 2,5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소비시장
 - UN에 따르면 향후 이 지역 인구는 2015년 2억 3,500만 명, 2020년 2억 4,3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
- (국민소득의 빠른 증가) 태국 이외의 국가들은 소비력이 낮아 중고물품 거래가 활발한 상황이지만 1인당 GDP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각국의 1인당 GDP는 태국이 5,000달러 수준임에 비해 베트남과 라오스는 약 1,100달러,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약 750달러를 기록(2010년 기준)
 - 10년간의 1인당 GDP 변화를 살펴본 결과(2001~10년) 태국과 캄보디아는 약 1.5배, 베트남은 2배, 라오스는 2.5배, 미얀마는 3배 증가

<바트 경제권 인구>



자료: UN, ILO.

<바트 경제권 1인당GDP(달러)>

	'90	'00	'10
태국	1,521	1,983	4,992
미얀마	—	177	741
캄보디아	105	288	752
라오스	218	308	1,105
베트남	98	401	1,173

자료: IMF.
주: 실질GDP기준.

○ (자원 조달 시장으로서의 가능성) 자원 개발 및 수송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여 자원 상당수는 미개발 상태이나 다양한 부존자원의 존재 확인³⁴⁾

- (풍부한 에너지 자원) 미얀마의 천연가스, 베트남의 석유 및 무연탄을 주목
 - 천연가스는 2001년 이후 미얀마의 최대 수출 품목으로 현재 Yetagun 및 Yadana 가스전에서 약 12억 cf/d³⁵⁾의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태국에 수출
 - 베트남은 아시아 6대 석유생산국으로 전체 매장량은 약 32.5억배럴로 추정되며 추가 매장량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됨
 - 또한 베트남은 세계 무연탄의 주요 생산국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3%를 차지
- (다양한 광물 및 삼림자원 보유) 베트남에는 LEC칩, 태양광, 휴대전화 등의 원자재인 보크사이트가 매장되어 있으며 미얀마에는 삼림자원이 풍부
 - 보크사이트³⁶⁾는 베트남 매장 광물자원 중 가장 많은 부존량을 가진 광물로 지금까지 확인된 매장량은 약 55억 톤 규모
 - 미얀마는 전체 국토의 약 절반(3,340만/6,770만ha)이 삼림지역으로 중국, 인도에 이은 아시아 제3위의 삼림자원 보유국이며 주요 임산자원인 티크(Teak)원목의 식림 면적은 약 64.8만 에이커에 상당
 - 태국은 시멘트·장석·석고·주석, 라오스는 금, 동, 석고, 주석 등을 주로 생산
 - 캄보디아의 경우 지난 20년간의 전쟁, 국제적 갈등, 관련 정부정책 부재 등으로 탐사 및 개발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
- 본격적 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도로, 설비, 운송수단 등 인프라 시설의 확충을 위한 해외자본유치가 선행 과제
 - 수요 급증으로 원자재 가치는 지속적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어 매장 자원이 개발될 경우 해당 지역은 안정적 성장이 가능
 - 매장자원의 확보·활용을 위해서는 인프라시설 구축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해외자본유치가 요구됨

34) 한국광물자원공사(www.kores.or.kr) 참조.

35) 日 생산 입방 피트(cubic feet per day).

36) 보크사이트 1톤 제련시 희소금속 갈륨을 약 50g 추출할 수 있음. 갈륨은 LEC칩, 태양광과 휴대전화 등의 주원료로 사용됨. (‘희유금속과 도시광산업의 미래와 시장전망’, 데이코, 2011).

2) 한계

○ (열악한 진출환경) 바트 경제권은 중국과 비교시 기업진출환경, 부패, 인프라 기반 등에서 낮은 경쟁력을 보임

- (부정부패 및 기업진출환경 열악) 각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가 만연하며 태국을 제외하고는 기업환경 편의성이 낮음
 - 세계은행(World Bank)의 국가별 기업환경평가³⁷⁾에 따르면 태국 이외 국가들은 기업 활동 환경에서 상대적 경쟁력이 낮음
 -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³⁸⁾는 바트 경제권 국가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한 것으로 평가함

<국가별 기업환경평가/부패인식지수>
(단위: 순위)

	기업환경평가 (2012년)	부패인식지수 (2011년)
태국	18	80
베트남	99	112
캄보디아	133	164
라오스	163	154
미얀마	-	180
중국	91	75

자료: World Bank, T.I.
주: 기업환경평가 185개국, 부패인식지수 183개국 대상.

<국가별 인프라구축 수준>
(%)

	도로포장률 (2007년)	인터넷이용률 (2011년)
태국	-	23.7
베트남	47.6	35.5
캄보디아	6.3	3.1
라오스	13.5	9.0
미얀마	11.9	1.0
중국	53.5	38.4

자료: International Road Federation, World Bank.
주: 인터넷 이용률은 100명당 인터넷이용자 기준.

37) 세계은행(World Bank)와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각국 기업 환경의 편의성을 조사해 매년 'Doing Business'보고서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평가한다. 185개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은 사업착수, 면허취득, 전기연결, 재산등록, 신용확보, 투자가 보호, 납세, 무역, 계약집행, 사업철수항목평가의 총 10개 항목(2012년 기준)으로 구성된다.

38)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995년부터 매년 1회씩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CPI'로 약칭하기도 한다. 세계은행(IBRD) 등 7개 독립기구가 실시한 국가별 공직자의 부패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종합하여 분석, 평가한다. 10점 만점으로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 정도가 심하며 3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한 상태를, 7점대는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를 의미한다.

- **(인프라시설 부족)** 도로, 철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이 정비된 곳이 많지 않아 생산기지 건설시 높은 물류비용이 발생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도로, 철도, 통신 등 미흡한 인프라 시설로 높은 물류 비용이 발생해 임금 경쟁력을 상쇄
 - 특히 라오스는 바트 경제권 국가 중 유일한 내륙국가로 항구가 없어 저렴한 해운물류 대신 육상 및 항공물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 **(대내외 분쟁) 각 국은 영토 분쟁, 내전 등 정치·외교적 불확실성이 높음³⁹⁾**

- **(영토분쟁)** 태국과 캄보디아는 프레아 비히어 사원 주변 지역, 베트남은 중국과 해상에서 영토 분쟁 상황에 직면
 - **(캄보디아-태국 분쟁)** 양국은 프레아 비히어(Temple of Preah Vihear) 힌두교 사원 주변 약 4.6km²의 국경 지역에서 대립중이며 2011년에는 양국 군대의 수차례 무력충돌로 수십명 사망
 - 국제사법재판소(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2011년 7월 새로 설정된 사원 주변 잠정 비무장지대로부터 양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명함에 따라 현재는 군대 대신 경찰이 주둔한 상황
 - **(베트남 남중국해분쟁)** 베트남은 남중국해⁴⁰⁾ 지역에서 중국 등 6개국과 영유권 분쟁
 - 1988년 베트남-중국과의 교전 이후 현재까지 무력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남중국해의 경제적 가치로 인해 긴장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내전·시위)** 미얀마는 소수민족의 분리독립투쟁, 태국은 남부지역의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의 시위가 발생
 - **(미얀마 내전)** 일본으로부터 독립 이후 시작된 미얀마 정부와 소수민족 간 분리독립분쟁으로 쿠데타로 인한 군사정권 수립 이후 반독재투쟁으로 발전

39) 한국국방연구원 세계분쟁정보(www.kida.re.kr/woww) 참조

40) 남중국해(South China Sea)는 중국 남쪽에 위치한 바다로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 국가에 둘러싸인 해역을 가리킴. 이 해역은 크게 4개 군도로 구분되며 난사군도에서는 6개국 전체, 시사군도는 중국과 베트남, 중사군도는 중국, 대만,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동사군도는 현재 대만이 점유). 해당 지역은 원유,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아시아 해양물류의 주요 수송로로 지리적, 경제적 가치가 높음

- 그러나 2010년 아웅산 수지 여사의 가택연금이 해제되고 2011년 민선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얀마는 민주화 및 정치적 안정 확보를 위해 노력
- **(태국 남부 분쟁)**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태국 남부 4개주⁴¹⁾에서는 종교갈등으로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의 폭동·시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 태국 국적의 남부 이슬람인들은 역사, 언어 및 생활면에서 말레이시아 문화권에 좀 더 근접하나 태국과 영국이 1909년 조약을 통해 현재 국경을 확정하게 되면서 불교(태국인)와 이슬람(남부 태국인)간의 갈등이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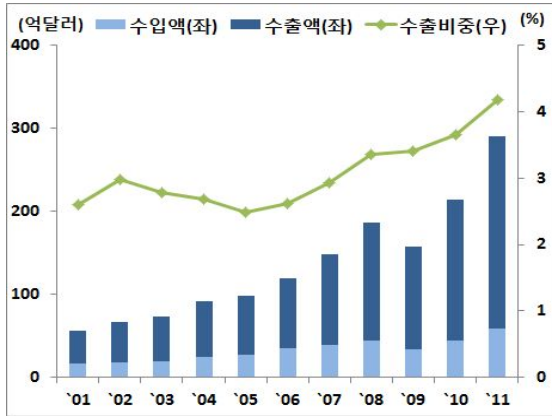
3. 한국경제와의 연관성

○ (수출비중 및 투자규모 확대) 한국의 바트 경제권에 대한 수출비중과 투자 규모 모두 증가 추세

- **(수출비중)** 상호 교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한국의 바트 경제권 수출비중 또한 상승
 - 한국의 바트경제권 수출이 증가하여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1년 2.6%에서 2011년 4.2%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1~8월) 현재 4.5%를 기록
 - 수입도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수준에 그침
 - 주요 수출 품목은 태국과 베트남에 철강·자동차 부품·반도체, 미얀마 건설광산기계류, 캄보디아 편직물, 라오스 중고자동차 등이며 각국에서 목재류, 의류, 농수산물 등을 주로 수입함
- **(주요국·경제권 수출증가율 비교)** 2008년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비교시 한국의 바트 경제권에 대한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짐
 - 한국의 바트 경제권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2001-07년 15.0%에서 2008-11년 20.8%로 증가
 - 주요 수출지역인 대중국 수출증가세가 23.7%에서 13.1%로 둔화되고 EU지역은 13.3%에서 -0.1%로 감소한 상황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바트 경제권은 금융위기의 영향이 낮았던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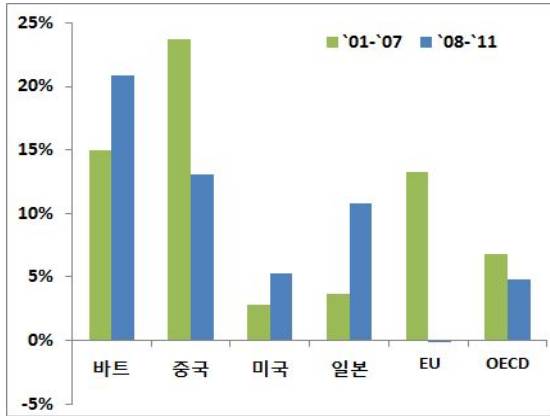
41) 파타니(Pattani), 사툰(Satun), 알리(Yala), 나라티왓(Narathiwat) 지역이 분쟁 중심 지역.

<한국의 바트 경제권 수출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계산.

<한국의 주요국·경제권 수출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계산.
주: 연평균증가율 기준.

- **(투자현황)** 한국기업들은 제조업 생산기지 건설을 주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의 투자 규모가 확대됨

- 한국 기업들의 주요 투자분야를 살펴보면 태국과 베트남은 제조업, 캄보디아는 부동산 및 임대업, 라오스는 건설업, 미얀마는 광업 중심으로 진출함
- 최근 삼성전자·포스코·두산중공업 등 대기업의 생산공장 건설로 인해 베트남에 대한 투자 규모(약 78억달러)가 확대되는 상황임

<한국 기업의 바트 경제권 투자현황>

	신고건수 (건)	법인수 (개)	투자금액 (천달러)
태국	1,739	674	1,793,085
베트남	6,377	2,402	7,793,518
캄보디아	1,952	654	1,827,950
라오스	160	73	176,515
미얀마	160	69	1,264,72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주1: 2012년 6월 기준, 누계기준
주2: 법인수는 신설법인수의 누적수치로, 철수한 법인수는 고려되지 않음.

<한국 기업의 바트 경제권 주요진출업종>

	업종	투자금액 (천달러)
태국	제조업	1,241,917
베트남	제조업	4,207,331
캄보디아	부동산업 및 임대업	772,323
라오스	건설업	64,072
미얀마	광업	1,028,32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주1: 2012년 6월 기준, 누계기준
주2: 통계청 표준사업분류 기준.

4. 시사점

첫째, 정부는 바트 경제권의 부상이 한국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역내 국가들과의 외교·경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 바트 경제권 각국의 개방·개혁조치가 활발해지면서 최근 해외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당 지역의 성장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특히 미얀마의 경우 장기간의 군부 통치에서 벗어나 민주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 제재 조치가 해제된 상황
- 정부는 바트 경제권 부상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각 국과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됨
 - 바트 경제권 국가들은 한국의 경제 개발·발전 경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 우호적 협력 관계를 구축·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둘째, 현 단계에서는 바트 경제권의 시장 규모보다는 생산 기지로서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한 진출 모색이 요구된다.

- 이 지역은 중국·인도 시장과 접근성이 높고 임금경쟁력이 우수하여 중국에 이어 향후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최근 중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자국 기업에 유리한 행정제도, 노동자의 높은 이직률 등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검토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셋째, 바트 경제권 진출 여부를 결정할 때는 우수한 임금경쟁력 뿐만 아니라 취약한 인프라 기반, 열악한 기업환경, 사회 내 부정부패 또한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 태국을 제외하면 철도, 도로, 전력 및 통신 시설 등이 부족하여 생산기지 건설 시 높은 물류비용이 발생함
-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 부패가 만연하며 사업등록, 세제, 투자자 보호 등 기업 환경 또한 타국에 비해 우수한 편이 아님
- 또한 해당 국가 진출 여부를 결정할 때 저렴한 임금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임금 대비 생산력 또한 검토해야 함
- 하지만 최근 각 국 정부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외자본 유치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역으로 국내 인프라 기업들에게 사업 진출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음

넷째, 해당 지역 고유의 높은 정치·외교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진출 국내 기업들의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 바트 경제권 국가들 간에는 역사적,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요인으로 인해 국경 지역 분쟁, 내전, 쿠데타 등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
- 따라서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최근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노력이 요구됨 **HRI**

백다미 연구원 (dm100@hri.co.kr, 02-2072-6239)

【별첨】 바트 경제권 국가별 개요

1. 캄보디아

① 개황

항목	내용
국명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정부형태	입헌군주국 / 내각책임제
위치	인도차이나반도 동남부에 위치, 베트남·라오스·태국과 접경
면적	181,000km ² (한국의 약 1.8배)
수도	프놈펜(Phnom Penh, 인구 약 150만명)
인구	약 1,500만명
민족	크메르족 90%, 베트남족 5%, 기타 5%
언어	크메르어(공용어) 95%, 영어, 프랑스어
화폐	리엘(Riel) / 1\$ = 4,050Riel (2011년 기준)
종교	불교 95%, 기타 5%
시차	한국보다 2시간 늦음(GMT+7)

자료 : CIA.

② 경제지표

	단위	'05	'06	'07	'08	'09	'10	'11
국내총생산(실질)	100만\$	6,293	7,275	8,639	10,352	10,414	11,255	12,890
1인당GDP(실질)	\$	455	514	603	711	703	753	853
경제성장률	%	13.3	10.8	10.2	6.7	0.1	6.1	7.1
물가상승률	%	6.3	6.1	7.7	25.0	-0.7	4.0	5.5
실업률	%	-	-	-	-	-	-	-
총투자/GDP	%	20.2	22.5	21.2	18.6	21.3	17.3	22.0
총저축/GDP	%	16.4	21.9	19.3	13.0	16.8	13.4	13.9
재정수지/GDP	%	-0.4	-0.2	-0.7	0.3	-4.2	-2.8	-4.1
경상수지		-727	-949	-900	-1,800	-1,634	-1,648	-2,350
수출	100만\$	3,200	3,800	4,400	4,708	4,196	5,143	6,950
수입		3,927	4,749	5,300	6,508	5,830	6,791	9,300
외환보유액	100만\$	1,159	1,411	2,143	2,641	3,288	3,802	4,069
외채	100만\$	3,515	3,527	3,761	4,215	4,364	4,676	-

자료 : IMF.

2. 라오스

① 개황

항목	내용
국명	라오 인민민주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 Lao PDR)
정부형태	인민민주공화제(인민혁명당이 유일정당)
위치	인도차이나반도 중앙에 위치 중국·미얀마·캄보디아·태국·베트남과 접경
면적	237,000km ² (한국의 약 2.4배)
수도	비엔티안(Vientiane, 인구 약 80만명)
인구	약 630만명
민족	라오족 55%, 크모족 11%, 몽족 8%, 기타 100여개 소수민족 26%
언어	라오어(공용어), 영어, 프랑스어, 기타 소수민족언어
화폐	킵(Kip) / 1\$ = 8,000Kip (2011년 기준)
종교	불교 67%, 기독교 1%, 정령신앙 및 기타 32%
시차	한국보다 2시간 늦음(GMT+7)

자료 : CIA.

② 경제지표

	단위	'05	'06	'07	'08	'09	'10	'11
국내총생산(실질)	100 만\$	2,726	3,564	4,226	5,293	5,597	6,855	8,302
1인당GDP(실질)	\$	474	610	712	879	916	1,105	1,320
경제성장률	%	6.8	8.6	7.8	7.8	7.5	8.1	8.0
물가상승률	%	7.2	6.8	4.5	7.6	0.0	6.0	7.6
실업률	%
총투자/GDP	%
총저축/GDP	%
재정수지/GDP	%	-3.6	-3.1	-2.6	-3.8	-6.5	-4.4	-2.9
경상수지		-329	-178	-144	-313	-408	-314	-250
수출	100 만\$	553	882	923	1,092	1,053	1,746	2,400
수입		882	1,060	1,067	1,405	1,461	2,060	2,650
외환보유액	100 만\$	239	336	540	639	619	713	.
외채	100 만\$	2,844	3,377	4,388	5,008	5,458	5,559	.

자료 : IMF.

3. 미얀마

① 개황

항목	내용
국명	미얀마 연방 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정부형태	대통령제
위치	인도차이나반도 북서부에 위치 태국·라오스·중국·방글라데시·인도와 접경
면적	677,000km ² (한국의 약 6.8배)
수도	네피도(Nay Pyi Taw, 인구 99만명)
주요도시	양곤(Yangon, 680만), 만달레이(Mandalay, 800만)
인구	약 6,200만명
민족	버마족 70%, 소수민족 25%, 기타 5%
언어	미얀마어(공용어), 태국어, 중국어, 영어
화폐	짜트(Kyat) / 1\$ = 5,6Kyat (2011년 기준)
종교	불교 90%, 기독교 5%, 이슬람교 4%, 기타 1%
시차	한국보다 2시간 늦음(GMT+7)

자료 : CIA.

② 경제지표

	단위	'05	'06	'07	'08	'09	'10	'11
국내총생산(실질)	100만\$	11,987	14,503	20,182	31,367	35,225	45,380	51,444
1인당GDP(실질)	\$	216	257	350	533	587	742	824
경제성장률	%	13.6	13.1	12.0	3.6	5.1	5.3	5.5
물가상승률	%	10.7	26.3	32.9	22.5	8.2	8.2	4.0
실업률	%	4.0	4.0	4.0	4.0	4.0	4.0	4.0
총투자/GDP	%	13.2	13.7	14.6	13.1	14.7	16.0	14.7
총저축/GDP	%	18.8	23.7	17.6	12.9	14.7	16.8	17.5
재정수지/GDP	%	-1.5	-2.3	-2.0	-0.7	-3.5	-5.1	-5.9
경상수지		1,868	2,001	3,006	2,626	2,314	3,901	219
수출	100만\$	3,776	4,539	6,253	6,882	6,662	8,661	9,238
수입		1,908	2,538	3,247	4,256	4,348	4,760	9,019
외환보유액	100만\$	782	1,248	3,102	3,730	5,265	5,729	7,016
외채	100만\$	7,014	7,264	8,241	8,002	8,186	6,352	.

자료 : IMF.

4. 태국

① 개황

항목	내용
국명	타이 왕국(Kingdom of Thailand)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 내각책임제
위치	인도차이나반도 서부에 위치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와 접경
면적	513,000km ² (한국의 약 5.1배)
수도	방콕(Bangkok, 인구 약 700만명)
인구	약 6,400만명
민족	타이족 75%, 화교 14%, 기타 11%
언어	타이어(공용어), 영어
화폐	바트(Baht) / 1\$ = 30.5Baht (2011년 기준)
종교	불교 95%, 이슬람교 4%, 기독교 및 기타 1%
시차	한국보다 2시간 늦음(GMT+7)

자료 : CIA.

② 경제지표

	단위	'05	'06	'07	'08	'09	'10	'11
국내총생산(실질)	100만\$	176,352	207,089	246,977	272,578	263,711	318,908	345,672
1인당GDP(실질)	\$	2,825	3,296	3,918	4,300	4,151	4,992	5,395
경제성장률	%	4.6	5.1	5.1	2.6	-2.3	7.8	0.1
물가상승률	%	4.5	4.6	2.2	5.5	-0.8	3.3	3.8
실업률	%	1.9	1.5	1.4	1.4	1.5	1.0	0.7
총투자/GDP	%	31.4	28.3	26.4	29.1	21.2	25.9	26.6
총저축/GDP	%	27.1	29.4	32.8	29.9	29.5	30.1	30.1
재정수지/GDP	%	1.5	2.2	0.2	0.1	-3.2	-0.8	-1.6
경상수지		-7,980	2,080	12,564	-3,271	17,176	10,250	-2,446
수출	100만\$	110,178	130,803	153,858	175,897	151,910	195,371	226,402
수입		118,158	128,723	141,294	179,168	134,734	185,121	228,848
외환보유액	100만\$	52,065	66,985	87,455	111,008	138,418	172,129	175,124
외채	100만\$	46,362	45,901	45,306	49,839	57,886	71,263	-

자료 : IMF.

5. 베트남

① 개황

항목	내용
국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정부형태	사회주의공화제(공산당이 유일정당)
위치	인도차이나반도 동부에 위치, 중국·라오스·캄보디아와 접경
면적	331,000km ² (한국의 약 3.3배)
수도	하노이(Hanoi, 인구 약 270만명)
주요도시	호치민시(590만명), 하이퐁시(190만명), 다낭시(80만명)
인구	약 8,900만명
민족	베트남족 89%, 기타 53여개 소수민족 11%
언어	베트남어(공용어), 영어, 프랑스어, 기타 소수민족언어
화폐	동(Dong) / 1\$ = 20,500Dong (2011년 기준)
종교	무교 80%, 불교 10%, 가톨릭 7%, 기타 3%
시차	한국보다 2시간 늦음(GMT+7)

자료 : CIA.

② 경제지표

	단위	'05	'06	'07	'08	'09	'10	'11
국내총생산(실질)	100만\$	52,931	60,933	71,112	90,302	93,170	103,575	122,722
1인당GDP(실질)	\$	637	724	835	1048	1068	1174	1374
경제성장률	%	8.4	8.2	8.5	6.3	5.3	6.8	5.9
물가상승률	%	8.4	7.5	8.3	23.1	6.7	9.2	18.7
실업률	%	5.3	4.8	4.6	4.7	4.6	4.3	4.5
총투자/GDP	%	35.6	36.8	43.1	39.7	38.1	39.0	29.9
총저축/GDP	%	34.5	36.5	33.3	27.8	31.6	34.9	30.0
재정수지/GDP	%	-1.3	0.3	-2.2	-0.5	-7.2	-3.1	-3.2
경상수지		-4,319	-5,189	-14,121	-18,029	-12,853	-11,542	-7,135
수출	100만\$	32,442	39,826	48,561	62,685	57,096	72,237	96,906
수입		36,761	45,015	62,682	80,714	69,949	83,779	104,041
외환보유액	100만\$	9,216	13,591	23,748	24,176	16,803	12,926	14,046
외채	100만\$	18,992	18,577	22,713	24,954	28,718	35,139	

자료 : IMF.

(여 백)

한국의 제2교역권으로 부상하는 중동 GCC 경제권

1. GCC 경제권의 부상

○ (개요)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는 중동 걸프만 연안의 6개 아랍국가가 상호 협력을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 아라비아반도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등 6개 아랍국가가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
 - 1970년대말~1980년대초에 걸프만 주변에서 발생한 정치적 불안(이란 혁명, 구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 이란과 이라크 전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설립
 - 상대적인 측면에서 중동 지역 내에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의 협의체
- GCC 소속 국가들은 정치·종교·문화·언어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성을 지니는 석유자원이 풍부한 국가
 - 정치적으로 세습군주제를 유지하고 있고, 이슬람교를 믿으며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공통점 보유
- GCC 국가들의 총 면적은 한국의 약 26배에 해당하지만, 인구는 80%에 불과

<GCC 소속 국가 위치>



<GCC 소속 국가 개요(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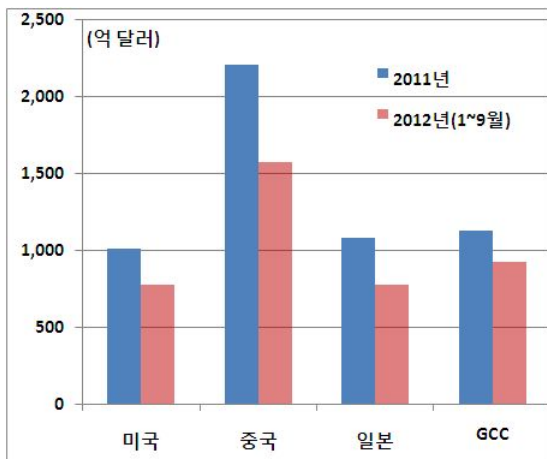
가입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위치	아라비아 반도
종교/언어	이슬람교/아랍어
인구	약 3,900만명
면적	약 260만 km ²
정부형태	세습 군주제
주요자원	석유, 천연가스

자료: CIA, IMF.

○ (중요성) GCC 경제권은 중국에 이은 한국의 제2교역권이고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주요 수입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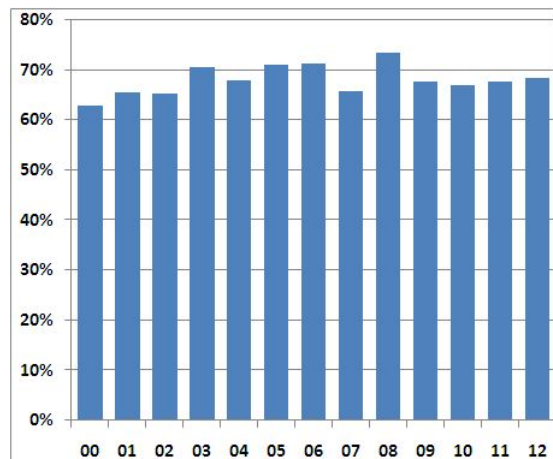
- 수출과 수입을 합한 총 교역규모 측면에서 GCC 경제권은 중국에 이은 제 2의 교역권으로 부상
 - GCC와의 무역 규모는 한국의 총 수출입 중에서 약 10.4%의 비중을 차지하여 일본(10.0%)과 미국(9.3%)을 앞서고 있음
 - 2011년 한국과 GCC 경제권과의 교역규모는 1,127억 달러에 해당하며, 중국(2,206억 달러)에 이은 두 번째 규모의 교역 대상지
 - 국가별로 사우디아라비아(439억 달러), UAE(220억 달러), 카타르(212억 달러), 쿠웨이트(184억 달러), 오만(63억 달러), 바레인(9억 달러) 순서⁴³⁾
- 한국은 GCC 경제권으로부터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음
 - 한국은 필수원자재인 원유의 약 68%를 GCC 6개국들로부터 수입하여 사용
 - 세부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의존도가 약 33% 비중을 차지하고 쿠웨이트(14%), 카타르(10%), UAE(10%), 오만(2%) 순서⁴⁴⁾

<GCC 경제권과의 교역규모>



자료: KITA.

<한국의 대 GCC 원유수입 의존도>



자료: KITA

주: 2012년은 1~9월 기준.

42) GCC 소속 개별 국가들에 대한 개요는 <별첨> 참조.

43) GCC 소속 개별 국가들과의 교역규모는 <별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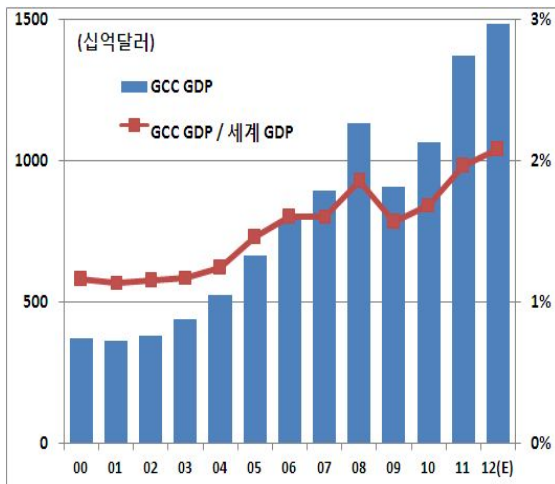
44) GCC 소속 개별 국가로부터의 원유수입 규모는 <별첨> 참조.

2. GCC 경제 및 산업의 특징

○ 2012년 명목 GDP 기준으로 GCC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약 1.3배 수준

- GCC의 경제규모는 2012년 기준(추정치)으로 14,846억 달러에 해당하며, 이는 한국의 GDP (11,513억 달러)보다 약 29% 정도 큰 수준
 - 2007년까지는 한국의 경제규모가 GCC의 규모를 능가하였으나 2008년 이후 역전 허용
 - GCC의 명목 GDP는 2000~2012년까지 연평균 약 13%의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세계 경제규모의 약 2.1%를 차지(한국은 약 1.6% 비중)
- 2000년 이후 GCC 소속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이나 세계 전체보다 양호한 경제성장률 달성
 - 카타르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상관없이 가장 높은 수준 유지
 - 쿠웨이트, UAE, 바레인의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크게 하락

<GCC 경제권 명목 GDP 규모>



자료: IMF
주: 2012년은 추정치.

<GCC국가·한국·세계 경제성장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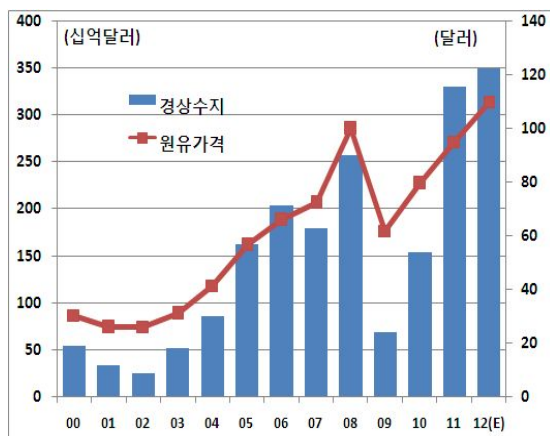
구분	연평균 경제 성장률	
	2000~2008	2009~2012
사우디아라비아	3.7%	4.5%
쿠웨이트	7.1%	2.1%
UAE	7.6%	1.4%
카타르	12.4%	12.2%
오만	5.0%	4.8%
바레인	6.3%	3.0%
한국	4.9%	3.2%
전세계	4.1%	2.9%

자료: IMF
주: 2012년은 추정치.

○ 원유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석유수출국인 GCC 국가들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 확보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원유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GCC 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는 원유가격과 유사한 패턴 형성
 - GCC 6개국의 2000~2011년까지 경상수지 흑자 누적액은 약 1조 6,000억 달러에 상당함
 - 특히 원유가격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2011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사상 최고치(약 3,304억 달러) 기록
 - (*2012년 경상수지 흑자액은 2011년에 비해 6% 증가한 3,503억 달러로 추정)
- GCC 국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일머니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음
 - GCC 소속 국가들은 원유수출을 기반으로 형성한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추진해 옴
 - 세계경제가 회복하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유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전망
 - 그러므로 자원고갈에 대비하여 GCC 국가들은 축적된 오일머니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함

<GCC 경제권 경상수지 규모>



자료: IMF, BP(2012년은 추정치)
 주: 원유가격은 두바이유 가격 기준.

<GCC 소속 개별 국가들의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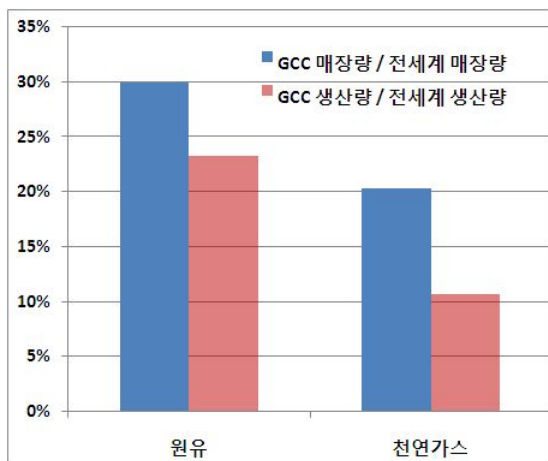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10	'11	'12(E)
사우디아라비아	668	1,585	1,713
쿠웨이트	383	708	770
UAE	91	333	336
카타르	339	524	546
오만	51	122	112
바레인	8	32	26
GCC(6개국)	1,540	3,304	3,503

자료: IMF(2012년은 추정치).

○ GCC 국가들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자원 보유국으로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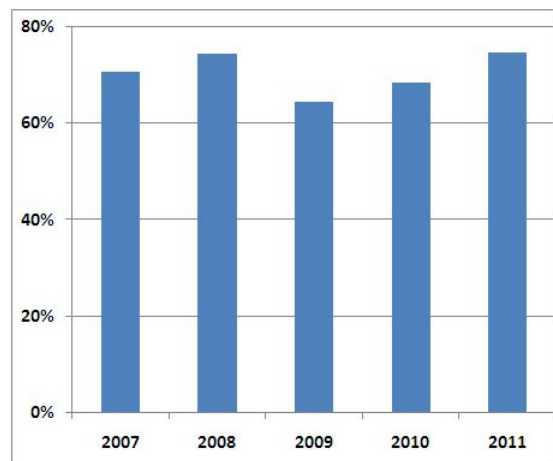
- GCC 경제권 소속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전세계 최대의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 지역에 위치
 - GCC의 원유 매장량 및 생산량 비중은 각각 30%와 23%이며, 전세계 천연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의 20%와 11% 차지⁴⁵⁾
 - GCC 6개국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가 석유수출국기구(OPEC) 소속이고, 이들 4개국의 생산량은 OPEC 전체 생산량의 53% 차지
- GCC 소속 국가들은 원유수출이 총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의존 경제에 해당
 -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GCC 소속 6개국은 총수출의 약 75%가 원유수출을 통해 발생
 - 총수출 중에서 원유수출에 대한 의존도는 카타르(98%), 쿠웨이트(93%), 사우디아라비아(84%), 오만(68%), 바레인(67%), UAE(44%) 순서⁴⁶⁾

<GCC의 원유, 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 비중>



자료: BP(2011년 기준).

<GCC 경제권 원유수출/총수출 비중>



자료: IMF, OPEC.

45) GCC 소속 개별 국가들의 원유·천연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은 <별첨> 참조.

46) GCC 소속 개별 국가들의 원유수출 / 총수출 비중은 <별첨> 참조.

○ GCC 경제규모에 비해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비중은 낮은 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다각화 전략 실시

- 제조업(10%)이나 서비스업(40%)의 비중은 경제 규모에 비해 낮은 편
 - GCC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은 각각 28%, 52%에 해당
 - 최근의 지속적인 유가상승은 석유산업의 비중을 높이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을 낮추는 결과 초래
- GCC 소속 각 국 정부는 에너지 자원 고갈에 대비하여 다양한 산업다각화 정책을 실시 중에 있음
 - 석유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산업다각화 정책을 실행 중
 - 원유나 천연가스과 관련된 석유화학산업뿐만 아니라 교육·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육성을 위해 노력 중

<GCC 국가의 제조업, 서비스업 비중>

구분	산업별 비중	
	제조업	서비스업
사우디아라비아	10%	36%
쿠웨이트	5%	52%
UAE	10%	44%
카타르	11%	28%
오만	10%	48%
바레인	17%	42%
GCC(6개국)	10%	40%

자료: UN, CIA(2010년 기준).

<GCC 소속 국가별 산업다각화 정책>

국가	중점육성분야	투입예산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의료, 교육, 금융, SOC, 건설자재	3,385억 달러 (2014년까지)
쿠웨이트	석유화학, 건설, SOC, 관광, 정보통신, 청정에너지	1,040억 달러 (2014년까지)
UAE	석유화학, 금속, 의료, 관광, 금융, 정보통신, 신재생에너지	3,000억 달러 (2030년까지)
카타르	에너지, 교육, 금융, 관광, 정보통신	1,380억 달러 (2012년까지)
오만	SOC, 산업단지건설	370억 달러 (2015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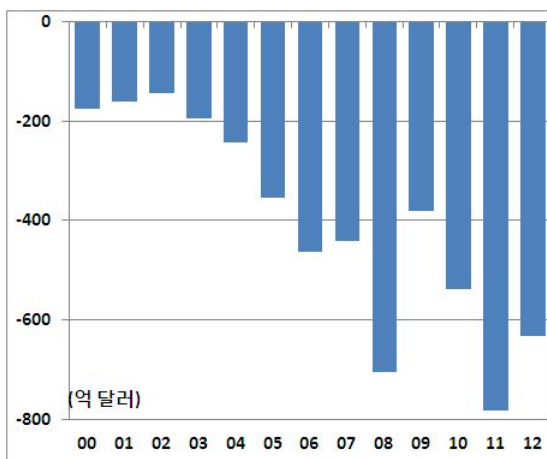
자료: 산업연구원,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3. GCC 경제권과 한국경제

○ 한국과 GCC 경제권 간의 무역불균형(만성적 무역수지 적자) 현상 심각

- 한국의 GCC로부터 수입 규모가 GCC에 대한 수출 규모의 5배 이상
 - 한국이 GCC로부터 수입한 규모는 수출한 규모의 약 5.5배(2011년) 수준이고 2012년(1~9월)에도 약 5.4배
 - 무역불균형은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의 수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현재(2012년 9월)까지 누적 무역적자 규모는 약 5,212억 달러 규모⁴⁷⁾ (*참고로 같은 기간 일본과의 누적 무역적자 규모는 약 3,040억 달러)
 - 원유의 수입을 GCC 국가들에 의존하는 한, 한국의 수출규모가 증가하면 GCC로부터의 수입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발생
-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등의 제조업 상품
 - 한국이 전세계 다른 지역에 수출하는 주요 제품들과 유사하게 승용차, 선박, 무선전화기 등이 상위 순위에 위치
 - 개별 국가들에 대한 수출실적(2011년)을 살펴보면, 총 173억 달러 중에서 UAE(42%), 사우디아라비아(40%), 쿠웨이트(8%)가 대부분을 차지

<대 GCC 무역수지 적자 규모>



자료: KITA.
주: 2012년은 1~9월 기준.

<대 GCC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달러)

순위	2010년		2011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승용차	2,402	승용차	3,395
2	선박	939	무선전화기	600
3	무선전화기	534	선박	591
4	변압기	416	건설중장비	569
5	전선	369	가열난방기	488

자료: K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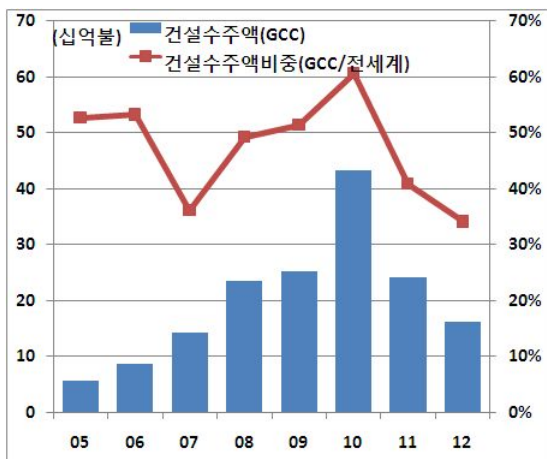
47) GCC 소속 개별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별첨> 참조.

○ GCC 국가들은 한국 건설업체들의 최대 수주 시장이며, GCC로부터의 건설 수주는 만성적 무역적자 해소에 도움

- 전체 해외건설 수주 중에서 GCC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40~60% 수준
 - GCC로부터의 건설 수주액은 2005년 57억 달러에서 2011년 242억 달러로 연평균 23%씩 성장
 - 한국이 중동지역으로부터 수주하는 건설공사의 80% 이상이 GCC 국가들로부터 발생
 - 2011년 건설 수주액 감소의 주요 원인은 원전수주 등으로 인해 급증했던 UAE로부터의 건설 수주액이 급감하였기 때문
- (*2012년 1~10월 수주액은 161억 달러로 전년도 동기간(208억 달러)에 비해 감소)

- 한국은 GCC로부터의 해외건설 수주를 통해 원유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의 일부를 상쇄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전망
 - 2010년 해외건설 수주액(434억 달러)은 무역적자의 81%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2011년 수주액(242억 달러)은 무역적자의 31%에 해당하는 수준
 -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이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의 증가로 인해 GCC 국가들의 건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중동에서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 건설업체들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

<GCC로부터의 건설 수주액 규모>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주: 2012년은 1~10월 기준.

< GCC 소속 국가별 건설수주 실적 >

구분	건설 수주액(억 달러)		
	'10	'11	'12
사우디아라비아	105	166	109
쿠웨이트	49	16	7
UAE	256	21	29
카타르	12	15	18
오만	8	20	0.3
바레인	4	4	0.1
GCC(6개국)	434	242	161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주: 2012년은 1~10월 기준.

4. 시사점

첫째, 한국의 제2교역권으로 부상한 GCC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협력 증진 및 국내기업 진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안정적인 수출여건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한국과 GCC간의 FTA 조속한 타결 필요
- GCC 국가들의 풍부한 자본력과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결합하여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 가능
- GCC 국가들이 시행하는 산업다각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조업, 건설업 등 국내 기업의 진출 강화

둘째, 다양한 지역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원을 다변화하여 자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만성적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 민주화의 확산, 이스라엘과의 분쟁, 이란의 핵개발 등 다양한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음을 인지하고, 원유 수입 지역 다변화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
- GCC 경제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만성적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방안 강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등 구체적 조치 필요

셋째, GCC 국가들과의 교류를 한 차원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한국과 GCC 경제권은 상호간의 활발한 경제 교류에 비해 사회·문화적 교류는 미흡한 실정

- GCC 경제권과의 교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사회·문화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 육성
- GCC 지역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은 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함께 중동의 사회·문화적 관습이나 제도, 법률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 **HRI**

안중기 연구원 (joonggiahn@hri.co.kr, 02-2072-6242)

【별첨】 GCC 경제권 관련 제 표

<GCC 소속 국가들 개요>

	단위	사우디 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면적	천 km ²	2,150	84	12	18	310	0.8
인구	백만명	26.1	5.1	0.8	2.6	3.0	1.2
GDP	십억달러	657	362	185	175	80	28
1인당 GDP	달러	22,823	65,377	100,378	46,142	25,152	23,027
경제 성장률	%	6.0	4.0	6.3	6.4	5.0	2.0
물가 상승률	%	4.9	0.7	2.0	4.3	3.2	0.6
경상 수지	십억달러	171.3	33.6	54.6	80.0	11.2	2.6
수도	-	리야드	아부다비	도하	쿠웨이트 시티	무스카트	마나마

자료: IMF(2012년 추정치 기준), CIA Factbook(2011).

<GCC 소속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

(단위: 억 달러)

	사우디 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07	251.9	163.6	96.2	100.5	43.6	5.2
08	390.3	250.0	162.8	128.7	65.8	7.9
09	235.9	142.9	97.0	87.4	46.6	6.0
10	313.8	176.6	123.9	119.0	47.6	8.6
11	439.4	220.3	212.2	183.9	62.7	8.9
12	361.2	163.0	198.5	148.6	44.5	8.3

자료: KITA

주: 2012년은 1~9월 기준.

<한국의 GCC 개별 국가로부터 원유수입 규모>

(단위: 억 달러)

연도 가	국	사우디 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00		78.0	36.2	13.0	18.6	13.1
01		66.9	33.9	10.7	15.1	13.1
02		62.6	28.8	8.7	15.1	10.0
03		74.1	41.9	14.0	22.0	10.9
04		93.6	54.6	16.8	26.7	11.6
05		132.3	78.0	27.6	45.3	19.6
06		174.9	105.0	31.7	64.7	22.1
07		183.2	102.4	33.5	67.8	9.7
08		286.5	165.5	62.1	101.2	15.8
09		167.7	72.8	30.3	62.6	10.5
10		228.7	87.8	49.4	84.8	8.4
11		329.9	98.0	100.1	138.1	15.2
12		265.6	71.9	88.1	118.0	8.0

자료: KITA

주: 2012년은 1~9월 기준.

<GCC 소속 국가들의 원유/천연가스 매장량, 생산량>

		사우디 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원유	생산량(백만톤)	525.8	150.1	71.1	140.0	42.1	-
	매장량(십억배럴)	265.4	97.8	24.7	101.5	5.5	-
천연가스	생산량(백만톤)	89.3	46.6	132.2	11.7	23.9	11.7
	매장량(10^{12} 입방피트)	8.2	6.1	25.0	1.8	0.9	0.3

자료: BP(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Report 2012)

주: 2011년 기준.

<GCC 국가별 원유수출/총수출 비중>

연도 \ 국가	사우디 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07	82.36%	41.34%	95.91%	94.50%	71.00%	62.34%
08	87.05%	43.06%	110.73%	94.44%	72.50%	64.93%
09	80.70%	35.54%	87.63%	90.61%	61.73%	56.75%
10	82.21%	35.16%	99.79%	92.19%	65.55%	56.93%
11	84.42%	44.19%	98.47%	93.49%	67.74%	67.49%

자료: IMF, OPEC.

<한국의 GCC 소속 국가들에 대한 무역 수지 적자>

(단위: 억 달러)

연도 \ 국가	사우디 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00	- 83.8	- 27.1	- 20.9	- 24.7	- 15.7	- 1.4
01	- 67.8	- 24.6	- 23.5	- 20.7	- 21.6	- 0.8
02	- 62.9	- 19.4	- 20.2	- 20.5	- 17.9	- 0.9
03	- 78.6	- 35.5	- 27.8	- 29.0	- 22.2	- 2.0
04	- 100.9	- 47.0	- 34.2	- 34.1	- 23.2	- 2.1
05	- 140.1	- 72.9	- 50.8	- 55.2	- 34.0	- 1.9
06	- 175.7	- 100.3	- 62.3	- 74.6	- 47.8	- 2.2
07	- 171.4	- 89.5	- 72.9	- 74.4	- 32.7	- 1.2
08	- 285.3	- 135.0	- 124.7	- 113.8	- 48.1	2.1
09	- 158.8	- 43.3	- 70.8	- 72.5	- 35.9	- 0.4
10	- 222.6	- 66.8	- 114.4	- 98.0	- 34.3	- 3.2
11	- 300.1	- 74.9	- 202.8	- 155.3	- 44.6	- 4.3
12	- 228.0	- 58.7	- 189.7	- 122.9	- 30.9	- 3.2
누적 적자액	- 2,076.1	- 795.2	- 1,015.1	- 895.7	- 408.9	- 21.4

자료: KITA

주: 2012년은 1~9월 기준.

아프리카의 미개척 시장, ECOWAS 경제권

1. ECOWAS 개요

○ 서아프리카 경제 협력체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국가들은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

- 서아프리카 지역 15개 국가는 지역 경제 협력체 ECOWAS를 결성하여 회원국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 동반 발전을 모색
 - ECOWAS는 1975년 라고스 조약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 본부를 둠
 - 현재 회원국은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등 총 15개 국가
- ECOWAS는 서아프리카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풍부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는 추세
 - 신흥국 자원 수요 급증에 따른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ECOWAS 지역에 해외 자본의 유입이 본격화
 - 특히 나이지리아, 가나가 주축이 되어 ECOWAS의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

<ECOWAS 위치>



<ECOWAS 주요 지표>

	단위	내용
인구	억명	2.99
면적	만km ²	610
언어	-	프랑스어, 영어, 토착어
GDP(실질)	억달러	3,420
FDI	억달러	113
수출	억달러	1,330
수입	억달러	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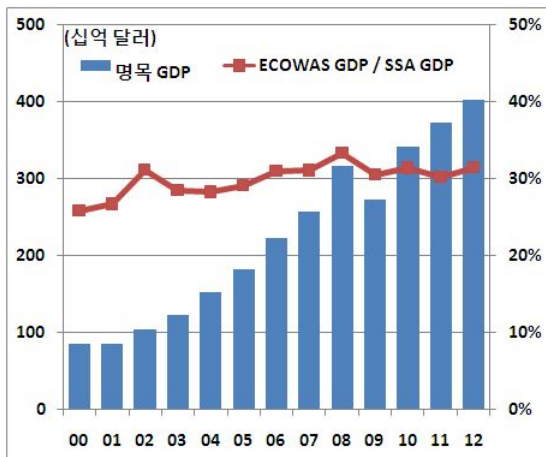
자료: IMF, CIA.

2. ECOWAS 경제 현황 및 산업 구조

○ ECOWAS의 경제규모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 GDP의 31%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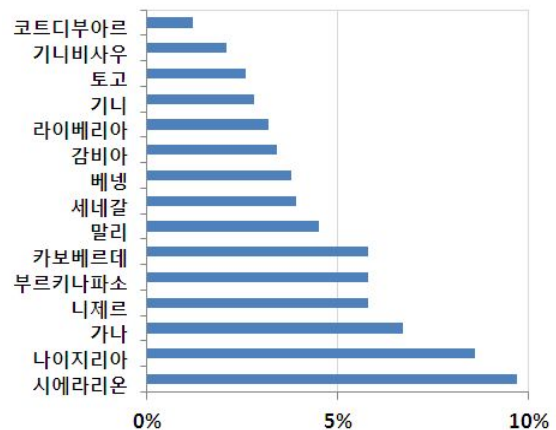
- ECOWAS의 명목 GDP 규모는 2012년 기준(추정치)으로 약 4,030억 달러에 해당하며, 이는 SSA 전체(12,810억 달러)의 31% 수준
 - ECOWAS의 명목 GDP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2%의 고성장을 기록 중이고, SSA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2000년)에서 31%(2012년)로 증가
 - 나이지리아(68%), 가나(10%), 코트디부아르(6%) 등 3개 국가가 ECOWAS 경제 전체의 약 84%를 차지
 - ECOWAS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16%(2000년)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5%(2012년) 수준에 도달
- 2000년 이후 ECOWAS의 일부 국가는 신흥국에 버금가는 높은 성장률 유지
 - 2000~2012년 SSA의 연평균성장률(5.6%)을 기준으로 고성장과 저성장을 구분
 -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등 6개국이 상대적으로 고성장 국가로 분류된 반면 코트디부아르 등 9개국은 저성장 국가

<ECOWAS 경제권 명목 GDP 규모>



자료: IMF
 주: 1) 2012년은 추정치
 2) SSA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미.

<ECOWAS 회원국 성장률(2000~12년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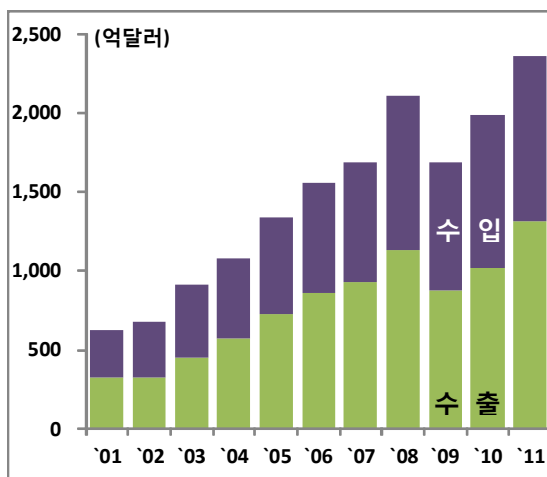
자료: IMF(2012년은 추정치)
 주: 2000~2012년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

○ (무역 및 투자) ECOWAS의 교역 규모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최근
 근에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급증

- (무역) ECOWAS 지역은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며 수출, 수입 증가로
 교역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
 - ECOWAS 국가들의 2011년 수출액은 약 1,330억달러, 수입액은 1,080억달러
 로 총 교역 규모는 약 2,400억달러 수준
 - 2009년을 제외하고는 교역 규모가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2004년
 이후 꾸준히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
 - ECOWAS의 전체 교역 규모 중 나이지리아(68.6%)와 가나(13.6%)의 비중이
 80%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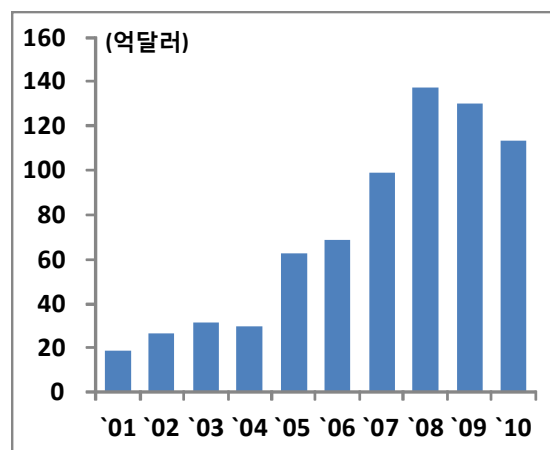
- (외국인 직접투자) ECOWAS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005년 이후 빠르게
 급증하여 경제 성장의 주요 요소인 자본 축적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
 - ECOWAS 국가들의 외국인 직접투자액(net inflow 기준)은 2000년대 초반까
 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이후 급증하여 2010년 113억 달러를 기록
 - 전세계 경제 침체의 여파로 2008년 137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소폭 감소했으
 나 2005년 이후 절대 규모액 자체가 크게 증가한 상황
 - ECOWAS의 외국인 직접투자자는 나이지리아(53.5%)와 가나(22.3%)에 집중

<ECOWAS의 무역 거래액 추이>



자료: World Bank.

<ECOWAS의 외국인 직접투자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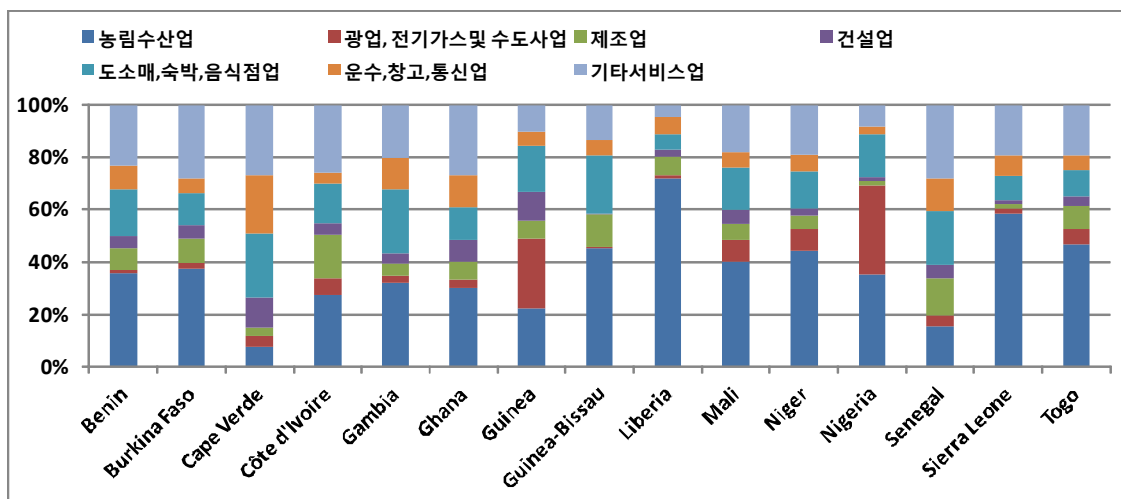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주: 투자 순 유입액(net inflow)기준.

○ (산업구조) ECOWAS 국가들의 제조업 기반은 아직 취약한 수준이며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광업 및 서비스업 부문이 발달

- ECOWAS 국가들의 총 산업 구조는 전반적으로 농림수산업 비중이 높은 편이며 제조업 기반은 아직 취약한 것으로 판단
 - ECOWAS 국가들의 산업 부문별 부가가치 비중은 1차 산업(농림수산업) 30%, 2차 산업(광공업) 30%, 3차 산업(서비스업) 40% 수준
 - 2차 산업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5% 수준에 불과하며 약 25%가 광업 및 전기·가스·수도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제조업 기반은 취약한 상황
- 1차 산업 중심의 국가들이 대다수인 가운데 국가별 산업 발달의 차이로 일부 국가들은 광업 및 서비스업의 성장이 주목
 -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은 대표적인 농업국가로 1차 산업 비중이 총 부가가치의 60% 이상을 차지
 - 나이지리아, 가나는 광업 부문의 비중이 30% 이상으로 풍부한 석유 및 광물 자원이 경제 성장을 견인
 - 세네갈과 코트디부아르는 1차 산업 비중이 10% 수준에 그친 반면 서비스업 부문의 비중은 60% 이상을 기록

<ECOWAS 국가별 산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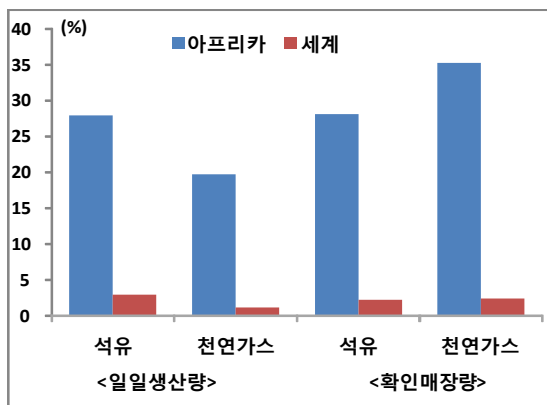


자료: UN.
주: 2010년 기준.

○ (매장 자원)⁴⁸⁾ 서아프리카 지역은 특히 기니만의 유전 개발 가능성이 높고 자원 탐사가 본격화되면 에너지·광물 자원의 추가 발견이 기대

- (에너지 자원) 나이지리아는 원유 및 천연가스의 주요 생산국이며 서아프리카 기니만은 심해 유전 개발 잠재력이 기대되는 지역
 - 나이지리아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일일 원유 생산량이 전 세계 2.9%, 천연가스는 1.2%를 차지하며 아프리카 전체 석유 자원의 약 30% 수준을 보유
 - 나이지리아 외에도 가나, 기니, 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 기니만(Gulf of Guinea) 해상지역에 대규모 유전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됨
- (광물 자원) 주요 광물 자원으로 금, 보크사이트, 인광석, 우라늄, 동, 코발트 등이 있으며 미탐사지역이 많아 다양한 광물자원의 추가 생산이 기대됨
 - 가나는 세계 11위의 금 생산국이자 12위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임
 - 세네갈 자원의 대부분은 인광석으로, 2010년 생산량은 65만톤으로 추정
 - 기니에 매장된 보크사이트는 세계 최대 규모로 세계 점유율 27.4%를 차지
 - 니제르는 세계 6위의 우라늄 생산국으로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6.4% 차지
 - 말리에서는 금이 주요 생산 광물로서 말리 광물 총생산의 80%를 차지하며 남아공과 가나에 이은 아프리카 3위의 금생산국
 - 감비아에서는 세계 매장량 10위의 동과 동 제련과정의 부산물인 코발트가 감비아 광업 및 외화소득의 90%를 차지

<나이지리아 석유시장 점유율>



자료: BP.

<각국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

국가	광물	시장점유율 (%)	순위
가나	금	2.8	11
기니	보크사이트	27.4	1
니제르	우라늄	5.1	8
감비아	동	3.2	10
	코발트	3.7	5
세네갈	인광석	0.3	10

자료: USGS,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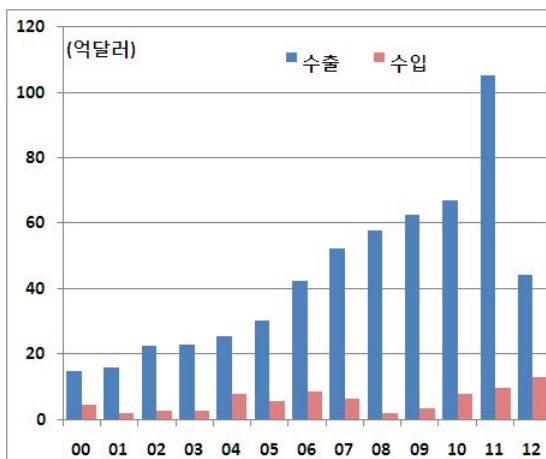
48) 한국자원정보서비스(www.kores.net) 참조

3. ECOWAS와 한국 간의 경제 교류

○ ECOWAS와 한국의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수출입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수준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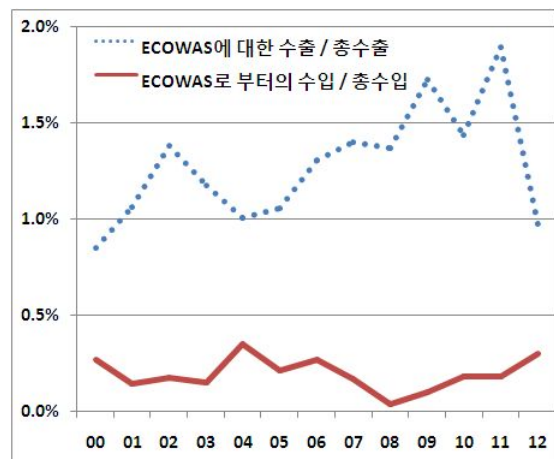
- 한국은 ECOWAS와의 교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보다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11년에 수출이 대폭 증가하여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약 9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는 예년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
 -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對 ECOWAS 총수출(105억 달러)의 94%가 라이베리아와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발생하였고, 주요 수출품목은 선박, 승용차, 가전 제품 등
 - ECOWAS로부터의 총수입(10억 달러)은 나이지리아(83%)로부터의 에너지 자원 수입에서 대부분 발생
- 2000년 이후 한국의 ECOWAS에 대한 수출 규모는 총수출의 1~2%이고, ECOWAS로부터의 수입 규모는 총수입의 0.5% 미만
 - ECOWAS 경제권은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11위 수출 지역이고, 2012년(1~10월) 기준으로는 21위에 해당
 - ECOWAS로부터의 수입은 2011년 43위, 2012년(1~10월) 36위 기록

<한국의 對 ECOWAS 수출입 규모>



자료: KITA
주: 2012년은 1~10월 기준.

<총수출입에서 ECOWAS가 차지하는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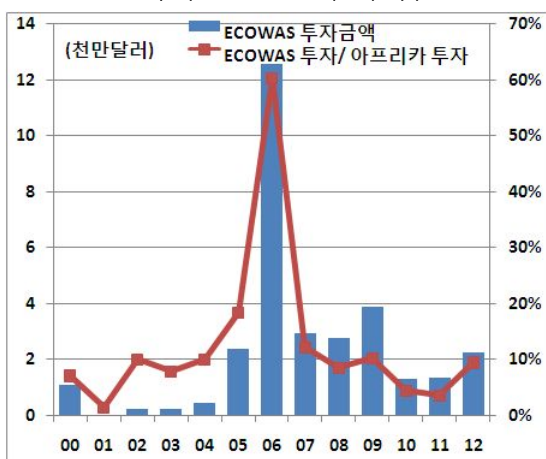


자료: KITA
주: 2012년은 1~10월 기준.

○ 한국의 ECOWAS에 대한 해외직접투자(ODA) 제공은 미미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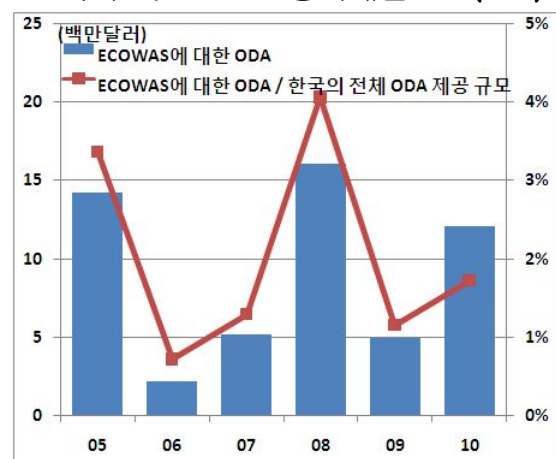
-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중에서 약 10%가 ECOWAS 지역에 대한 투자(2006년은 나이지리아에 대한 투자로 인해 예외적으로 급등)
 -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3%(2012년 1~9월 기준)에 불과
 - 2012년(1~9월) 현재 ECOWAS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약 2,300만 달러이며, 전년도(1,300만 달러)에 비해 소폭 상승
 - 해외직접투자는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발생
- 한국의 총 공적개발원조 중에서 ECOWAS 국가들에 대한 원조 비중은 약 2% 수준
 -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ECOWAS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의 3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의 61% 비중 차지
 - ECOWAS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가나(56%), 나이지리아(31%) 등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한국의 ECOWAS 투자 규모>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2012년은 1~9월 기준.

<한국의 對 ECOWAS 공적개발원조(ODA)>



자료: 수출입은행 ODA 통계
주: 총지출액 기준.

4. 시사점

첫째, 정부와 기업은 ECOWAS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 지원 및 장기적 전략적 관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 정부와 기업은 ECOWAS 소속 저개발국 극빈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를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
- 자본 공여뿐만 아니라 인적 원조(직업훈련, 경제·산업 전문가 파견)를 강화하여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을 전수
- 기업은 장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기반 시설 확충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

둘째, ECOWAS 경제권으로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지역에 대한 사전 정보와 분석 능력 배양에 주력해야 한다.

- ECOWAS 내에서조차도 언어·문화·종교 등에서 소속 국가들 간의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진출 이전에 개별 국가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이 필요
- 장기적인 신뢰 형성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한·아프리카 포럼,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등을 활성화하여 정보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정부는 ECOWAS 지역에 대한 경제·사회·문화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고, ECOWAS 국가들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전문가 육성을 지원

셋째, 해당 지역 고유의 정치·사회적 리스크 불안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진출 국내 기업들의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 아프리카 특유의 정치적, 인종적 갈등으로 인해 분쟁, 내전 등의 상시적 리스크가 존재
- 이에 따라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국가간 국가내 최근 정치·사회적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노력이 요구
- 특히, 정치·사회적인 극심한 위기 상황 발생시 민·관의 체계적 공조를 통한 진출 기업의 주재원 안전, 자산 보존 등의 단계별 대응 전략의 마련 및 실행 능력 점검이 필요 **HRI**

안중기 연구원 (joonggiahn@hri.co.kr, 02-2072-6242)

백다미 연구원 (dm100@hri.co.kr, 02-2072-6239)

【별첨】 ECOWAS 경제권 관련 제 표

〈ECOWAS 국가들의 경제 개요〉

(단위: 백만달러)

	GDP	FDI	수출	수입
	2012년 기준	2010년 기준	2011년 기준	2011년 기준
가나	40,124	2,527	14,594	17,521
감비아	940	37	242	455
기니	5,744	101	-	-
기니비사우	884	9	-	-
나이지리아	272,550	6,049	98,648	63,877
니제르	6,556	947	-	-
라이베리아	1,767	452	337	1,322
말리	9,603	148	-	-
베냉	7,541	111	1,085	2,054
부르키나파소	10,273	37	-	-
세네갈	13,950	237	3,613	6,323
시에라리온	3,824	87	365	596
카보베르데	1,868	112	803	1,379
코트디부아르	24,273	418	10,530	9,765
토고	3,624	41	1,345	1,981
ECOWAS	403,521	11,313	131,563	105,273

자료: IMF, World Bank.

<ECOWAS 소속 국가의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

	농림 수산업	광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기타 서비스업
가나	29.9	3.2	6.8	8.6	12.3	12.5	26.6
감비아	32.1	2.4	4.9	4.0	24.2	11.9	20.5
기니	22.5	26.4	7.0	11.0	17.1	5.7	10.3
기니비사우	45.3	0.4	12.5	0.4	22.0	6.0	13.5
나이지리아	35.2	33.8	2.2	1.3	16.4	2.7	8.4
니제르	44.2	8.2	5.2	2.6	14.1	6.6	19.0
라이베리아	72.0	1.3	6.7	3.1	6.0	6.4	4.5
말리	40.1	8.5	5.6	5.8	16.1	6.0	17.9
베닝	35.4	1.4	8.4	4.6	18.0	8.9	23.3
부르키나파소	37.6	2.0	9.2	5.4	12.0	5.6	28.2
세네갈	15.4	4.0	14.2	5.1	20.7	12.6	27.9
시에라리온	58.5	1.9	1.8	1.4	9.4	7.4	19.6
카보베르데	7.8	4.0	3.2	11.4	24.4	22.3	26.9
코트디부아르	27.4	6.2	16.5	4.8	15.0	4.4	25.6
토고	46.6	6.1	8.4	3.7	10.4	5.3	19.4

자료: UN(2010년 기준).

<한국의 對 ECOWAS 경제 교류>

	수출(백만달러)		수입(백만달러)		FDI(천달러)		ODA(만달러)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09	2010
가나	326	236	28	24	6,309	12,843	247	673
감비아	2	2	0	0	0	0	2	11
기니	43	44	10	9	0	0	10	16
기니비사우	1	0	0	0	0	0	8	12
나이지리아	2,487	708	799	1,204	3,460	2,600	214	374
니제르	5	8	14	0	0	4	16	115
라이베리아	7,389	3,160	1	1	0	348	1	4
말리	9	16	69	0	0	0	0	00
베냉	16	22	0	0	0	0	0	0
부르키나파소	42	31	12	11	0	0	0	0
세네갈	63	48	21	35	20	4,800	0	0
시에라리온	30	11	1	3	530	59	0	0
카보베르데	1	1	0	0	0	0	0	0
코트디부아르	93	96	3	1	3,099	1,885	0	0
토고	30	32	0	1	0	0	0	0
ECOWAS	10,537	4,413	960	1,291	13,418	22,537	497	1,206

자료: KITA, 수출입은행

주: 수출입 2012년은 1~10월, FDI 2012년은 1~9월 기준.

主要 國內外 經濟 指標

1. 국민계정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E
			1/4	2/4	3/4	연간 ^E	
경제성장률	6.2	3.6	2.8	2.3	1.6	2.5	3.5
민간소비 증감률	4.1	2.3	1.6	1.1	1.5	1.3	2.9
건설투자 증감률	-1.4	-5.0	1.5	-2.1	-0.1	-0.2	2.5
설비투자 증감률	25.0	3.7	8.6	-3.5	-6.0	1.6	5.6

자료: 한국은행.

주: E(Expectation)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2. 대외거래

		2010	2011	2012			연간 ^E	2013 ^E
				1/4	2/4	3/4		
경상수지 (억 달러)		282	265	26	112	146	310	260
통관 기준	무역수지 (억 달러)	412	308	13	96	77	263	268
	수출 (억 달러)	4,664	5,552	1,348	1,402	1,332	5,488	6,026
	증감률 (%)	(28.3)	(19.0)	(3.0)	(-1.7)	(-5.7)	(-1.2)	(9.8)
	수입 (억 달러)	4,252	5,244	1,336	1,306	1,255	5,225	5,758
	증감률 (%)	(31.6)	(23.3)	(7.8)	(-2.8)	(-7.0)	(-0.4)	(10.2)

자료: 한국은행, 지식경제부.

주: E(Expectation)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3. 고용 및 물가

구 분		2011	2012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고 용	실업률 (%)	3.4	3.5	4.2	3.7	3.5	3.1	3.2	3.1	3	2.9	2.8
	취업자수 증감 (만명)	41.5	53.6	44.7	41.9	45.4	47.2	36.5	47.0	36.4	68.5	39.6
물 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	4.0	3.4	3.1	2.6	2.5	2.5	2.2	1.5	1.2	2.0	2.1
	생활물가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	4.4	3.3	2.8	2.0	2.0	2.3	1.8	0.8	0.6	1.7	1.6

자료: 통계청.

4. 주요국 경제성장률 (%)

구 분	2010	2011	2012			
			1/4	2/4	3/4	연간 ^E
미 국	2.4	1.8	2.0	1.3	2.0	2.2
유로지역	2.0	1.4	0.0	-0.2	-0.1	-0.4
일 본	4.5	-0.7	5.2	0.3	-3.5	2.2
중 국	10.4	9.2	8.1	7.6	7.4	7.8

자료: 한국은행, EUROSTAT, BEA, 일본 내각부, 중국 국가통계국, IMF.

주: 1) 미국과 일본은 전기대비연율, 유로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임.

2) E(Expectation)는 IMF 전망치.

5. 국내 주요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제조업							건설업 건설기성 (불변)
	유화	철강	자동차	조선	ICT			
						반도체		
2011. 1	13.6	5.9	13.3	23.5	12.6	16.5	42.8	-10.3
2	8.9	1.5	11.7	11.8	2.7	17.0	37.9	-20.6
3	9.3	8.4	11.6	11.5	21.1	8.7	30.8	-8.1
4	7.0	-1.8	11.2	8.3	19.1	11.5	38.6	-10.0
5	8.5	3.1	8.8	11.1	18.8	12.0	33.9	-9.4
6	6.3	7.1	6.2	16.1	16.1	6.2	29.7	-1.5
7	3.6	4.4	7.3	11.4	8.1	2.1	23.5	-14.6
8	4.9	1.2	8.6	22.0	9.3	1.7	18.7	-9.5
9	7.4	3.6	10.1	15.7	8.2	9.8	30.0	-0.9
10	6.7	2.7	4.6	12.1	-3.0	17.1	57.9	2.5
11	6.3	1.4	6.4	14.1	-0.8	13.4	53.1	-6.3
12	2.9	-0.8	4.1	11.5	-6.6	6.7	32.0	1.7
2012. 1	-1.9	-0.3	-1.8	-7.4	-16.4	4.4	20.7	-9.6
2	15.2	11.5	6.7	35.5	15.0	10.7	21.8	9.0
3	0.7	-0.9	1.6	8.1	-4.9	4.4	13.9	-7.6
4	0.1	4.8	-2.6	4.2	-8.1	0.4	8.8	-8.0
5	2.9	7.6	1.1	8.8	3.0	1.9	11.9	-6.6
6	1.6	1.2	4.0	1.8	-9.3	5.1	16.2	-16.2
7	0.2	4.7	3.9	-6.2	-6.8	0.0	4.3	0.2
8	0.2	6.6	5.1	-19.8	-8.7	7.9	21.7	-7.9
9	0.7	6.5	2.6	-6.5	-3.4	3.0	11.3	-5.2
10	-0.8	1.0	-3.9	-3.5	-11.4	3.5	13.6	-11.5

자료: 통계청.

주: 통계청 통계상 공식적인 산업 명칭은 유화(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철강(1차 철강 제조업), 자동차(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조선(선박 및 보트 건조업)임.

6. 국내 주요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감률 (전년동월대비, %)

	서비스업							
	도소매	운수	숙박음식	금융보험	부동산 등	전문서비스	교육서비스	
2011. 1	4.8	8.6	8.3	-0.5	7.8	-21.5	-1.0	6.1
2	0.3	-0.6	4.2	-0.4	6.3	-22.0	-9.3	1.0
3	3.1	4.2	9.1	-2.7	7.1	-15.1	-2.0	2.0
4	3.2	4.3	4.1	-0.8	9.6	-16.5	2.6	1.5
5	2.9	5.8	3.4	1.7	6.0	-12.1	-1.1	0.5
6	3.4	4.8	3.1	0.6	5.7	-3.1	-4.6	2.4
7	4.0	3.4	4.0	1.4	7.8	-0.8	-0.6	3.4
8	5.2	4.8	4.6	-0.3	11.1	-1.0	4.0	4.6
9	4.2	2.6	4.0	-0.9	8.4	-1.7	7.3	2.8
10	3.7	3.7	2.2	-1.0	7.6	-3.4	3.5	2.2
11	3.0	3.0	2.1	-0.9	5.8	-4.9	4.5	1.8
12	1.6	1.7	-1.3	-1.9	4.4	-9.1	1.4	0.8
2012. 1	0.6	1.2	-0.2	-4.8	2.1	-13.1	4.2	3.1
2	5.6	5.0	5.7	2.1	10.5	-4.3	9.2	3.2
3	1.6	0.5	-3.8	0.9	2.9	-6.7	5.8	2.1
4	1.0	-0.3	-1.9	0.0	0.1	-5.5	3.7	1.8
5	2.4	1.1	2.9	0.0	3.0	-4.3	3.0	3.3
6	1.4	-0.3	1.2	0.6	2.4	-4.1	2.6	0.2
7	1.5	1.6	-0.6	-0.1	2.4	-4.0	4.9	-0.9
8	0.8	-0.9	0.2	0.8	0.8	-2.8	3.0	0.4
9	2.7	1.7	2.4	1.5	4.1	-1.2	3.7	1.3
10	0.9	-0.6	0.6	-1.1	2.0	0.5	1.0	0.3

자료: 통계청.

7. 금융시장 (주가, p)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로지역
	KOSPI	다우존스	니케이225	상하이B	FTSE Euro100
2011. 1	1,904.63	11,006.00	9,937.04	298.30	2,219.06
2	2,051.00	11,577.50	10,228.92	304.35	2,325.99
3	2,069.73	11,891.90	10,237.92	306.45	2,378.56
4	1,939.30	12,226.30	10,624.09	315.14	2,431.08
5	2,106.70	12,319.70	9,755.10	317.44	2,331.24
6	2,192.36	12,810.50	9,849.74	303.36	2,397.85
7	2,142.47	12,569.80	9,693.73	288.40	2,362.66
8	2,100.69	12,414.30	9,816.09	271.31	2,303.78
9	2,133.21	12,143.20	9,833.03	281.70	2,247.61
10	1,880.11	11,613.50	8,955.20	260.64	2,007.17
11	1,769.65	10,913.40	8,700.29	239.33	1,928.98
12	1,909.03	11,955.00	8,988.39	254.35	2,082.25
2012. 1	1,847.51	12,045.70	8,434.61	229.16	2,056.15
2	1,825.74	12,217.60	8,455.35	215.26	2,103.16
3	1,955.79	12,632.90	8,802.51	221.79	2,164.27
4	2,030.25	12,952.10	9,723.24	241.77	2,233.22
5	2,014.04	13,212.00	10,083.56	230.33	2,208.91
6	1,981.99	13,213.60	9,520.89	248.37	2,155.48
7	1,843.47	12,393.50	8,542.73	237.22	2,007.89
8	1,854.01	12,880.10	9,006.78	235.64	2,114.33
9	1,881.99	13,008.70	8,695.06	203.34	2,202.23
10	1,905.12	13,090.80	8,839.91	214.43	2,235.37

자료: 한국은행. 주: 말일 기준.

8. 금융시장 (금리, %)

	한국		국제금리			
	회사채 (3년물 AA-)	국고채 (3년물)	미국 3개월 만기 단기채정증권	미국 10년 만기 국채	독일 10년 만기 국채	일본 10년 만기 국채
2011. 1	4.52	3.71	0.15	3.37	3.16	1.22
2	4.72	3.94	0.13	3.43	3.17	1.27
3	4.54	3.74	0.09	3.47	3.35	1.27
4	4.54	3.74	0.04	3.29	3.24	1.22
5	4.44	3.66	0.05	3.06	3.02	1.17
6	4.40	3.65	0.01	3.16	3.03	1.15
7	4.48	3.77	0.09	2.80	2.54	1.09
8	4.29	3.57	0.01	2.22	2.22	1.04
9	4.24	3.45	0.02	1.92	1.89	1.04
10	4.29	3.47	-0.02	2.11	2.03	1.06
11	4.24	3.39	0.00	2.07	2.28	1.08
12	4.24	3.36	0.01	1.88	1.83	0.99
2012. 1	4.24	3.37	0.05	1.80	1.79	0.98
2	4.25	3.43	0.08	1.97	1.82	0.97
3	4.36	3.55	0.07	2.21	1.79	1.00
4	4.25	3.50	0.09	1.91	1.66	0.90
5	4.01	3.38	0.07	1.56	1.46	0.87
6	3.87	3.29	0.08	1.64	1.46	0.85
7	3.60	3.01	0.10	1.47	1.31	0.78
8	3.40	2.83	0.07	1.55	1.42	0.81
9	3.31	2.81	0.09	1.63	1.54	0.81
10	3.30	2.78	0.11	1.69	1.52	0.78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주: 월평균 기준.

9. 금융시장 (환율)

	한국		일본	중국	유로지역
	원/달러	원/100엔	엔/달러	위안/달러	달러/유로
2011 1	1,114.30	1,356.59	82.14	6.5821	1.3587
2	1,127.90	1,380.96	81.68	6.5745	1.3737
3	1,107.20	1,331.89	83.13	6.5560	1.4121
4	1,072.30	1,313.77	81.62	6.5017	1.4839
5	1,080.60	1,335.56	80.91	6.4829	1.4341
6	1,078.10	1,335.69	80.72	6.4634	1.4474
7	1,052.60	1,353.22	77.79	6.4424	1.4325
8	1,071.70	1,396.81	76.73	6.3808	1.4437
9	1,179.50	1,536.61	76.76	6.3974	1.3576
10	1,104.50	1,457.99	75.76	6.3587	1.4148
11	1,150.30	1,475.69	77.95	6.3772	1.3326
12	1,153.30	1,485.16	77.66	6.3190	1.2955
2012 1	1,125.00	1,473.09	76.37	6.3337	1.3139
2	1,126.50	1,399.21	80.51	6.2991	1.3460
3	1,137.80	1,380.74	82.41	6.3058	1.3301
4	1,134.20	1,412.01	80.33	6.3099	1.3240
5	1,177.80	1,489.10	79.10	6.3578	1.2367
6	1,153.80	1,453.79	79.37	6.3575	1.2437
7	1,136.20	1,453.59	78.17	6.3795	1.2261
8	1,134.60	1,443.97	78.58	6.3498	1.2511
9	1,118.60	1,441.12	77.62	6.3023	1.2911
10	1,094.10	1,374.50	79.60	6.2405	1.2963

자료: 한국은행. 주: 말일 기준.

10. 국제원자재가

	원유 (달러/배럴)		비철금속	농산물	로이터 상품지수	CRB 선물지수
	WTI유	두바이유	동(달러/톤)	소맥(센트/부셸)		
2011 1	92.19	94.07	9,767.5	840.75	3,302.28	341.42
2	96.97	107.97	9,879.5	782.50	3,257.11	352.58
3	106.72	109.47	9,413.3	763.25	3,241.84	359.43
4	113.93	118.65	9,296.0	769.25	3,187.01	370.56
5	102.70	109.39	9,202.3	782.25	3,224.81	350.06
6	95.42	106.33	9,414.0	584.75	3,139.74	338.05
7	95.70	111.09	9,811.3	672.50	3,139.93	342.08
8	88.81	109.47	9,257.5	745.25	3,131.19	342.57
9	79.20	100.93	6,998.0	609.25	2,811.36	298.15
10	93.19	105.60	7,981.5	628.25	2,822.04	319.84
11	100.36	108.90	7,859.5	595.75	2,722.86	313.82
12	98.83	104.84	7,590.0	652.75	2,704.15	305.30
2012 1	98.48	109.46	8,299.5	666.00	2,935.40	312.31
2	107.07	120.50	8,493.0	664.25	2,970.83	322.43
3	103.02	120.17	8,474.5	660.75	2,978.34	308.46
4	104.87	116.05	8,534.5	647.75	2,983.38	305.95
5	86.53	101.80	7,434.0	643.75	2,890.29	272.97
6	84.96	92.75	7,691.8	739.00	2,922.11	284.19
7	88.06	102.44	7,551.5	888.25	3,136.98	299.51
8	96.47	110.47	7,606.3	870.00	3,136.71	309.59
9	92.19	110.84	8,211.5	902.50	3,143.09	309.30
10	86.24	106.83	7,758.3	864.50	3,071.98	295.84

자료: 한국은행. 주: 말일 기준.